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교육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경흔이 (耿欣怡, GENG XINYI)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교육 연구

지도교수 구본관 (인)

이 논문을 경흔이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경흔이 (耿欣怡, GENG XINYI)

경흔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인)
부 위 원 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문 초록

한국어 교육에서 '가다, 오다'는 기본적인 이동동사로서 초급 과정에서 많이 제시하는 어휘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급에 이르러서도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과 특성의 차이와 용법에 대해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 가지고 있는 한국어 방향성 이동동사 '가다' '오다'가 지닌 본동사의 의미기능의 특징을 인지 언어학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어 어휘 습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의 연구 절차와 흐름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인지 언어학 원리를 근거하여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개념화와 범주화 분류 방식, 대칭성, 동기화, 의미망 등 이론을 검토했다. 이에 참조하여 상위-하위 의미기능, 대칭성-비대칭을 규정하고 의미를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의미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을 확정했다.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가다'와 '오다'가 한 쌍의 반의어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중국어에서 대응하는 이동동사 '走' '去''来'의 의미기능과 대조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한국어 교재와 사전에서 '가다'와 '오다' 의미기능의 제시 방식을 파악했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습득 양상을 확인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행했다. Ⅱ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문법성 판단 테스트, 한중 번역 테스트, 인식 조사 총 3부분으로 구성한 후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 6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22명으로 실시했다. 제Ⅱ장에서 논의한 다의어 의미구조 방식, 범주화 및 개념화 원리를 바탕으로 다의어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하위 의미기능, 다의어 대칭-비대칭 원리를 결합하여 상위-하위 의미기능 유형별, 대칭성 의미 유형별, 구조적 비대칭성 유형별, 의미적 비대칭성 유형별 등 틀을 통해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조사한 결과는 고급까지도

'가다, 오다'의 확장 의미 특징에 대해 보편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는 먼저 상위-하위 의미기능 차원에서 '이동' 의미 개념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변화'와 '존재' 개념에 대해 파악과 사용이 아직 부족하다. 또한, 다의어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관점으로 보면 대칭성에 속하는 의미기능과 의미적 비대칭성에 속하는 의미기능을 가장 많이 옳게 이해하고 사용하지만, 구조적 비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는 낮은 정답률 차이로 이해와 사용 상황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용양상을 통해 학습자가 대치 오류, 첨가 오류, 누락 오류, 격조사 혼용 오류 등 오류 양상을 존재한다. 사용양상을 통해 과도하게 사용 혹은 불필요한 파생어나 합성어를 사용하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크게 모국어 간섭, 한국어 의미기능의 복잡성, 교육 과정의 미흡과 한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자세하게 기술했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 배경과 Ⅲ장에서 살펴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휘 연상 실험과 의미망 도식화 구축 방법을 활용하여 암기와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안을 만들어 낸다. 전통적인 제시-연습-생성(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교육 모형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안했다. 교안 제시 순서도 고빈도에서 저빈도로, 인지적으로 쉬운 의미에서 어려운 의미로, 의미적 대칭 관계에서 비대칭 관계로, 구조적으로 대응 관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순서로 규정되었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기술하였다. 의미기능에서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점,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인수가 비교적 적어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에 대한 한계점이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한국어 교육, 중국인 학습자,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인지언어, 대조 언어, 의미기능, 의미망, 어휘 연상.
* **학번:** 2021-23334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 4

2.1 국어학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연구 ····· 5

2.2 한국어 교육학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연구 ····· 9

3. 연구 절차 및 방법 ····· 10

Ⅱ.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의 전제 ····· 13

1. 인지 언어학과 인접 학문 ····· 13

1.1 범주화 및 개념화 ····· 13

1.2 다의어의 의미구조 ····· 14

1.3 다의어의 비대칭성 ····· 18

1.3.1 구조적 비대칭성 ····· 19

1.3.2 의미적 비대칭성 ····· 20

2.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범주화 규정 ····· 22

2.1 이동동사 정의 및 인지 성분 ····· 22

2.2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범주화 ····· 28

2.2.1 '가다, 오다' 사전에 기술한 의미 ····· 28

2.2.2 '가다' 의미기능 범주화 분석 ····· 38

2.2.3 '오다' 의미기능 범주화 분석 ····· 43

2.2.4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 범주화 비교 ····· 48

3. 한•중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 대조분석 ····· 57

3.1 '가다'와 '去'의 의미 대조 양상 ····· 57

3.2 '오다'와 '来'의 의미 대조 양상 ····· 63

4. 이동동사 '가다, 오다' 교육 실태 ····· 68

4.1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가다, 오다' 의미 기술 ····· 68
4.2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가다, 오다' 제시 상황 ····· 69

Ⅲ. 중국인 학습자의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이해 및 사용양상 ····· 73
1. 조사 방법 ····· 73
1.1 조사 대상 선정 ····· 73
1.2 조사 도구 개발 ····· 74
1.2.1 문법성 판단 테스트 ····· 75
1.2.2 번역 테스트 ····· 77
1.2.3 인식 조사 및 사후 인터뷰 ····· 77
1.3 분석 방법 및 절차 ····· 78
2. 중국인 학습자의 '가다, 오다' 이해 및 사용양상 및 오류 분석 79
2.1 의미기능별 이해 양상 분석 ····· 79
2.1.1 상위 유형별 이해 양상 ····· 82
2.1.2 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4
2.1.3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8
2.1.4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9
2.1.5 소결론 ····· 93
2.2 의미기능별 사용양상 분석 ····· 94
2.1.1 상위 유형별 사용양상 ····· 95
2.2.2 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 96
2.2.3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 97
2.2.4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 98
2.2.5 소결론 ····· 100
3. 중국인 학습자 이동동사 '가다, 오다' 오류 원인 분석 ····· 101
3.1 의미기능 복잡성에 기인한 오류 ····· 102
3.2 한•중 의미기능 차이에 기인한 오류 ····· 104

3.3 확장 의미 교육 미흡에 기인한 오류 ····· 104

Ⅳ. '가다, 오다' 의미기능 교수·학습 방안 ····· 105

1.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교수·학습 목표 ····· 105

2.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교육 내용 ····· 108

2.1 상위-하위 의미기능 교육 ····· 109

2.2 대칭성-비대칭성 의미기능 교육 ····· 111

3.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교육 방법 ····· 113

3.1 어휘 연상 실험 ····· 114

3.2 의미망 도식화 구축 ····· 118

3.2.1 의미망의 구상 규칙 ····· 120

3.2.2 의미망 구축의 의미 ····· 121

3.2.3 '가다, 오다' 의미망 도식의 도출 ····· 122

4. 인지모형을 활용한 '가다, 오다'의 교수·학습 방안 실제 ····· 123

Ⅴ. 결론 ····· 133

표 목차

<표Ⅰ-1>「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3. 일반 어휘 통계 ····· 3
<표Ⅰ-2> 선행연구 분류 ····· 4
<표Ⅰ-3>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11
<표Ⅱ-1> Langacker(1987)의 의미망 구조 ····· 16
<표Ⅱ-2> Wittgenstein(1958, 66-67)의 의미 연쇄 구조 ····· 16
<표Ⅱ-3> 이동동사 정의에 관한 논술 ····· 22
<표Ⅱ-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다'의 의미 범주화 분류 ····· 29
<표Ⅱ-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오다'의 의미 범주화 분류 ····· 34
<표Ⅱ-6> '가다, 오다' 의미 유형 비고 ····· 56
<표Ⅱ-7> 한국어 '가다, 오다'와 중국어 '去/来' 의미 대응 차이 ····· 67
<표Ⅱ-8>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와 '오다'에 대한 의미 기술 ····· 68
<표Ⅱ-9>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의 의미 제시 상황 ····· 69
<표Ⅱ-10> 한국어 교재에서 '오다'의 의미 제시 상황 ····· 71
<표Ⅲ-1> 실험자 기본 정보 분류 ····· 74
<표Ⅲ-2> 연구 도구 개발 ····· 75
<표Ⅲ-3> 진위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예시 ····· 76
<표Ⅲ-4> 문장 번역 테스트 예시 ····· 77
<표Ⅲ-5> 실험 시간 및 대상 ····· 79
<표Ⅲ-6>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신뢰도 분석 결과 ····· 79
<표Ⅲ-7> 진위 판단형 테스트 집단통계량 ····· 80
<표Ⅲ-8> 진위 판단형 테스트 독립표본 검정 결과 ····· 80
<표Ⅲ-9> 상위-하위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4
<표Ⅲ-10> 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5
<표Ⅲ-11> 장소 이동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5
<표Ⅲ-12> 추상적인 이동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6
<표Ⅲ-13> 도달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7
<표Ⅲ-14> 신분 변화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87
<표Ⅲ-15>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8
<표Ⅲ-16> 시간 이동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88
<표Ⅲ-17> 심리 변화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89

<표Ⅲ-18>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 89
<표Ⅲ-19> 상태 변화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90
<표Ⅲ-20> 소실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90
<표Ⅲ-21> 생성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92
<표Ⅲ-22> 소모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92
<표Ⅲ-23> 내림 의미 유형 이해 양상 ····· 93
<표Ⅲ-24> 의미기능별 이해 양상 분석 결과 ····· 93
<표Ⅲ-25> 의미기능별 사용양상 결과 ····· 94
<표Ⅲ-26> 상위-하위 의미기능 사용양상 ····· 96
<표Ⅲ-27> 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 96
<표Ⅲ-28> 도달 의미기능 사용양상 ····· 97
<표Ⅲ-29> 신분 변화 의미기능 사용양상 ····· 97
<표Ⅲ-30>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 98
<표Ⅲ-31> 심리 변화 의미기능 사용양상 ····· 98
<표Ⅲ-32>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 90
<표Ⅲ-33> 상태 변화 의미기능 사용양상 ····· 99
<표Ⅲ-34> 소모 의미기능 사용양상 ····· 100
<표Ⅲ-35> 의미기능 복잡한 원인 ····· 102
<표Ⅲ-36> 의미기능 복잡성과 이해 양상 상관분석 1 ····· 103
<표Ⅲ-37> 의미기능 복잡성과 이해 양상 상관분석 2 ····· 103
<표Ⅲ-38> 한중 의미 차이와 이해 양상 상관분석 ····· 104
<표Ⅳ-1> 교육 목적 및 목표 ····· 108
<표Ⅳ-2> '가다'의 상위-하위 의미기능 교육 내용 ····· 109
<표Ⅳ-3> '오다'의 상위-하위 의미기능 교육 내용 ····· 110
<표Ⅳ-4> '가다, 오다'의 비대칭성 의미기능 교육 내용 ····· 111
<표Ⅳ-5> 단어를 아는 것에 연계된 지식 (Nation, 2001:27) ····· 114
<표Ⅳ-6> Leech(1974)의 의미 분류 ····· 115
<표Ⅳ-7> 임지룡(1999)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의 유형 ····· 116
<표Ⅳ-8> 다의어 의미망 구축 규칙 ····· 121
<표Ⅳ-9> 상향식 교수-학습 모형(이미혜, 2007:300) ····· 124
<표Ⅳ-10> 수업 목표와 내용 ····· 124

<표Ⅳ-11> 수업 교안 제시 ····· 125

그림 목차

<그림Ⅰ-1> 연구 절차 도식화 ····· 13
<그림Ⅱ-1> 방사형 의미망 ····· 15
<그림Ⅱ-2> 서술형 의미망 ····· 15
<그림Ⅱ-3> 방사 사슬형 의미망 ····· 15
<그림Ⅱ-4> Langacker(1987)의 의미망 구조 ····· 16
<그림Ⅱ-5> Wittgenstein(1958:66-67)의 의미 연쇄 구조 ····· 16
<그림Ⅱ-6> 이동 사건 틀 요소 관계 (이민우, 2002) ····· 26
<그림Ⅱ-7>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상위 의미망 구성 ····· 27
<그림Ⅱ-8> 동사 '가다'의 모습 (박순옥, 2000) ····· 39
<그림Ⅲ-1> 학습자 습득 경로 조사 결과 ····· 104
<그림Ⅳ-1> 다의어 '다리'의 의미 확장의 인지적 분류 ····· 119
<그림Ⅳ-2> 다의어의 의미망 가상 모형 ····· 119
<그림Ⅳ-3> 다의어 의미망 구축 도식 ····· 120
<그림Ⅳ-4>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 이미지 도식 ····· 122
<그림Ⅳ-5> '가다, 오다' 의미기능 의미망 도식 ····· 123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어휘 학습은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의어 어휘의 습득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풍부한 어휘력이 중요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어휘나 다양한 의미, 복잡한 용법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따라서 어휘 교육은 한국어 교육 중에 피할 수 없는 큰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휘는 한 가지 의미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 환경이나 문장 맥락, 발화 상황소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한국어 어휘 교육은 대부분 모국어와 일대일로 대응되는 원형의미와 뜻을 암기해 달라고만 하고 다양한 깊은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다의성 동사를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것은 현재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지 언어학과 대조언어학 관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 가지고 있는 한국어 방향성 이동동사 '가다' '오다' '오르다' '내리다' '들다' '나다'에 대한 의미기능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실제 어휘 교육 방안을 설계하여 한국어 어휘 습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Wilkins(1972)에서는 '문법 없으면 문장의 의미를 거의 전달될 수 없지만, 어휘 없으면은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라고 제시하고 McCarty(1990)에서는 아무리 문법을 잘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의 관점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질 수가 수 없다고 했다. Krashen(1989)에서는 외국인들이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어려운 영역은 어휘라고 주장했다. 제2언어 습득이론에도 대량의 재인식 어휘가 외국어 언어 기능을 키우는 기초와 바탕이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동사는 다른 어휘 분류보다 더 중심적이라고 할 만큼 한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장의 결정적인 성분은 동사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다. 동사의 서법, 시제, 상적, 양태 개념을 통해 문장의 의미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구어에서 명사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겠지만 동사 성분인 서술어 생략이 불가능한 일이다. 동사는 문장 중의 서술어로서 다른 문장 성분의 바탕이고 그 문장을 일정한 의미 가지게 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사는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상태 동사보다 동작 동사는 비교적 동작성이 더 강하다. 동작 동사 중에서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야말로 동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동사(locomotion verbs/verbes de mouvement, 이하는 Vmt로 약칭함)는 장소의 변화를 수반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동동사는 구체적으로 방향성 이동동사와 비 방향성 이동동사(즉 양태성 이동동사)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방향성 이동동사는 [방향성]과 [이동성] 두 가지 자질을 동시에 갖추는 이동동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동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동사는 '가다'와 오다'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 언어학 접근을 중심으로 이동동사 '가다'와 오다'의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동동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의 필요성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가다'와 '오다'는 기초적인 이동동사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으며 다양한 명사와 구절을 경합하여 다양한 확장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해와 학습의 부족으로 인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색한 표현을 선택하거나 일부로 회피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다'의 의미 항목은 33개이다. 그중에서 중국어의 '去'에 직접 대응되는 의미는 9개 밖에 없고 '오다'의 의미 항목은 23개인데 그중에서 중국어의 '来'에 직접 대응되는 형태는 7개만 있다. 이와 어울려서 중국어 『现代汉语词典』에서는'去'의 의미가 14개, '来'의 의미는 16개를 제시하기 때문에 한국어 '가다, 오다'와도 1대1로 대응하여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의미는 비슷하겠지만 확장 의미의 차이가 매우 크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중국인 학습자가 학습이 어려워하기

도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 및 교재에서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한 교육이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원형의미만 제시하고 확장 의미에 대한 제시와 설명이 따로 없고 의미 제시가 불완전하다. 그리고 확장 의미는 보통 어휘적 연어나 조사 포함하는 덩어리(chunk) 형태로 다루는데 이는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 유형 자체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부족한 것을 보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다, 오다'는 각각 본동사로서 어휘의미의 유연성과 다의성, 의미 다양성 및 복잡성,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 높은 중요성, 모국어의 대응 관계 불일치성, 교육 방안 미흡 등 원인으로 '가다, 오다'는 본동사로서 의미 양상 이해에 오류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또한, 국립국어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에 (2005)에서는 3백만 어절의 문헌 연구 자료에 대한 이동동사 사용 빈도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표Ⅰ-1>「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3. 일반 어휘 통계

어휘	순위	빈도
가다01(동)	32	7747
가다01(보)	137	2381
오다01(동)	39	6126
오다01(보)	78	3397
들다01(볕이 ~)/(동)	94	3034
들다01(따지다)/(보)	1049	123
들다03(칼이 잘 ~)/(동)	1168	4
들다04(꽃이 ~)/(동)	110	2793
나다01(동)	118	2648
들어가다01(동)	163	2163
들어오다(동)	243	1534

들어올리다(동)	1171	1
떠나다(동)	361	1048
떠나가다	1129	43
오르다(동)	336	1130
올라오다(동)	851	321
올라가다(동)	527	704
내리다(동)	239	1571
내려가다(동)	999	173
내려오다(동)	694	490

이를 통해 '가다' '오다'는 본동사로서 32, 39순위 차지하고 보조동사로서 137, 78순위 차지한다. 다른 이동 동사와 비교해서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서 기본 이동동사 어휘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어휘를 '가다, 오다'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념의미론 측면으로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한 인지 확장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많은 의미의 대립 관계와 용법이 무엇인가?
2. 중국어 이동동사 '走(가다)/去(가다)/来(오다)'의 확장 의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에 대해 이해 및 사용양상을 분석했을 때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교해 사용양상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동사 '가다, 오다' 의미망 구축을 근거하여 도식화와 인지모형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연구

이동동사 '가다'와 오다'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아래와 같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표Ⅰ-2> 선행연구 분류

	이동동사 '가다, 오다'
국어학적 연구	이기동(1977), 전수태(1987.89), 류재복(1992), 서정수(1996), 임지룡(1998), 신홍명(2003), 김문기(2007), 육미란(2008), 김신회(2009), 노금송(2009)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조문우(2003), 소림(2012), 유승림(2018), 이양(2014), 이남(2012), 신근(2014), 염철(2014), 차오리핑(2016)

2.1 국어학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연구

국어학적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연구는 이기동(1977), 전수태(1987,89), 류재복(1992), 서정수(1996), 임지룡(1998), 이남석(1999), 성환갑(2000), 신홍명(2003), 김문기(2007), 고석주(2007), 육미란(2008), 김신회(2009), 노금송(2009) 등이 있다. 단일 이동동사에 관한 연구로서 임지룡(1998)에서는 이동동사 '가다'의 다의적 의미를 [구체적 이동], [시간의 이동], [상태의 이동], [추상적인 이동]으로 분류한다. 신홍명(2003)에서는 인지적 차원에서 이동동사 '가다'의 의미는 행위주가 [+구체적, +생물]에서 [-구체적, -생물]로, [+인간]에서 [+추상적]으로 의미의 확장 순서가 기준점으로 분류된다. 육미란(2008) 에서는 이동동사 '가다'의 기본의미를 '위치 변화', '상태 변화', '시간 변화', '심리 변화'로 구체적 '변화'의 의미로 분류되고 '가다'의 원형의미를 '이동 대상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되다'로 정의된다. 원형의미는 '사람이 한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구체적인 장소로 이동하다'로 정의됐다. 확장 의미는 '사람의 이동 → 동물의 이동 → 구체 사물의 이동 → 시간과 추상적 대상'으로 분류된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합성동사로서의 '가다'는 경로, 방식, 원인, 목적 등 의미가 있고 보조동사로서는 장소 이동, 진행, 상태 변화의 지속 등 의미를 밝혔다. 김신회(2009)에서는 '가다'의 일반 동사로서 [존재], [도달점], [출발점], [경로], [방향] 논항을 가지고(각각 조사 '-가, -에서, -로/에게(로)/에/ 까지' 한 통사적 형태로 '이동, 변화, 물리적 연장', '방향', '시간, 심리, 경험', '영향', '수량, 소유' 등 의미로 분류와 보조동사로서의 쓰임. [존재]와 [경

로] 두 가지 논항을 가지고 연결 어미 ‘-어/아’와 결합한 통사적 형태로 ‘진행상'과 '상황변화'의미로 분류한다. 노금송(2009)에서는 ‘가다’는 의미 확장이 ‘去’보다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去’는 방향 보어로 쓰일 때 한국어 보조용언 ‘어 가다’보다 의미가 더 다양하게 쓰이고 보조용언 ‘어 가다’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는 동시에 한중사전에서 기본의미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확장 의미에 대한 해석과 예문은 드물다고 한다.

한 쌍의 이동 동사에 관한 연구로서 이기동(1977)에서는 ‘가다’, ‘오다’의 의미 기준점을 [장소의 이동] [동작의 계속][상태의 변화] [감각 및 감정의 변화]라는 네 가지 때에 따라 분석한다. [장소의 이동]은 화자가 고정되어 있을 때, 화자가 이동하는 서술문, 그리고 의문문 경우로 나눈다. 화자와 청자의 위치와 기준점에 따라 선택이 다르다. [동작의 계속]에서는 과거에서 기준점까지 계속되는 동작은 '오다', 기준점에서 미래로 계속되는 동작은 '가다'로 쓰인다. [상태의 변화]의 기준점은 또 ‘정상상태’와 ‘바람이나 예상’ 가까워지거나 할 때 ‘오다’, 멀어질 때 ‘가다’가 쓰인다. [감각 및 감정의 변화]에서는 느끼기 시작할 때 (화자가 영향을 받을 때 '오다'),의문문에서만 청자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전수태(1987:89)에서는 이동 동사는 통사적인 관점과 의미적인 관점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성의미론 입장에서 ‘가다’‘오다’를 상황소 표시와 의미구조로 분류한다. 상황소 표시에서 기준점을 화자의 [현재 위치], [과거 위치], [미래 예정 위치], [화자 (청자)의 집]으로 구분한다. [현재 위치]에서 '가다’는 ‘거기’에만 ‘오다’는 ‘여기’에만 호응한다. [과거 위치]나 [미래 예정 위치]에서는 ‘거기’와 ‘오다’가 호응할 수 있으나 ‘여기’와 ‘가다’는 불가능. ‘가다’의 의미를 [목적지로 이동], [목적지에 도달], [발생], [계속성], [중단], [필요], [소멸], '오다’를 [목적지로 이동], [목적지에 도달], [발생], [경과], [기상] 등 분류만 하였고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류재복(1992)는 문학작품을 공간이동 개념, 시간 이동 개념, 변화 개념, 존재 개념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박미라(1998)는 출발장소에 시점이 있는 ‘가다’는 무표적이고 목적장소에 시점이 있는 ‘오다’는 유표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남석(1999)는 지시적 범주에서 ‘가다’와 ‘오다’를 해석한다.

‘자아중심적 공간 인식(Egocentric localistic point of view)’을 이용하여 이야기 상황에서 가다’는 원인 및 변화며 ‘오다’는 결과라고 설명함. 성환갑(2000)에서는 동사로 쓰인 예와 그 어휘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고석주(2007) 이동의 기준점은 ‘화자’나 ‘청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인지하는 사람의 위치’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정수(1996)에서는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는 모두 ‘지속’의 의미가 있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했다. 김문기(2007) 보조동사 ‘가다’와 ‘오다’가 [과정성]과 [방향성] 의미 가진다. 의미역을 보면 ‘출발점, 도착점, 주체'를 공통적이지만 ‘가다'는 화자가 수의적이고 ‘오다'는 화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오다'의 방향성은 더 심리적이고 주관적이다.

화용론 및 상황맥락론 차원으로 본동사 '가다, 오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만 대상자로 진행된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관련 연구는 길본일(1996), 조경윤(2005), Nakata(1995), 김정관(2009), 박은성(2009), 이빙(2009), 이연옥(2010) 등이 있다. 길본일(1996)에서는 공간 표현, 시간 표현, 심리 표현으로 나누었다. ‘가다/오다’의 사용을 동작주가 말할이, 들을이로 나누어 연구했다. 조경윤(2005)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과 영어,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선택과 대비하고 이동 주체가 화자이고 도달점이 청자일 때는 한국어와 영어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Nakata(1995)에서는 상황의미론(situation semantics)에 의해 이동 주체가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 동반, 제삼자로 나누고 각의 이동 주체에 대해서 도달점이 화자의 위치일 때, 청자의 위치일 때, 제3의 위치일 때로 나누어 ‘行く/来る’의 사용양상을 구분한다. 김정관(2009)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교재와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자료에 나타난 ‘가다’와 ‘오다’의 이동 주체별, 목적지에 따른 출현 양상과 빈도를 살펴봤다. 또한, 대구에 거주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 오사 카(大阪)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어 모어 화자, 그리고 중국 사천성(四川省)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어 모어 화자를 통해 ‘가다’ ‘오다’ ‘行く’,‘来る’및 ‘去’, ‘來’의 화용적 기능을 분석한다. 대비 연구를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방안 없다는 부족한 점이 있다. 박은성(2009)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 일본어 모어 화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초•중•고급)를 대상으로 지시적인(deictic) 이론을 바탕으로 이

동 주체, 도달점, 참조지/발화시를 기준으로 ‘가다/오다’와 ‘行く/来る’의 사용과 제약을 밝히고 이동 주체는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 동반일 때, 제삼자일 때로 나누고 각의 이동 주체에 대해서 도달점이 화자의 위치, 청자의 위치, 제3의 위치일 때로 나누어 발화 장면을 제공하고 이동동사 사용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봤다. 이연옥(2010)과 이빙(2009)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나 습관적 사용양상에 더욱 주목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다'와 오다’의 양상을 알아보고 가리킴과 상황 맥락 원리를 기초로 이동 주체를 ‘화자, 청자, 동행, 제삼자’로 구분 짓고 상황과 문장을 통해 설문 조사를 분석하지만,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부족한 점이 있다.

2.2 한국어 교육학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에서 ‘가다, 오다’의 연구는 소림(2012), 조문우(2003), 유승림(2018), 염철(2014), 이양(2014), 이남(2012), 신근(2014), 차오리핑(2016) 등이 있다.

소림(2012)는 중국의 중편소설『경성지련（傾城之戀）』,한국의 단편소설『소나기』와『날개』에서 나오는 ‘가다/오다’의 대응 번역본을 비교하고 문장에 나오는 횟수와 비율을 정리했다.

조문우(2003)와 차오리핑(2016)에서는 한국어의 '가다, 오다'와 중국어 ‘去’ ‘来’의 뜻풀이 및 용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용법을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밝혔다. 파생된 의미나 추상적 의미는 각각 의미에 적절한 단어로 대응해 봤다.

유승림(2018)에서 한국어 ‘가다, 오다’와 중국어 ‘去, 来’의 의미가 대응되는 경우와 대응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 대조분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이동 주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장소 이동일 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사람의 심리 인지 등에 관해 세밀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최인혜(2009)에서는 사전에 기초하여 한국어 ‘가다, 오다’와 중국어 ‘去, 来’가 사전에 등재된 용례를 비교 분석으로 밝혔다.

염철(2014)에서는 이동동사인 ‘가다/오다’, ‘오르다/내리다’, ‘들다/나다’의

의미기능과 중국어 대응 언어인 '去/来, 上/下, 进/出'의 사전적 의미, 문맥 의미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기체 이동, 사물 이동, 추상체의 이동 순서로 밝혔다.

이양(2014)에서는 본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를 '공간이동', '시간 이동', 그리고 '추상 표현'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정리했다.

이남(2012)에서는 이동 동사인 '가다, 오다'가 나타나는 보조용언과 합성어의 통사·의미론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과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제시한다. 특히 '동작의 진행', '동작의 지속', '상태의 변화', '단속적 반복', ''방향성 이동', '좋고 나쁨의 감정 판단 표시' 등 보조용언의 상 의미를 위주로 제시하고 중국어와 대응하는 상 의미를 밝혔다.

'가다, 오다'의 다의어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근(2014), 차오리핑(2016) 등이 있다. 신근(2014)에서 인지 언어학 다의어 개념과 확장 원리를 바탕으로 확장 의미를 분류하여 항목별로 제시한 후에 반대 관계를 이용한 의미 제시 교육 방법과 문맥을 이용한 의미 제시 교육 방법을 도입한다. 차오리핑(2016)에서 방향적 대립어의 다의 구조에 대한 비교 대조를 통해 의미적 다의 구조와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现代汉语词典(商务印书馆)을 기준으로 '가다'와 '去'의 대조분석 결과, '去'와 '가다'의 대조분석, '오다'와 '来'의 대조분석, '来'와 '오다'의 대조분석으로 나누고 다의어의 대조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고는 선행연구와 차별된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미기능 범주화 유형 더 세분한다. 선행연구에서 보통 '가다, 오다'에 대한 의미 분류는 보통 '이동', '변화', '소실', '생성', '도달', '전이'로 크게 분류하여[2] 학습자 이해 양상을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예비 실험의 결과를 보면 '이동' 의미에 같이 속하고 있지만 '사람과 구체적 사물'과 '시간'의 이동이 '추상적 이동'보다 더 잘 파악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변화'라는 의미에 같이 속하고 있지만 '심리 변화'는 '신분 변화'와 '상태 변화'보다 더 잘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 각각 의미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고 이해 양상을 탐구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 고는 Langacker(1987:369-386), Wittgenstein(1958:66-67), Heine(1991), 임지룡(1997), 신형숙(1984), 육

2) 염철(2014), 노금송(2019), 육미란(2008) 등이 있다.

미란(2008)의 의미 범주화 이론과 Talmy(2000a,b), Langacker(1987,1991), 이민우(2002)의 이동 동사의 상위-하위개념, 대칭성-비대칭성 개념을 결합하여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 세분한다.

둘째, 연구 내용 차원에서 특히 양상 측정 및 분석에서 '가다'와 '오다'를 두 단어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 따로따로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 그러나 '가다, 오다'는 한 쌍의 반의어로서 반대되는 관계를 존재한다. 따라서 '가다'와 '오다'가 반의어로서 반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반영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가다, 오다'의 확장 의미를 합쳐서 공통 의미와 차별 의미를 밝히고 혼합하여 같이 측정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가다'와 '오다'는 중립적인 문맥에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다의적 용법 속에서 대립 관계의 작용방식을 살펴보는 일은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형의미를 벗어난 경우나 대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 이들이 다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근거와 원인을 밝히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선행연구에 교육 방안 차원에서 제시가 아직 부족하다. 관련 논문 중에서 '가다, 오다'에 관련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은 임영진(2021), 임뭉남(2017) 2편 밖에 없다. 대부분 논문은 인지 언어학과 인지 의미론 연구를 사용하여 확장 의미 뜻풀이 분류까지만 하고 향후 수업에서 구체적인 교육 방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고는 도식화 방법과 언어 연상 모형 및 머릿속 사전 등 인지모형으로 교육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인 학습자 머릿속에 동사 '가다, 오다'에 대한 의미망과 모국어 화자의 인지 의미망 차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약점(弱点)을 찾아보고 교육 방안을 보완하려고 한다.

3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가다, 오다'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본동사로서의 확장 의미와 반의 관계로서의 의미론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연구 내

3) 임영진(2021), 임뭉남(2017) 등이 있다.

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Ⅰ-3> 단계별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 단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Ⅱ장. '가다, 오다'의 이론적 토대	◆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 범주화	문헌 연구 + 사전과 교과서 분석
Ⅲ장. '가다, 오다'의 이해-사용양상 교찰	◆ '가다, 오다' 의미적 특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양상	설문 조사+인터뷰
Ⅳ장.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교수-학습 방안 마련	◆ 동사 '가다, 오다'의 교육 목표 및 내용 ◆ 동사 '가다, 오다'의 교육 방법	Ⅲ장 결론을 활용한 문헌 연구+한국어 교재 분석

본 연구는 4장으로 나누어 논술될 것이다. 제Ⅰ장은 본동사 '가다, 오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측면의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연구 목적 및 연구 필요성, 연구 방법과 범위를 고찰한다. 제Ⅱ장에는 인지 언어학 개념의미론 등 의미기능 교육의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사전, 교재 그리고 말뭉치에서[4] 제시한 '가다, 오다' 의미 양상과 중국어 대응 관련 용례의 의미적 차이와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어 '가다, 오다'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연세 한국어사전>,

4) 한국어 '가다, 오다'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국립국어원 <문법성 판단 말뭉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연세 한국어 사전>,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2009), <우리말 큰사전>(199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사전> (2006) 참조하여 용법과 용례, 그리고 예문을 조사한다. 중국어 '走, 去, 来'는 商務印書館의 現代漢語詞典(2001)을 기준으로 務印書館의 應用漢語詞典(2006), 當代漢語編의 當代漢語詞典 當代漢語編(2009), 北京大學出版社의 漢語常用詞用法詞典(1998)를 참조하여 용법과 용례, 그리고 예문을 참고한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2009), <우리말 큰사전>(199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사전> (2006) 를 참조하여 용법과 용례, 그리고 예문을 조사한다. 중국어 '走 , 去 , 来'는 商務印書館의 現代漢語詞典(2001)을 기준으로 務印書館의 應用漢語詞典(2006), 當代漢語編의 當代漢語詞典 當代漢語編(2009), 北京大學出版社의 漢語常用詞用法詞典(1998)를 참조하여 용법과 용례, 그리고 예문을 대조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 22명과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본동사 '가다, 오다'에 대한 인지의미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통계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실험자 선정 범위를 중고급 학습자에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이나 한국어 교과서에서는 '가다'와 오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1급에서 학습하지만 '가다'와 오다'는 다의어로서의 확장 의미 및 용법은 적어도 3급 이상의 중고급 단계부터 학습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5)]

둘째, 텍스트 맥락에 따라 '가다'와 오다'를 활용하는 설문지는 실험대상자가 일정한 텍스트 이해 능력을 요구한다. 담화 화용적인 상황 맥락을 잘 이해하는 능력은 적어도 중급 이상 수준의 문법 능력과 읽기 능력, 그리고 충분한 어휘력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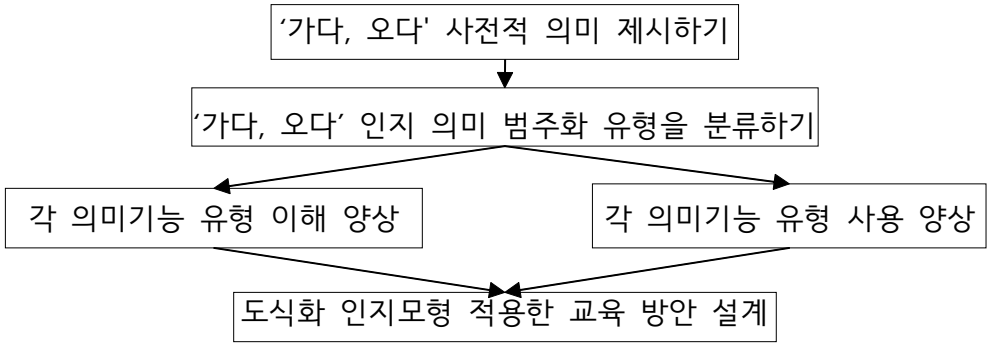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 학습에 대해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탐색한다. 특히 인지 언어학 원리를 바탕으로 어휘 연상법, 머릿속 의미망, 머릿속 사전과 도식화 시점 등 방법을 한국어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Ⅴ장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향후 보완한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

5)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에 제시된 보조용언 '-어가다''-어 오다'의 학습 순서는 다음 표와 같다.

발행 기관	-어가다	-어 오다
서울대	3권25과	3권25과
연세대	4권 1과 5단원	4권 1과 5단원
서강대	5A권	5A권
이화 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 V권9과	말이 트이는 한국어 V권9과

<그림 Ⅰ-1> 연구 절차 도식화



Ⅱ.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에 대한 논의의 전제

1. 인지언어학과 인접 학문

1.1 범주화 및 개념화

의미론은 언어표현과 그 언어표현이 기술하는 언어 외적 세계와 관련시키는 분야다. 인지주의에서는 의미를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개념화된다. 언어의 의미론은 사고나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개체 구조분석과 명시적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 Talmy (2000a:1-6)에 따르면 언어 의미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 내용과 그들이 언어 안에서의 조직화 되는 양상, 더 나아가 개념적 내용과 조직화 본질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나 정서, 지각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의미론의 주요한 연구 대상은 의식 안에 존재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인지의미론은 언어 안의 개념적 내용과 그 구조를 다루는 현상학의 한 가지일 수 있다.

범주화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세계를 범주(category)로 나

누는 과정을 지칭한다. 범주란 같은 특성이 있으며 다른 범주는 그 구성원 사이에는 부분적으로라도 같은 특성이 있으며 다른 범주와는 차이가 나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는 개, 내무, 돌, 집 등과 같은 많은 식별 가능한 대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체들을 범주화할 때 범주화 층위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범주들은 다른 위계적 관계 속에서 서로 연관이 되고 있다. 동물에서는 개, 고양이, 암소가 포함되고 개에는 테리어, 스패니얼, 푸들 등이 포함된다. Rosch(1995)는 이런 위계 구조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개, 고양이, 암소를 기본층위라고 부르면 이 층위를 포함하는 동물을 상위층위로, 그 아래의 테리어, 스패니얼, 푸들을 하위층위로 말한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층위는 분류상의 위계 구조에서 중간층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고는 위에 논의한 위계 구조 형식을 통해 의미기능 분류화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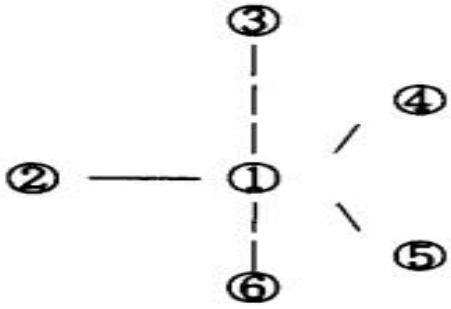
박기현(2005), 유재복(1992)에 따라 '가다'와 '오다'의 상위별 개념 의미망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공간이동, 시간 이동, 변화, 존재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간이동 차원에서는 이동의 목적, 이동의 방향, 이동의 장소, 이동의 정도, 이동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시간 이동 차원에서는 자연 시간 이동과 물리 시간 이동으로 분류된다. 변화 의미 차원에서는 신분 변화, 상태 변화, 심리 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존재 의미 차원에서는 생성, 소멸, 척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에 임지룡(1997), 육미란(2008)에 따라 이동 개념을 공간, 시간, 추상물 등 주체로 확장하여 포함하면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고는 상위별 의미 개념을 이동, 변화, 존재로 정의하고 이 절에서는 각각 상위의미별 의미기능 표현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이동', '변화', '존재'와 같이 3가지 상위의미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2 다의어의 의미구조

조남신(1994)에서는 다의어의 의미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의미의 결합과 계층적 종속성 관계와 도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고 밝혔다. 사전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러한 종속성이 매우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의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의미적 상관성을 도식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확장 의미가 원형의미에 대한 종속성, 파생의미들 상이의 상호관련성과 같은 다의어의 의미기능 특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Novikov(1987:47-48)에 따라 단어에서 의미가 연결되어있는 특성에 따라 다의어를 방사형, 사슬형, 방사-사슬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먼저 방사형은 모든 파생의미가 직접 기본의미와 관련된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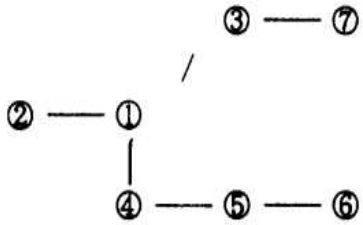


<그림Ⅱ-1> 방사형 의미망

사슬형은 의미 유형에서 각각의 확장 의미가 바로 앞에 오는 의미와만 사슬에 의해 연결되어있는 특징이 있다.

<그림Ⅱ-2> 사슬형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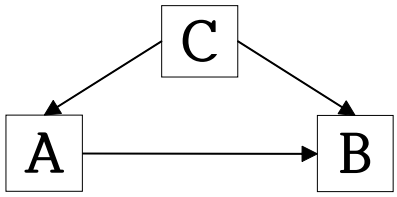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방사-사슬형이란 방사형과 사슬형의 혼합형태로서 앞의 두 유형에 비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이다. 본 고에서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 구조는 이 세 가지 격틀 유형을 참조하여 만드는 것이다.



<그림Ⅱ-3> 방사-사슬형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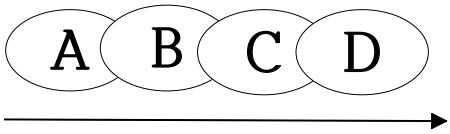
임지룡(1997)에서는 다의어는 하나의 어휘 항목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관련된 의의를 지닌 것을 본다. 다의 관계는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가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Langacker(1987:369-386)의 의미망 구조와 Wittgenstein(1958:66-67)의 의미 연쇄 구조로 다의 관계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를 설명했다.

<그림Ⅱ-4> Langacker(1987)의 의미망 구조



Langacker(1987)의 의미망 구조를 통해 다의어는 원형과의 유사성을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 관계 (A->B)를 형성한다. 원형의미 (A) 과 확장 의미(B)의 공통성을 추상화하여 수직적으로 도식(C) 관계를 통해 연결된다. 즉, 도식 (C)는 원형(A)과 확장(B)의 공통 관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과 구조를 바탕으로 도식의 원리에 의해 복합적인 망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림Ⅱ-5> Wittgenstein(1958:66-67)의 의미 연쇄 구조



또한 Wittgenstein(1958:66-67)의 의미 연쇄 구조에 따르면 원형 의미(A)를 중심으로 인접한 간의 의미 연쇄 때문에 다의어의 확장 의미(B, C, D)가 확장된다.

위에 Langacker(1987:369-386)의 의미망 구조와 Wittgenstein(1958 :

66-67)의 의미 연쇄 구조 두 모형에서 다의적 의미 확장은 기본적인 원형과 유사성에 의한 은유의 기제가 작용한 것이다. 구체적 개념에 출발하여 추상적 은유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Heine(1991)의 개념 영역의 은유 전이 방향
사람(person)->대상(object)->행위(process)->공간(space)->시간(time)->질(quality)

Heine(1991)의 개념 영역의 은유적 전이 방향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정의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지룡(1997)에서는 Heine(1991) 개념 영역의 은유 전이 방향을 바탕으로 의미 확장 양상을 더욱 구체화해지고 다양화해져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임지룡(1997)의 의미 확장 양상
①사람->짐승->생물->무생물, ②구체성->추상성, ③공간->시간->추상, ④물리적->사회적->심리적, ⑤일반적->비유성->관용성, ⑥내용어->기능어

이동동사의 확장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 확장의 양상으로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확장의미로 계층적으로 변화되는 논의가 많이 나타났다. 이동동사의 의미 확장 분류 양상은 신형숙(1984)과 육미란(2008) 등이 있었다.

신형숙(1984) 이동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이동 동사가 쓰이는 문의 주어: 사람->동물->식물->무생물->기타
이동 대상: 구체물->추상물

육미란(2008) 이동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이동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사람→동물→탈것→사물→시간→추상.
사람: 동수는 아침 일찍 도시락을 사 들고 학교로 갔다.
동물: 굶주린 멧돼지가 마을에 내려왔다.
탈것: 멀리에서 버스 한 대가 가파른 마을 길을 간신히 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물: 천정부지로 오른 배춧값이 언제 내릴지 모를 일이다.
시간: 올가을 들어 국민들의 근심은 깊어만 간다.
추상: 의심 가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신형숙(1984)에서는 이동 동사가 쓰이는 문의 주어에 따라 사람->동물->식물->무생물->기타의 순위로 밝히고 이동 대상(즉 목적어)에 따라 구체물->추상물의 순위로 논의했다. 육미란(2008)에서는 예문을 통해 이동 대상이 사람→동물→탈것→사물→시간→추상의 순위로 논의했다. 범주화하면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사람에게서 추상체까지의 의미 확장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 대상의 영역 확장에 따라 이동동사의 의미도 원형의미에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지룡(2009)에서는 다의어의 판정과 다의어의 확장 분류 개념화 및 범주화 기준을 인지 언어학 관점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인간의 경험이 확장되는 경향성 활동을 고려하여 '사람에게 사물', '사물에서 활동 혹은 과정', '공간에서 시간', '시간에서 질'의 순서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타당한 확장 경로를 고려하여 전형적인 경로로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로 확장되는 '사람 → 동물→ 식물→ 무생물', '공간→ 시간→ 추상', '물리적 위치 → 사회적 위치→ 심리적 위치', '문자성→ 비유성→ 관용성', '내용어→ 기능어' 등이 나타난다. 셋째, 의미 확장에서 구체적인 사용양상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빈도를 고려하는 방안을 언급한다. 넷째, 문법 정보를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 즉, 용언의 품사 유형에 따라 형용사, 동사 차례로 분류하며 문법화에 의한 다의적 확장으로 분류한다. 또한, 격틀의 형식에 따라 다의적 용법과 의미 확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도식화를 사용하여 다의적 확장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1.3 다의어의 비대칭성

이종열(2000)에 따라 구조언어학의 주요 임무가 단어의 의미 영역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 즉 언어 구조의 외적 대칭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설

명하여 언어 구조의 정교화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 구조, 특히 단어 구조는 외형적으로 비대칭적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 언어학에서는 의미 관계의 형성과 언어 구조의 형성이 인간의 지적, 경험적 요인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보고, 고정된 의미 관계의 체계적 특성보다는 언어의 역동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적 방향에 따라 인지 언어학의 핵심 개념은 '의미 비대칭성'이다. 특히 '의미 비대칭성'은 '다의 관계'(polysemy)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임지룡(1997:216)은 기존의 어휘 형태에 새로운 경험을 적용하여 다의어의 의미를 획득하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사이의 구조적, 인지적 비대칭성 등을 지적한다.

1.3.1 구조적 비대칭성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사이에는 '구조적 비대칭성'(structural asymmetry)이 나타난다. 구조적 비대칭성은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원형의미가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반면, 확장 의미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임지룡(1996:252)은 단어의 원형의미가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중립적인고 무표적인 반면, 확장 의미는 여러 가지로 문법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유표적임을 뜻한다. 그러나 동의어의 구조적 비대칭성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시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특정 개념에 대해 이를 나타내는 단어의 의밋값이 같이 대칭이 아니라 한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개념을 더 잘 나타내며 이러한 단어는 의미상 동의어이며 무표적으로 동의어다운 동의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의어의 구조적 비대칭성은 조어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동의어의 유형 가운데에는 의미와 형태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어론적 유형의 동의어들은 그 의미와 형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1) a. '끌다-이끌다', '쑤시다-들쑤시다', '긁다-짓긁다', '솟다-치솟다'.

임지룡(1996:252)

위 예문에서 언급한 동의어들은 형태적으로 'A-α+A'의 형태를 취하면서 의미적으로도 유사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동의 관계에 있는 이런 단어들은 주어와 목적어 취함, 그리고 의미적 관계에 있어서 선택적인 제약이 있다. 요컨대, 조어론적 요인에 의한 동의어들의 비대칭성은 단어 구조의 유표성과 관련지어 볼 때 형태적인 유표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 a. 수레를 **끌다/이끌다***
b. 옷을 **끌고/이끌고*** 다니지 마라
c. 그는 우리나라를 **이끌고/끌고*** 나아 갈 젊은이다.

이종열(2000)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에 대한 구조적 비대칭성 제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형태론 측면에서 '가다', '오다'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용례는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간에 비대칭성을 보여 줄 수 있다.

(3) a. 전기가 가다/나가다
b. 전기가 오다*/돌아오다

예문(3)의 용례들은 주로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차이에 구조적인 차이점을 보여 줄 수 있다. 한 쌍의 반의어지만 확장 의미에서는 1대1로 대응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반대 의미를 표현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서로 대립하는 항 중에 한쪽이 널리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즉, 대칭적인 분포를 이루지 않고 있다. 어떤 확장 의미는 반의어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단순한 한 관용어로나 연어로 사용하는 의미기능도 존재한다. 아래 예문을 보면 '가다'와 '오다'는 원형의미에서는 반의어지만 확장 의미에서는 반의와 대응 관계가 없고 서로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그 의미기능이 있지만 다른 하나가 그 의미기능이 없는 상황이 있다.

(4) a. 손이 가다{오다*}

b. 때가 가다{오다*}

c. 주름이 가다{오다*}

1.3.2 의미적 비대칭성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간에는 '의미적 비대칭성'(cognitive asymmetry)이 있다. 즉, 원형의미는 확장 의미보다 주의력, 정신적 노력, 처리 시간 등에 있어서 인지적으로 더 단순하다. 그 까닭은 원형의미가 확장 의미보다 지각상으로 인지를 더 현저하기 때문이다. '가다/오다'의 대립쌍도 원형의미에서만 제한받고 다른 확장 의미에서는 반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즉, 의미 사용이 대칭적이지 않고 중화 현상이 발생한다. 김미영&김진수(2019)는 정도 반의어 '있다/없다' 비대칭성을 분석하고 의문문에서 긍정과 부정을 막론하고 양쪽에서 중화가 실현되어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의미 자질에는 [+긍정적 존재], [+부정적 존재], [+중간적 존재]가 있다. 그러나 '없다'라는 의미 자질에는 [+부정적 존재]만 있는 것이다. 이는 의미적 비대칭성을 이룬다. 즉, '있다/없다'라는 원형의미에서 서로 반의어로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확장 의미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의미나 감정을 부여하는 예도 있다.

어휘의 의미는 문법적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필모어(1982)는 '틀 의미론'을 사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틀(frame) 의미론'은 주로 동사를 기준으로 행위자와 대상물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의미론이다. 필모어(1985)는 어휘의 의미란, 경험, 확신, 혹은 관례의 구조화된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틀'은 일종의 해석으로서 언어가 있는 문맥 내에서 한 용어의 위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틀은 언어에 의해 창조될 수도 있고 그 언어에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낚시한다'라는 동사는 주어로 '행위자'(AGENT)가 있고 목적어로 '수동자'(PATIENT)가 있다. 어떤 장소에서 낚시할 때는 동사가 위치형, 어떤 도구로 낚시할 때는 동사가 도구형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새로운 의미 갖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수용하기 위해 문법적 틀이

바뀔 수 있다. 이는 의미를 둘러싼 경험의 구조적 맥락과 관습이 문법적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먹는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먹는 주체에 해당하는 행위자의 역할과 먹는 음식에 해당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먹는다'가 '모욕을 먹는다', '대상을 먹는다', '벌금을 먹는다' 등과 같이 피동적 의미로 확장될 때는 대상(모욕, 대상, 벌금)의 출처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의미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이 바로 문법의 확장이다. 동사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 형태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할 때 기계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법을 배울 수 있다.

어울려 '가다'와 '오다'가 모두 그 의미기능이 있지만, 의미상에서 반의 관계가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아래 용례들은 주로 '가다. 오다'의 확장 의미에서 서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리 변화 의미에서는 '가다'가 심리 변화의 경로, '오다'는 심리 변화의 원인을 강조한다. 또한, 시간 이동 의미에서는 '가다'가 시간의 지속과 사건의 끝남, '오다'는 일을 진행이나 발전하는 시간의 시작을 강조한다. 또한, 보통 현재 단계에서 미래의 단계로 진행할 때는 '가다'가 쓰이고 과거 단계에서 현재 단계로 진행할 때는 '오다'를 쓴다.

(5) a. 전후 사정이 대충 짐작이 간다.

b. 성공은 부단한 노력으로부터 온다.

c. 그 내막은 내년 가면 밝혀지겠지?

d. 정신 과학의 발생은 19세기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건환(1996)

2.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범주화 규정

2.1 이동동사의 정의 및 인지 성분

이동동사에 대한 정의는 크게 통사적 정의와 의미적 정의로 나눌 수 있

다. 통사적인 정의에는 이기동(1997), 한송화(2000.306), 이민우(2002), 남승호(2000.233)가 있고 의미적인 관점에는 전수태(1987.10), 김응모(1989), 홍기선(1995), 임기룡(1998), 채희락(1999), 남승호(2000), 육미란(2008) 등이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Ⅱ-3> 이동동사 정의에 관한 논술

통사적 정의	이기동(1997)	출발점이나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동사. 장소의 이동보다는 이동의 방법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동동사라고 판단했다.
	한송화(2000:306)	이동 자동사란 주어인 행위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움직임이 있는 동사로서 행위주 논항과 이동의 지향점 혹은 기점 논항을 갖는 동사를 말한다.
	이민우(2002)	인지언어학과 결합하여 이동의 정의는 개념화자가 어떤 실체의 위치적 변화를 지각하는 것이고 이동동사는 이동 사건의 필수적인 인지 성분인 경로를 갖고 있는 동사다.
	남승호(2000)	이동동사 부류를 의미론적 기준에 의거하여 [행동주-착점/방향], [행동주-기점], [행동주-경로], [행동주-대상-착점/방향], [행동주-대상-기점], [행동주-대상]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의한다.
의미적 정의	전수태(1987.10)	이동체 전체의 장소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김응모(1989.13)	주체나 객체의 공간적인 위치가 변화되는 것
	홍기선(1995.461)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위치가 결정되거나 변동되는 사건 중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이동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 속에 여러 종류의 장소를 포함하게 되므로 이동동사는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들과 함께 쓰이게 된다.
	임기룡(1998)	'이동'이란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어떤 실체가 위치에 있어서 지각적 변화를 겪는 것.
	채희락(1999.95)	동작 주체의 장소 이동을 핵심의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움직임 동사. 이동동사는 장소 변화를 수반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이며, 이들 이동동사는 기점이나 착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보어로 가지는 특성을 갖는다.
	남승호(2000.233)	어떤 동사가 쓰인 문장이 그 동사의 논항 가운

		데 하나가 위치를 바꾸었음을 함의할 때 그 동사를 이동동사로 정의한다.
	육미란(2008)	이동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이동 대상의 위치가 바뀌었음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동사. 이동의 인지 성분은 '이동 대상, 출발점, 경로, 방향, 도착점, 시간의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이상 논리를 정리하면 이동동사는 개체[행위 주체, 행위 대상], 출발점, 목표점(도착점), 경로, 방향 등 이동 구성 요소로 '위치의 변화'를 하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동사는 '어떤 개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는 이동동사는 크게 상태 이동동사와 방향 이동동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상태 이동동사보다 방향 이동동사는 비교적 동작성이 더 강하다. 또한, 동작 동사 중에서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야말로 이동동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이동동사(locomotion verbs/verbe de mouvement, 이하는 Vmt로 약칭함)는 장소의 변화를 수반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이동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동사는 '가다'와 오다' 밖에 없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바로 대표적인 방향 이동동사인 '가다'와 '오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 공간적 위치변화만으로는 이동 개념을 드러내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추상적인 사물로 표현할 때는 물리적인 이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 범위가 매우 넓고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방금 집에 들어왔다.'와 '중국 음식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다.' 중 '들어오다'의 의미기능이 다르다. 전자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원형의미도 후자는 추상적인 문화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인지 언어학에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이나 공간적인 위치변화만으로 이동동사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무리하기도 한다. 이동동사는 이동체의 물리적 이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가 상당히 넓고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적인 물리 이동이 아닌 상황의 이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인지주의 언어학자인 Talmy(2000a)의 '가상이동(fictive motion)'으로, Langacker (1997)의 '주

6) 전수태. (2009). 국어 이동동사 의미연구.

관적 이동 (subjective motion) ‘으로 지적된다.

인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이동이 아닌 상황을 이동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지주의 언어학자인 Talmy(1996:211)는 가상이동[7](fictive motion)으로 Langacker(1997)는 주관적 이동(subjective motion)으로 다룬다. 가상 이동(fictive motion)이란 행동 대상이 물리적 이동이 아니지만 이동하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 이동(subjective motion)이란 이동체의 실질적 이동에 관한 '객관적 이동'과 반대하여 비 이동체에 대한 개념화자 자신의 이동에 의한 '상대적 이동'과 개념화자 시선의 이동에 의한 '심리적 이동'을 말한다. 즉, 주관적 이동표현에 나타난 언어적 특성은 개념화와 관련된 인지적 특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이러한 표현이 이동의 경험을 개념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지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본 이동동사 유형 연구는 임지룡(1998)과 이종열(1998)이 있다. 임지룡(1998)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객관적 이동과 차별화하려 주관적 이동이라고 정의된다. 실제적인 이동이 아니라 비이동체가 개념화자의 주관적 관점이나 개념에 따라 이동하는 특징이다. 개념화자의 심리적 이동에 따른 주관적 이동표현은 관찰자의 위치나 관찰지점이 고정되어 정지된 상태에서 눈이나 마음으로 파악하게 될 수 있다. 개념화자의 눈이나 마음속에서 이동대상이 인상이니 느낌으로 파악되면 일종의 '가상 이동'이다. 주관적 이동은 대상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이동동사의 일반적인 의미 확장과는 다르다고 보며 의인화는 비인간적 대상물을 구체적 대상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인화에 의한 동사의 사용은 비유의 일종으로 주관적 이동표현과는 구별된다고 본다. 문제점은 주관적 이동을 은유와 차이점이다. 비물리적 상태 상황에 대해 광범위하게 쓰이는 점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이동 개념

7) 가상적 이동과 은유의 차이

가상적 이동	은유
대응하는 현실에 있어서 가상적 이동은 구체적이다.	대응하는 현실에 없어서 은유는 추상적이다.
대응하는 실제가 이동이 없다.	실제 이동에 대응한다.
지각적 인식의 직접적 표현이다.	지각적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직접적 표현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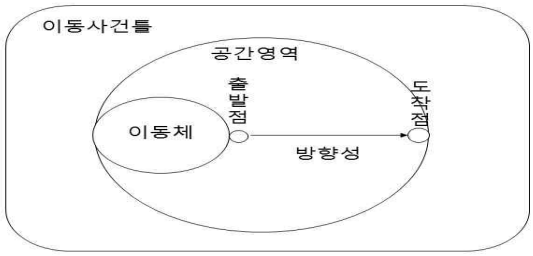
과 언어표현은 세상을 인식한 방법을 드러낸 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 이동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의 의미는 인식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기 때문에 드러나므로 표현 방식은 바로 인식 방법이다.

따라서 이동 동사의 의미적 특징에 대한 세심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동 사건 틀을 구성하는 인지적 성분들이 문장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이동동사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이동동사가 갖는 의미적 특성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가상적 이동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동에 대한 인간의 개념화 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관련 영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탄도체(trajector, tr)라 지시되는 어느 개체가 다른 개체인 지표(landmark, lm)의 안쪽의 어느 위치에서 그 밖의 어느 위치로 벗어난다. 연속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탄도체들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사이에 서로 상응함을 나타낸다. 즉, 그들은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Talmy(2000a,b)와 Langacker(1987,1991)와 같은 인지 언어학자들에 의해 주목받는 이동 개념과 사건 틀을 참조하여 이동 개념과 의미를 인지적으로 규정하고 인지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의미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이동 사건의 구성요소들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동 사건의 인지 요소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기존에 논항으로 설명하던 요소들의 재구성 실현 방식과 인지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Lakoff와 Johnson(1980), Schmid(1993. 165ff), 이민우(2002)에 따르면 이동 사건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은 전체로서 '전경(figure), 배경(ground), 이동(motion), 경로(path), 이동방식(manner)/원인(cause)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사건의 틀(event-frames)'이라고 규정한다. 위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도식화로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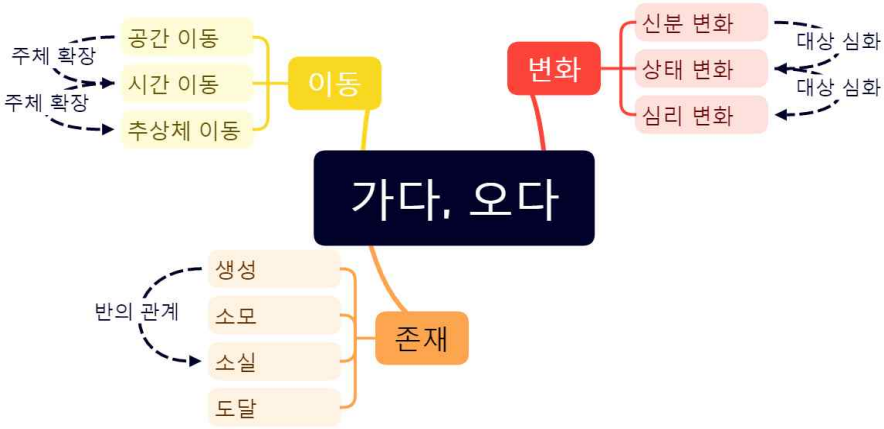
<그림Ⅱ-6> 이동 사건 틀 요소 관계 (이민우, 2002)

구체적으로 보면 이동 사건의 인지 성분은 이동의 전경인 이동체, 이동, 이동의 배경인 공간영역, 출발점, 도착점, 방향성이라는 필수 요소와 양상, 인과 등 부수 요소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장면에서 위에 제시한 인지 성분들이 모두 드러나지 않고 일부만 드러나 이동의 시간, 통로, 방법, 목적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지 성분 및 인지 요소의 비중 변화, 부분 생략에 따라 '이동' 의미 밖에 '공간의 변화', '생성', '소실', '내림', '소모', '도달' 등 인지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동동사의 확장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의미 확장의 양상으로 원형의미를 바탕으로 확장 의미로 계층적으로 변화되는 논의가 많이 나타났다. 이동동사의 의미 확장 분류 양상은 신형숙(1984)과 육미란(2008)[8] 등이 있었다.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시점을 도식화하면 주요 요인은 출발점, 도착점, 경로, 원인이 포함되어 있다.[9] 이동 주체[행위자]의 확장과 이동대상의 심화, 이동 방향(출발점과 도착점), 경로, 원인의 유무 및 이동 과정에서 비중과 분량의 변화에 따라 사전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생활에 언어 사용의 새로운 의미나 다른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즉, 인지적인 확장 의미가 생긴 것이다. 아래 그림을 통해 '가다, 오다'의 인지 의미망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의미 범주 중에서 '가다'와 '오다'가 같이 있지만 미묘한 의미 차이로 인해 비문이 생길 수 있는 의미 유형도 있다. 또한 '소실' 의미와 같이 '가다'가 그 의미 유형이 있지만 '오다'가 없는 의미 범주도 있고 '내림' 의미와 같이 '오다'가 그 의미 가지고 있지만 '가다'가 반의어로서 대응하는 의미가 없는 의미 범주도 같이 제시한다. 의미망의 구성은 먼저 1급 단계는 실제 드러나 있는 이동 동사 인지 성분 및 인지 요소의 변화에 따라 '이동', '변화', '생성', '소실', '내림', '소모', '도달' 등 의미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인지의미의 범주화와 개념화에 따라 '사람/신분', '사물', '시간', '추상체/상태', '심리'로 구체적인 사물부터 추상적인 사물까지, 유기물부터 무생물까지 의미 확장 양상을 더욱 구체화해지고 분류가 더욱 다양화해질 수 있다.

<그림Ⅱ-7>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상위 의미망 구성

---

9) 이동동사 '가다, 오다' 시점 도식화: A(출발점) ---> B(도착점)
(경로)



2.2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 범주화

이 절에서는 현대 한국어 사전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2003)을 기초로 근거하여 '가다'와 '오다'의 본동사로서와 보조동사로서의 인지의미를 범주화로 분류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2.2.1 '가다, 오다' 사전에 기술한 의미

이기동(1977)에 따르면 전통문법과 변형 생성 문법에서도 동사 '가다'와 '오다'의 연구는 거의 없고 이 두 동사가 다루어진 곳은 사전인데, 사전에서도 생성 문법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다음과 같이 풀이로 요약할 수 있다.

가다. 목적지를 향하여 일정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오다. 목적지를 향하여 일정한 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다'와 '오다'의 뜻풀이는 앞에 통사구조 【…에/에게】【 …으로】【 …을】【…이】에 근거하여 의미 항목은 각각 34개와 23개가 있다. '가다'는 이동의 주체[행위자], 이동의 대상과 주체, 이동 방향(출발점과 도착점), 경로, 원인에 따라 사전에 기재되지 않는 실제 생활에 언

어 사용의 새로운 의미나 다른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즉, 확장 의미가 생긴 것이다. 따라서 '가다'의 사전적 의미 34개를 범주화 분류되면 6가지 의미 범주로 크게 귀납될 수 있고 '오다'의 사전적 의미 23개를 범주화 분류되면 5가지 의미 범주로 크게 귀납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보면 '가다' 사전적 의미를 '이동(12개)',[10] '변화(6개)'(신분, 심리, 상태), '소실(6개)', '도달(4개)'(시점, 사물, 위치, 수준), '생성(3개)', '소모(2개)'로 분류할 수 있다. [11] '오다'의 사전적 의미 23개를 범주화 분류되면 5가지 의미 범주로 크게 귀납될 수 있다. 순차적으로 보면 '이동(7개)', '생성(7개)', '도달(6개)', '변화(2개)', '내림(1개)'로 나타난다.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4>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다'의 의미 범주화 분류

통사구조	의미 항목	의미 항목 범주화
【… 에 / 에게 】【 … 으로】【…을】	①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예문: 산에 가다.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간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서울로 가셨다.	이동
	②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운항하거나 다니다 예문: 폭풍우가 치는 날에는 그 섬에 가는 배가 없다. 이 차는 바로 너의 어머니에게 가게 되어 있으니 아무 걱정 하지 마라. 섬으로 가는 비행기.	이동(탈것)
	③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 예문: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다. 공책을 빌리러 친구에게 가다. 어머니는 저녁거리를 사러 시장으로 가셨다.	이동(사람)
	④ 직업이나 학업, 복무 따위로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변화(신분)

10) 육미란(2008)에 근거하여 이동동사의 의미 확장 대상은 사람→동물→탈것→사물→시간→추상으로 분류한다.
11) 노금송(2009), 염철(2014), 차오리핑(2016), 임뭉남(2017) 참조.

	예문: 군대에 가다. 그는 이번에 외국 지사로 가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조카가 벌써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나?	
【…에/에게】【 …으로】	⑤ 직책이나 자리를 옮기다. 예문: 그는 얄밉게도 부장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경쟁 회사에 갔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	변화(신분)
	⑥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누구에게 옮겨진다. 예문: 책상 위에 있던 돈이 어디에 갔지? 철수에게 과자가 하나 더 갔다니까. 그 그림이 누구 수중으로 갔는지는 수수께끼다.	이동(사물)
	⑦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쏠리다. 예문: 날이 더우니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간다. 오늘 만난 남자에게 무척 호감이 간다. 그 사람의 옷차림으로 자꾸 눈길이 간다.	변화(심리)
	⑧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예문: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너에게 신호가 가면 직접 숏을 해. 어떻게 그 친구 집으로 소식이 갔는지 연락이 없던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동(추상)
	⑨ ((‘손해’ 따위의 명사와 함께 쓰여)) 그러한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나다. 예문: 자기에게 손해 가는 장사를 누가 하겠어?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 집안으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생성
【…에】【…을】	⑩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다. 예문: 내일 시사회에 갈 거니? 나는 매년 불우 아동 돕기 단체에서 주최하는 송년 모임을 빠지지 않고 간다.	이동(사람)

【…으로】	⑪ 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다. 예문: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도달
	⑫ 한쪽으로 흘러가다. 예문: 회의가 엉뚱한 쪽으로 간다. 승부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	변화(상태)
	⑬ 동력원으로 하여 작동하다. 예문: 이 차는 전기로만 간다. 증기의 힘으로 가는 기관차는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다.	이동(사물)
	⑭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예문: 액자가 왼쪽으로 좀 간 것 같다.	이동(사물)
【…에】	⑮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다. 예문: 옷에 주름이 가다. 눈가에 잔주름이 가다. 벽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	생성
	⑯ ((‘무리’, ‘축’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건강에 해가 되다. 예문: 몸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삼가시오. 너무 무리하다가는 몸에 축이 간다.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간 몸이 무리가 갈 거야.	생성
	⑰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곳에 이르다. 예문: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이 부분에 가서는 특히 현악기의 선율에 주의해야 한다.	도달
	⑱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다. 예문: 고장 난 기계에 그의 손이 가면 멀쩡해진다. 이 그림에는 붓이 가지 않은 데가 많아. 그의 손이 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	소모

	⑲ (('손', '품' 따위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들다. 예문: 조그만 조각품에는 손이 많이 간다. 농사일에는 품이 많이 간다.	소모
	⑳ 어떤 대상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라지다. 예문: 나는 조금 있다가 갈 거야. 기차는 이미 갔어. 너를 한참 기다리다 방금 갔는데.	소실
	㉑ (('시간' 따위와 함께 쓰여)) 지나거나 흐르다. 예문: 좋은 시절도 다 갔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평생 가야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잡았어.	이동(시간)
	㉒ 기계 따위가 제대로 작동하다. 예문: 싸구려 시계가 잘 간다. 고물 차인데도 별 탈 없이 잘 간다. 시계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동(사물)
	㉓ 외부의 충격이나 영향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가 되다. 예문: 그는 상대 선수의 주먹을 한 방 맞고 완전히 갔다. 술고래가 겨우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완전히 가다니? 첫눈에 가서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소실
	㉔ 전기 따위가 꺼지거나 통하지 않는다. 예문: 전깃불이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소실
	㉕ (완곡하게) 사람이 죽는다. 예문: 젊은 나이에 간 친구. 억울하게 간 넋을 추모했다.	소실
【…이】	㉖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 예문: 바뀐 세상이 실감이 가니?	변화(심리)

	그 설명은 수긍이 간다. 전후 사정이 대충 짐작이 가.	
	㉗ 【…에】 ('…이'나 '…에' 대신에 '중간 정도', '최고' 따위와 같은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가치나 값, 순위 따위를 나타내는 말과 결합하여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 예문: 이 집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5억 원이 간다. 그는 성적이 중간은 간다. 물이 어른 무릎쯤 가는 냇물이라 아이들이 놀기에도 적당하다.	도달
	㉘ (('물', '맛'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원래의 상태를 잃고 상하거나 변질하다. 예문: 생선이 물이 갔다. 콩나물무침이 시큼하게 맛이 갔어.	소실
	㉙ (('때', '얼룩'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 때나 얼룩이 잘 빠지다. 예문: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녹물이 잘 가는 세제가 있을까?	소실
【…을】	㉚ 어떤 경로를 통하여 움직이다. 예문: 길을 가다. 밤길을 가다. 산길을 가다.	이동(사람)
【…에/에게 …을】【 … 으로 …을】	㉛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예문: 가족들과 함께 동물원에 구경을 갔다. 언니가 때릴까 봐 엄마에게 도망을 간다. 저녁을 먹은 후에 우리는 늘 공원으로 산책을 가곤 한다.	이동(사람)
	㉜ 노름이나 내기에서 얼마의 액수를 판돈으로 걸다. 예문: 한 판에 10만 원을 갔다. 남들이 선택하지 않은 쪽으로 큰돈을 가는 것은 질	도달

	가능성이 큰 만큼 따면 큰돈을 만들 수 있다.	
【(…을)】((기간을 나타내는 '며칠' 따위와 함께 쓰여))	㉝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유지되다. 예문: 작심삼일이라고 며칠이나 가겠니?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이 결국 사흘도 못 갔다. 새 신발이 한 달을 못 가다니.	변화(상태)

이어서 사전 의미를 종합하여 이동동사 '오다'의 의미 분류를 도표화로 하면 다음과 같다 .

<표Ⅱ-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오다'의 의미 범주화 분류

통사구조	의미 항목	의미 항목 범주화
【…에/에게】【…으로】【…을】	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 예문: 나에게 오너라. 군에 간 친구가 휴가를 받아 학교에 왔다. 나는 그녀가 우리 동네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사람)
	②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학업 따위를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옮기다. 예문: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왔다. 저희 대학에 온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로 새로 오신 분은 영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동(사람)
【…에/에게】【…으로】	③ 수레, 배, 자동차, 비행기 따위가 말하는 이가 있는 쪽을 향하여 운행하다. 예문: 비가 오는 날에는 이곳에 오는 배편이 없으니 모두 돌아가세요.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연착되었다. 부산으로 오던 기차가 사고가 났다.	이동(탈것)
	④ 물건이나 권리 따위가 자기에게 옮겨지다. 예문: 사과가 나에게 두 개나 더 왔다.	생성

	이 물건이 우리 집으로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다.	
	⑤ 관심이나 눈길 따위가 말하는 사람에게로 쏠리다. 예문: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따가운 시선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뭇시선이 우리가 앉은 자리로 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변화(심리)
	⑥ 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전하여지다 예문: 집에 편지가 왔다. 어머니에게 소포가 왔다. 고향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학교로 왔다.	이동(추상)
	⑦ 전기가 흘러서 불이 켜지거나 몸에 전하여지다. 예문: 전기 기구를 다룰 때는 손에 전기가 올지 모르니 장갑을 꼭 끼어라. 우리 마을로 전기가 온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생성
【…에/에게】	⑧ 운수나 보람, 기회 따위가 말하는 사람 쪽에 나타나다. 예문: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이동(추상)
	⑨ 느낌이나 뜻이 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다. 예문: 얼핏 보니 그에게 감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말에서 따뜻한 느낌이 내게 오는 것을 느꼈다.	생성
	⑩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다. 예문: 이제 네 엄마에게 다 왔으니 그만 울어라. 이제 목적지에 다 왔다. 정상에 다 왔으니 조금만 힘내라.	도달

	⑪ 어떤 대상에 어떤 상태가 이르다. 예문: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도 평화가 왔다.	도달
	⑫ 일정한 목적을 가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 예문: 너 동창회에 올 거니? 내 생일잔치에 오지 않을래?	이동(사람)
	⑬ 건강에 해가 되다. 예문: 몸에 무리가 오는 심한 운동은 삼가십시오.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다리에 충격이 왔다.	생성
	⑭ ('…에' 대신에 '…까지'어서 쓰이기도 한다) 길이나 깊이를 가진 물체가 어떤 정도에 이르거나 닿는다. 예문: 네 살짜리 아이가 내 허리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 수영장 물이 목까지 온다. 치마가 발목까지 온다.	도달(정도)
	⑮ (주로 '와서' 꼴로 쓰여)('…에' 대신에 시간 부사어가 쓰이기도 한다) 말하는 때나 시기에 이르다. 예문: 오늘에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떡하니? 아까까지는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못 가겠다는구나.	도달(시점)
【…으로】	⑯ 물체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다. 예문: 액자가 이쪽으로 좀 오지 않았어요? 선이 우리 쪽으로 더 온 것 같다.	변화
	⑰ 비, 눈, 서리나 추위 따위가 내리거나 닥치다. 예문: 비가 온다.	내림

	벌써 추위가 왔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⑱ 질병이나 졸음 따위의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거나 생기다. 예문: 갑자기 졸음이 왔다. 한번 잠이 오면 그 뒤로는 공부하기가 힘들다. 감기가 오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다.	생성
	⑲ 어떤 때나 계절 따위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다. 예문: 여름이 벌써 왔다. 오는 일요일이 내 생일이다. 새해가 오면 운동을 시작하리라.	도달(시간)
【…에서/에게서】 (‘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한다.)	⑳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다. 예문: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이번 감기는 아무래도 친구에게서 온 것 같다. 이번 우승은 적절한 선수 기용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생성
	㉑ 어떤 현상이 다른 곳에서 전하여지다. 예문: 우동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그의 말투는 그의 부친에게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이상한 버릇은 할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생성
【…을】	㉒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기다. 예문: 어두운 산길을 왔더니 너무 힘들다. 빗길을 오다가 미끄러졌다. 밤길을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도달(위치)
【…에/에게 …을】【 …으로 …을】 (‘…을’	㉓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말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기다. 예문:	이동

성분은 주로 서술성이 있는 명사가 온다.)	남자아이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다. 그녀는 남편을 피해 나에게 도망을 왔다. 내일은 그녀가 부대에 면회를 오는 날이다.	

본 고는 확장 의미를 범주화하고 의미 범주로 크게 귀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다음 '가다' '오다'의 각 의미 범주의 분석 양상과 의미기능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2.2.2 '가다'의 의미 범주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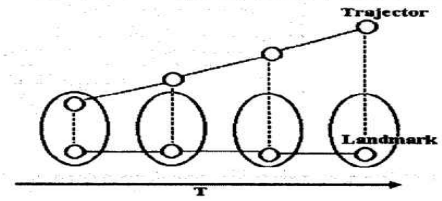
반의어인 '가다'와 '오다'는 다의어로서 확장 의미도 다양하다. 이 절에서는 '가다'와 '오다'의 본동사를 대조하여 서로 대응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간이동]

'가다'의 원형의미는 이동이다. 사전에서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사람이 두 발로 이동하다', '화자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의 이동'으로 정의된다.

Langacker(1991)는 아래 그림과 같이 'go'의 의미 표현 과정을 지시하고 시간은 'go'의 모체 내에 있는 하나의 영역이며 공간은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도체(trajecter=tr)와 지표(landmark=lm)는 대응(correspondence)이 나타나고 탄도체와 지표를 연결하는 굵은 점선은 서술의 관계적 특징을 이루는 드러난 상호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서술의 관계 특징은 지표 영역 내에서 탄도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인지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Ⅱ-8> 동사 '가다'의 모습 (박순옥, 2000)



그러나 박기현(2005)에서는 이동의 의미에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

니라 동물이나 탈것, 사물, 시간, 추상적인 것 등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동의 대상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물, 탈것, 사물, 시간, 추상 사물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말이다. 또한, 이동 주체의 종속 및 대응 관계를 의미망 구조로 도식화 표시하면 박기현(2005)에 따라 '가다'의 '이동' 의미는 동작과 상태,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대상, 동물과 대상, 사람과 동물과 같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6) a.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자. (사람)
b. 호랑이가 숲으로 간다. (동물)
c. 이 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탈것)
d. 책상 위에 있던 돈이 어디에 갔어? (사물)
e. 좋은 시절도 다 갔다. (시간)
f.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추상)

진려봉 (2008:33)

앞에 '가다'의 원형의미를 '화자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의 이동'으로 기술한다. 노금송(2009)에서는 자연계의 이동에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 등에도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람의 이동이 동물과 사물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한다. 예문 (6a)와 (6b) 의 '가다'는 행위자인 사람이나 동물의 단순한 이동이다. (6c)의 '가다'는 '운행하다'라는 의미 갖고 교통수단인 기차가 운행으로 위치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6d)의 '가다'는 타동사로서 사람이 돈을 찾기 때문에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사물의 이동에서 전체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부분이 움직임을 전체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여 환유적인 확장도 있다. '시계가 잘 가다'는 환유 표현의 좋은 예이다. (6e)와 (6f)의 '가다'는 은유로서 시간이나 추상적인 것을 행위자로 이동하는 모양이다.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는 확장 의미도 있다. 즉, 이동 의미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으로부터 시간 흐름, 말이나 소식의 전파까지 은유적인 표현도 포함된다.

[변화]

(7) a. 이번 인사 발령으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
b. 그의 슬픈 표정을 보면 동정심이 간다.

길본일(1996:153)

c.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
d. 콩나물무침이 시큼하게 맛이 갔어.

최순희(2007.56)

'변화' 의미는 '이동' 의미와 가장 달리는 점은 새로운 사물과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구체적인 신분 변화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심리와 감정 변화, 상태와 상황의 변화까지도 포함된다. (7a)의 '가다'는 신분의 변화를 표시한다. 노금송(2009)에서 신분의 개념은 직업이나 직책, 복무, 학업, 혼인 등을 원래 몸담아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뜻이다. '총무과로 가다'는 일자리를 얻어 직업 신분을 변화하게 되고 '군대에 가다'는 '군 복무의 신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집을 가다'와 '장가를 가다'는 '결혼하다'의 뜻으로 원래 총각이나 처녀의 신분에서 유부남과 유부녀의 신분으로 변화하게 되는 의미다. (7b) 의 '가다'는 사람의 심리 감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뜻이다.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하는 의미다. 즉, 관심이 있다나 관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처럼 '신경이 가다.', '호감이 가다.', '눈길이 가다.', '이해가 가다', '실감이 가다.', '수긍이 가다.', '짐작이 가다.' 등 예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7c)와 (7d)의 '가다'는 상황이나 사물의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는 의미다. 이기동(1976)에서는 '맛이 가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음식이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고 상하거나 변질한다는 뜻으로 맛 변화의 의미로 정상상태에서 벗어나면 동사 '가다'가 쓰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생선이 물이 갔다'와 같은 분류로 원래의 상태를 잃고 다른 맛으로 상해지거나 변한다. 상태의 변화란 사물의 분량과 성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승부가 어디로 가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소실]

'가다'의 존재 의미망에서 생성, 소실, 도달, 소모 등 의미를 존재 개념으로 귀납적으로 하지만 본 고에서는 더 명료화 설명하기 위해 세분화를 진행하여 나누면서 제시하고 설명했다.

(8) a. 좋은 시절도 다 갔다. (시간)
b. 젊은 나이에 간 친구. (사람)
c. 전깃불이 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사물)

김명회(1992)

d.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사물)

(표준국어대사전:14)

'가다'의 확장 의미 중에는 사물의 빠지거나 사람의 소실이 있다. 즉, 원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8a) 의 '가다'는 '시간 흐름이 지난다.'를 의미하고 (8b)의 '가다'는 사람의 삶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8c)의 '가다'는 '전기가 나가다/꺼지다'의 뜻으로 (8d)의 '가다'는 '때나 얼룩이 잘 빠진다'는 뜻으로 소실 의미를 해석될 수 있다.

[도달]

(9) a. 이 수영장은 물이 어른의 허리쯤에 간다.
b. 이 집이 보기에는 초라해도 2억 원이 간다.
c.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이기동(1999)

이기동(1999:102)에 따라 '가다'의 의미 확장에 관련된 은유로 '척도는 공간 속의 길이다.'가 있다. 즉, '어느 정도나 어느 시점, 수치, 혹은 어느 수준에 이르다'라는 의미다. 이때의 시간대나 정도, 수치, 혹은 수준을 이동 도식에서 이동 공간의 도착점으로 취급된다. 위의 예문 (9a)와 (9b)의 '가다'는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일정한 위치에 이름이라는 뜻이다. (9c)의 '가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

서 어느 정도나 척도까지 이르다'라는 뜻이다. 이때 '가다'의 의미는 '되다' '도달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생성]

(10) a. 자기에게 손해 가는 장사를 누가 하겠어?
b. 옷에 주름이 가다.
c. 벽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
d. 몸에 무리가 가/오는 운동은 삼가시오.

홍진혁(2009)

'가다'의 확장 의미 중에는 생성과 생김이 있다. 사물의 생성 과정은 변화를 거치면서 은유적인 확장을 통해 변화에서 생성으로 파생될 수 있다. 상태의 변화는 이동의 출발점과 도착점 한계가 분명하지도 않고 방향성도 없다. 그러나 생성은 변화 공간 속에 '없다'라는 출발점부터 '있다'라는 도착점으로 방향성이 있게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a) 는 손해나 피해의 상태가 생기거나 일어나는 뜻이고 (10b)(10c)는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가 생기는 뜻으로 물체의 물리적인 현상의 출현을 말한다. (10d)는 '몸에 축이 가다'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 해가 되거나 해가 생기는 의미로 나타난다. 또한 '가다'가 생성한 것이 흔적이 생길 때 한 점으로부터 하나의 선 모양으로 확산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 모양 제한 가지게 된다. 이종열(2000)에서는 이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경로를 따라 나 있는 모든 흔적을 심리적으로 동시에 점유하며, 하나의 연장된 개체인 금이나 주름처럼 인식한다고 언급한다. 다음과 같이 선 모양이 아닌 경우는 '가다'로 표시하면 비문이다. 아래 예문을 통해 '선' 모양 밖에 다른 모양의 생성은 '가다' 대신 '생기다'로 표시만 가능하다. '생기다'의 의미에서는 이동의 시점(출발점과 도착점), 그리고 방향성이 다 불명확하여서 '오다'가 쓰일 수 없다.

(11) a. 얼굴에 점이 생겼다. (*갔다)
b. 바지에 구멍이 생겼다. (*갔다)

진려봉(2002:49)

[소모]

(12) a. 그의 손이 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
b. 농사일에는 품이 많이 간다.

임뭉남(2017:23)

‘가다’의 마지막 확장 의미는 소모다. 여기서 ‘가다’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다. (12a) 와 (12b) 의 ‘가다’는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드는 의미다. 임뭉남(2017)에 따라 의미를 더 추상화되어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이 많이 들다’의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 ‘많이, 조금’ 등과 같은 정도 부사와 잘 어울린다. 추상적인 연상이지만 손이 원래 있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는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모’의 의미로 쓰이는 ‘가다’는 사용이 관용어가 되어서 ‘오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2.2.3 ‘오다’의 의미 범주화 분석

이동동사 ‘오다’가 이동 사건의 인지 성분과 이동 사건 틀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이동’, ‘생성’, ‘도달’, ‘변화’, ‘내림’ 등 의미 범주로 귀납할 수 있다. ‘가다’와 달리 ‘오다’는 이동의 시점 및 도착점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한 특징이다.

[이동]

이동 의미에서 ‘오다’가 ‘가다’와 달리는 점은 도착점이나 목적지가 꼭 필요한 것이다. 즉, ‘가다’는 이동의 도착지가 아닌 방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오다’는 화자의 시점이 이동의 목적지가 있는 방향에 놓여야 한다. 장소 이동일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사물의 이동까지 화자 측에 놓이게 되면 ‘가다’ 대신에 ‘오다’가 쓰이게 되어야 한다. 즉, 말하는 이가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길 때 '오다'를 쓴다.

이동의 목적, 방향, 장소, 정도, 대상에 따라 '오다'의 공간이동 개념 의미망과 시간 이동 개념 의미망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13) a. 친구가 휴가를 받아 학교에 왔다.
b. 부산으로 오던 기차가 사고가 났다.
c. 너 동창회에 올 거니?
d. 내일은 그녀가 부대에 면회를 오는 날이다.

예문 (13abcd)에서 나오는 ‘학교’, ‘부산’, ‘동창회’, ‘부대’는 장소 이동의 도착점으로 ‘오다’의 사용 환경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가다’와 달리는 점은 이동의 시점과 경로가 더욱 명확하고 명료하다. 따라서 장소 이동 의미에서 ‘오다’는 이동 시점인 도착점을 요구하고 ‘가다’는 이동 시점인 도착점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산책을 왔다’보다는 ‘공원에 산책을 왔다’처럼 시점은 도착점에 놓여 있어야 한다. 즉, ‘가다’와 ‘오다’의 공간이동 의미에 있는 차이점은 ‘가다’와 ‘오다’ 같이 갖추고 있는 ‘이동자’, ‘출발점’ ‘경로’ 등 이동 요소 외에 ‘도착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려봉(2008)에서 ‘가다’와 ‘오다’의 장소 이동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다: 유정물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
오다: 유정물이 한 곳에서 화자가 있는 곳이나 기준이 되는 곳으로 움직인다.

(14) a. 오늘에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다.
b.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떡하니?
c. 여름이 벌써 왔다.
d. 오는 일요일이 내 생일이다.

최인혜(2009:16)

예문(14a)와 (14b) 에서 '오늘에 오다'와 '지금 오다'는 말하는 때나 시기에 이르는 뜻이다. 주로는 곧 이를 때나 시기나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는 시기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모두 문장은 현재나 미래 시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14c) 에서 '여름이 벌써 왔다'라는 현재에 가까운 과거 시제에 발생하는 일이고 (14d) 에서 '오는 일요일'은 가까운 미래에 닥치는 시기에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시간의 도달 의미에서 특별한 어느 시제에 제한이 없고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대에 다 사용할 수 있다.

[변화]

변화 의미에서는 '가다'와 다른 점은 '오다'는 비정상적에서 정상적으로 이르는 상태 변화, 사물의 방향 변화, 신분 변화,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의 변화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15a) 는 물체나 관심이나 눈길을 말하는 사람에게로 변화하는 것이다. (15bc)는 사물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15) a. 언뜻 보니 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b. 액자가 이쪽으로 좀 오지 않았어요?
c. 선이 우리 쪽으로 더 온 것 같다.

길본일(1996)

[도달]

'오다'의 존재 의미에서는 생성, 도달, 내림 등 의미를 포함한다. 본 고에서는 더 명료화 설명하기 위해 세분화를 진행하여 나누면서 제시하고 설명했다.

먼저 '오다'의 세 번째 의미는 도달이다. 도달이란 어떤 곳이나 어떤 대상에, 혹은 어떤 정도, 어떤 상태에 이르는 뜻이다. 즉, 사물이나 시간이 어떤 기준점에 도착하거나 어느 수치나 시기에 이르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건환(1997)에 따라 '어느 곳이나 정도에 이르는'의 의미로 화자의 시선에 따라 이동의 흐름이 동사 '오다'와 부합하고 어울려 수평적 이동 모습이 아닌 수직적 모습에 쓰인 '오다'의 경우이다. 이런 수직적 모습은 자연현상에도 그대로 투사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16a) 에서 '엄마에게 오다'는 엄마 근처에 도착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bcd)에서 '허리에 오다.', '목까지 오다.', '발목까지 오다'는 길이나 크기가 어느 수치나

기준점에 이르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 a. 이제 네 엄마에게 다 왔으니 그만 울어라.
b. 아이가 내 허리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
c. 수영장 물이 목까지 온다.
d.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

이건환(1997:42)

[생성]

이동 동사 ‘오다’의 의미 범주 중에서 생성과 생김이 있다. '오다'의 생성 의미에서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 모두 쓸 수 있다. (17ab)에서 ‘사과가 오다.’, ‘전기가 오다’는 일종의 추상적인 생성이다. ‘사과’, ‘전기’는 원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성 의미로 귀납하면 더욱 적정할 것이다.

(17) a. 사과가 나에게 두 개나 더 왔다.
b. 우리 마을로 전기가 온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임영진(2021:24)

또한, 예문 (18a) 와 (18b) 에서 나오는 '무리가 오다.', '충격이 오다'와 같은 사람의 몸과 건강에 해가 되는 뜻을 표시할 때도 ‘오다’를 쓸 수 있다. 즉, ‘오다’가 생성 의미를 표시할 때 사람의 몸과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생기는 의미가 있다.

(18) a. 몸에 무리가 오는 심한 운동은 삼가십시오.
b. 오랜만에 운동했더니 다리에 충격이 왔다.

최혜경(1985)에서는 '졸림'과 같은 신체 내부의 상태 변화는 제3자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다. 그러나 변화로 인해 나는 몸의 자세나 표정의 변화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예문 (19a) 와 (19b) 에서 '졸음이 오다.', '잠이 오다'와 같은 사람 신체의 질병이나 졸음과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 생길 때

도 '오다'를 쓸 수 있다. (19c) 에서 '감기가 오다'라는 것은 '감기에 걸리다'와 같은 의미로 감기가 사람의 신체에서 나오거나 생긴다는 뜻이다.

(19) a. 졸음이 왔다.
b. 잠이 왔다.
c. 감기가 왔다.

최혜경(1985:75)

'오다'가 유정 명사의 생성 의미를 표시할 때 보통 사람의 어떤 심리 감정과 신체 반응이 생기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위에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20) a.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b. 우동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길본일(1996)

예문 (20a) 와 (20b) 사물의 생성 의미에서 '가다'의 '생성' 의미와 달리는 것은 생성의 원인과 기원, 근원을 더욱 강조한다. 진려봉(2008)에서 '오다'는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부주의에서 오다'는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표시하고 '일본에서 오다'는 우동의 근원을 더욱 강조한다.

[내림]
(21) a.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간다.

'비'와 '눈' 등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리거나 닥치는 의미다. 시점은 언제나 사람이 살아 있는 바닥이나 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가다'가 내림 의미가 없다.

2.2.4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 범주화 비교

[장소 이동]

본동사 '가다'가 이동 의미를 표현할 때 이동의 목적만 윤곽화되고 이동의 경로(출발지와 도착지)는 모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2a) 의 출발지와 도착지를 상정할 수 있어서 시점이 도착지에 놓이면 '오다'가 다음 (22b) 와 같이 쓰이게 되어야 한다.

(22) a. 길을 가다.
b. 영희가 공원에 산책을 {갔, 왔}다.
(23) a. 오늘은 서울로 {가, 오}는 비행기가 있다.
b. 이 시계가 잘 {간, *온}다.
c. 세월이 잘 간다.

김명회(1992)

(23a) 와 같이 이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확장할 때 '오다'는 '가다'와 같이 '운행하다'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23b) 와 같이 '시계가 잘 가다'와 같은 환유 표현 경우에 이동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계가 아니라 부분적인 침이다. 다시 말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환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김명희(1992)에서는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한 계절의 끝남을 '가다'로 보며,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다른 계절이 시작됨을 '오다'로 표현하고 시간 흐름이 수평 이동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와 시간 흐름에 따른 순환 현상에서도 '가다'만 사용할 수 있다. (23c) 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때 '가다'만 사용할 수 있다.

[시간 이동]

예문 (24ab)에서 '가다'는 사람이나 주위 사물이 과거나 현재에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이르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유재복(1991)에서 '가다'는 어떤 시점으로부터 앞으로의 어떤 시간에 이르다'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어떠한 시간에 이르는 뜻을 표현할 때 'ㄴ다/ㄹ 것이다'와 '았/었다'등 종결 어미와 연결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일의 진행이나 발전

은 현재 단계에서 미래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면 ‘가다’로 쓴다. 또한, 시간의 도달 밖에 (24cd)에서 ‘중간에 가다.’, ‘ 끝에 가다’와 같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어느 부분에 도달하거나 이르다는 의미도 있다. (24e) 의 경우 '가다'는 사람이 죽는 뜻도 표현할 수 있다.

(24) a.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b.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간다/갈 것이다.}
c. 중간 부분에 가서는 주의해야 한다.
d. 끝에 가서 더욱 노력하시오.
e. 그는 말년에 갔다.

진려봉(2008:44)

유재복(1991)에서 ‘오다’는 사람이나 사건이 과거로부터 기준점이 되는 시간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다. 기준점이 되는 시점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다. 출발점은 과거든 현재든 시점에 이르는 뜻을 나타낼 때 주로 ‘와서’로 쓰인다. 예를 들면, (25ab) 중에 있는 ‘오늘 와서’, ‘19세기 와서’라는 시제와 상관없이 어떤 시점에 이르는 뜻이다. (25cd) 중에 있는 ‘오다’는 ‘가다’와 같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어느 부분에 도달하거나 이르다는 의미를 한다. 단, 일의 진행이나 발전은 과거 단계에서 현재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면 ‘오다’로 쓸 수 있다.

(25) a. 오늘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다.
b. 19세기에 와서야 과학 기술이 발전되었다.
c. 이 부분에 와서는 자주 틀린다.
d. 끝에 와서 더 힘드네요.

최인혜(2009:16)

또한, 시간 이동 의미에서 ‘가다’는 상태나 행동의 지속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대응하는 ‘오다’가 이런 의미가 없다. 즉, 일정할 때 어떠한 상태가 지속하는 뜻이다. 이기동(1999:102)에서 ‘가다’의 의미 확장에 관련된 은유로 ‘상태의 계속은 공간 속의 이동이다.’를 제시하였다. 이동의 주체가 물

건이면 그 물건이 쓸 수 있는 상태가 얼마 시간을 더 지속할 수 있는 뜻으로 이해한다. 지속 의미에서 '오다'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오다' 원형의 미에서 '도착점'이 필수 요소로 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지속 의미 나타날 때 도착점이 존재하지 않아서 '오다'를 쓸 수 없는 것이다.

(26) a. 그 회담이 오래갔다.
b. 이 건전지(신발/양말)는 오래갔다.
c. 이 운동화는 두 달을 더 가겠다.
d. 감기가 오래간다.

[추상적 사물 이동]

(27) a.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화로 가는 데에 많은 피를 흘렸다.
b. 민주화로 오는 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c. 우동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d. 우동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간 말이다.

조문우(2003:21)

(27) 에서 나오는 '가다'와 '오다'는 추상적인 이동 의미다. 추상적인 이동 의미에서 '가다'는 이동의 경로와 과정에 중점을 두고 '오다'는 이동의 시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조문우(2003)에서는 '민주화'와 '비민주화'는 두 개 추상적인 이동 공간을 제시하며 '가다'는 다른 나라에서 비민주화에서 민주화로, 즉, 한 사회 형태에서 다른 사회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투쟁을 많이 하는 것을 표현하고 '오다'는 화자의 시점으로 도착점인 '민주화'인 시점에 놓이고 민주화에 도달하거나 이르는 의미를 표현한다. 또한 (27c) 에서 화자의 시점은 출발점인 '일본'에 놓여서 '오다'가 쓰이게 된다. (27d) 에서 우동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이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출발점을 떠나 도착점인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어서 '가다'가 쓰이게 된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다'는 추상적인 이동 과정과 경로를 표현하는데 '오다'는 어떤 시점에 놓이고 그 기초에서 출발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표현한다.

[상태 변화]

(28) a. 입맛이 {갔다, *왔다, 돌아왔다}
b. 김치 맛이 {갔다, *왔다, 돌아왔다}

최순희(2007:56)

상태 변화의 의미에서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기준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정상상태이고 또 하나는 바라는 상태이다. 정상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 가진 '가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오다'와 결합할 수 없다. 즉,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변화할 때 '가다'를 쓰고 비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변화할 때 '오다' 대신에 '돌아오다'를 쓴다. 사람이나 사물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전환될 때 '오다'가 쓰이면 비문이 되고 '돌아오다'로 써야 한다. [12)]

(29) a. 겨우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완전히 갔다니.
b. 첫눈에 가서 모르는 여자에게 편지를 썼다고?
c. 이제야 제정신이 {*왔, 돌아왔}다.
d. 환자의 정신이 {*왔, 돌아왔}다.

류재복(1992:54)

[신분 변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다, 오다'의 신분의 변화 의미는 어느 직업이나 어느 복무, 학업 등을 위해서 원래의 일자리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분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또한 (30bc)에서 '결혼한다.'라는 뜻으로 원래 총각이나 처녀의 신분에서 유부남, 유부녀의 신분으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분 변화의 의미에서 '가다'와 결합할 수도 있고 '오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아래 예문 대신 '회장으로 오게 된다.', '시집을 오다.', '장가를 오다'는 비문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다만 '오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간주할 때 쓰는 표현이고 '가다'는 구체적인 제한이

12) 이기동(1988) 참조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30) a. 이번 인사 변동으로 회장으로 가게 되었다.
b. 시집을 가다.
c. 장가를 가다.
d. 시집을 오다.
e. 장가를 오다.

염철(2014:66)

[심리 변화]

사고능력, 감정, 마음이 한곳으로 쏠리는 경우, '시선', '눈길', '눈'과 같은 사람의 정신과 주의력을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눈'을 통해 볼 수 있다. 시점이나 주의력이 집중되는 방향에 놓이면 '오다'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감정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쏠리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심리 표현은 '가다'만 쓰이고, '오다'가 쓰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용의 고정화라고 생각될 수 있다. '오다'가 쓰일 수 없지만 '오가다'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이 있다.

(31) 시선이 {가, 오}다, 눈길이 가다, 관심이 가다, 정이 가다, 호감이 가다, 동정이 가다, 마음이 가다, 욕심이 가다, 믿음이 가다, 신뢰가 가다, 의심이 가다.
(32) 정이 오가다, 마음이 오가다, 믿음이 오가다, 신뢰가 오가다.

'가다'는 사람의 감정이나 주의력이 외부의 사람이니 사물에 쏠리거나 외부에 어떤 일에 대해 사고가 이루어지는 뜻이다. '오다'는 사람이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 일에 대한 감정이나 주의력이 생길 때 쓴다.

길본일(1996)에서 '가다'와 '오다'가 나타내는 심리 표현과 관련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가다: 심리적인 것이 외부에 어떤 대상을 향해 나가거나 사람의 마음이나 머릿속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하면 쓴다.
오다: 어떤 것이 외부에서 사람의 마음이나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나 없던 것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이란 경우에 쓴다.

즉, '가다'는 심리 변화를 표현할 때 원래 있는 느낌이나 주의력, 혹은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거나 어느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강조한다. '오다'는 심리 변화를 표현할 때 원래 없던 느낌이나 주의력, 혹은 마음을 생기는 것이 강조한다.

(33) a. 언뜻 보니 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b.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음악이다.
c. 이 그림을 보고도 아무 느낌도 안 오니?

길본일(1996)

또한 '오다'는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는 의미'도 포함된다. '사고' '성공'이 실현되는 원인은 '부주의' '노력'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다'는 심리적인 표현을 생기거나 생기는 이유를 강조할 때 '가다'의 쓰임이 부적절하다.

(34) a.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b. 성공은 부단한 노력으로부터 온다.

[소실]

(35) a. 전가가 갑자기 갔다.
b.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c. 젊은 나이에 간 친구다.

(표준국어대사전:의미 6-7)

소실 의미란 원래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5a) 에서 '전기가 가다'는 '전기가 나가다/꺼지다'의 뜻으로 '가다'의 소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대응하여 '전기가 오다'는 구체적인 출발점 시점이 있어서 생성의 의미가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가 오다'는 '전기가 켜지다/들어오다'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5b) 에서 ‘때가 가다’는 ‘때나 얼룩이 잘 빠진다.’라는 뜻으로 원해 영역에서 빠지거나 소실로 해석할 수 있다. (35c) 에서는 사람이나 유생물이 사라지거나 죽이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단, ‘가다’와 대응하는 ‘오다’는 소실 의미가 없다.

[생성]

(36) a. 한중 우호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이었다.
b. 벽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
c. 얼굴에 주름이 갔다.
d. 옷에 주름이 갔다.

(표준국어대사전:의미5)

생성 의미란 사물의 생성 과정과 변화를 거치면서 원래 없고 새로운 사물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뜻이다. ‘가다’와 ‘오다’는 모두 생성 의미 가지고 있는데 생성의 대상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다. 예문 (36) 에서 ‘금이 가다’는 한 시점이 아니라 ‘금’, ‘주름’, ‘흠집’으로 확산해 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개입이 없고 객관적이고 윤곽화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36) 에서 ‘가다’가 생성 의미에서 생성한 것이 ‘선’ 모양이라는 제한이 있다. 다음(37)과 같이 점이나 구멍은 ‘선’ 모양이 아닌 경우 ‘생김’이 ‘가다’로 표현될 수 없다. ‘가다’ 대신 ‘오다’ 아니고 ‘생기다’를 사용해야 한다.

(37) a. 얼굴에 점이 {*갔다, 생겼다}.
b. 바지에 구멍이 {*갔다, 생겼다}.

(38) a. 자기에게 손해 가는 장사를 누가 하겠어?
b. 몸에 무리가 가/오는 운동은 삼가시오.
c. 그는 잠이 와서 책을 덮었다.

조문우(2003:18)

또한, 생성 의미에서 '가다'는 어떤 감정이나 사물이 나타나거나 생기는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오다'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과 같은 주관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오다'의 생성 의미는 심리 변화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예문 (38) 에서 '손해가 가다.', '무리가 가다'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강조할 때 주로 '가다'를 사용한다. '잠이 오다', '무리가 오다'는 자신한테 접근하는 것으로 신체 내부의 상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도달]

차오리핑(2016)에서 '가다'와 '오다'의 도달 의미는 어느 수치나 높이나 크기, 혹은 척도에 이르거나 실현되는 의미가 있지만 '가다'와 '오다'는 모두 생성 의미 가지고 있는데 도달의 척도나 이동 방향과 위치에 대해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도달의 방향은 (39ab)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오다'를 자주 쓰이고 도달의 방향은 (39d) 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가다'를 자주 쓰인다. 또한, 예문 (39c) 에서 도달의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확산하거나 나갈 때도 '오다'를 쓴다.

(39) a. 아이가 내 허리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
b. 눈이 종아리까지 온다.
c. 소매가 손등까지 온다.
d. 치마가 종아리까지 간다.

차오리핑(2016:43)

[소모]

(40) a. 농사일에 품이 많이 간다.
b. 그의 손이 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

소모는 '가다'만 가지고 있는 확장 의미다. 소모란 사람의 정신, 힘, 사물, 물자 따위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뜻이다. 여기서 '가다'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된다. (40a) 와 (40b) 의 '가다'는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드는 의미다. 즉, 의미를 더 추상화되어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이 많이 들다’의 의미가 된다. 이런 상황에 ‘많이, 조금’ 등과 같은 정도 부사와 잘 어울려서 정도 부사와 자주 같이 나타난다. 추상적인 연상이지만 손이 원래 있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는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모’의 의미로 쓰이는 ‘가다’는 사용이 관용어 되어서 ‘오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내림]

(41) a.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간다.
b. 추위가 많이 와서 옷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내림이란 ‘비’와 ‘눈’ ‘추위’ 등 높은 곳에서(대기층) 낮은 곳으로(땅) 내리거나 닥치는 확장 의미다. 시점은 언제나 사람이 살아 있는 바닥이나 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가다’가 내림 의미가 없다.

[요약]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오다' 이동 사건의 인지 성분과 이동 사건 틀 요소 간의 관계에 따라 11개 의미 유형이 개념화되고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가다'와 '오다'가 문맥과 시점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6> '가다, 오다' 의미 유형 비고

의미 유형	'가다'의 구체적 의미 특징	'오다'의 구체적 의미 특징
1. 장소 이동	O 청자를 중심으로	O 발화자를 중심으로
2. 시간 이동	O 끝남 '지나간다.'	O 시작 '다가온다.'
	O 시간의 지속	X
3. 추상적 이동	O 청자를 중심으로	O 발화자를 중심으로
4. 상태 변화	O 정상적에서 비정상적으로	X (비정상적에서 정상적으로->돌아오다)
5. 신분 변화	O 청자를 중심으로	O 발화자를 중심으로

6. 심리 변화	O 원래 있던 심리 변화를 다른 쪽으로 바꿈	O 원래 없던 주관적인 심리 변화가 생김. 심리 변화를 생기는 원인
7. 소실	O 원래 있던 사물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됨	X
8. 생성	O 원래 없던 객관적인 '선' 모양 사물이 새롭게 생김	X
9. 도달	O 위에서 아래로	O 아래에서 위로
10. 소모	O 사람의 정신, 힘, 사물, 물자 따위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됨	X
11. 내림	X	O ‘비’와 ‘눈’ ‘추위’ 등 높은 곳에서(대기층) 낮은 곳으로(땅) 내리거나 닥침

3. 한·중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 대조분석

중국어에서 '가다'와 '오다'의 이동 의미에 대응할 수 있는 동사는 ‘去, 来’다. 염철(2014)에서는 '가다, 오다'와 ‘去, 来’는 한중 양 언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동동사로서 방향성 의미 가지고 있는 동시에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많은 복합동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장에서는 앞 절에서 귀납한 11가지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대조 언어의 관점으로 중국어 ‘去, 来’와 문맥 의미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1 ‘가다’와 ‘去’의 의미 대조 양상

[장소 이동]

장소 이동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 등의 이동이 출발점, 도착점, 경로, 방향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가다/오다'와 사전에서 대응하는 중국어 원형의미가 '去/来'인데 문장의 명사 자질이거나 조사, 어미 활용 등에 의해 확장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이동이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의 뜻으로 도착점이나 목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말이다. 구체적인 사물과 사람 등 유기체 생물의 이동은 '가다/오다'와 '去/来'의 원형의미로

나타내고 있으면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확장 의미도 가져있다. 그리고 (45a) 에서 나오는 '가다'는 '걷다/걸어가다'의 뜻으로 '走''去'로 사용한다. '기계의 작동', '시간이 잘 가다'의 의미 가진 '가다'는 중국어에서도 '走'에 대응하는 것이다.

(42) a. 길을 가다.
走路
b. 영희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英熙去公园
(43) a. 오늘은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今天有去首尔的飞机
b. 이 시계가 잘 간다.
这块表走得好

[시간 이동]

'가다'와 '走'는 시간이나 계절 표현과 결합하여 어떤 시기에 '소실' 했음을 나타낸다. (44) 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봄'에서 '가다'와 '走'는 '소실'의 의미로 나타낸다.

(44) a. 벌써 봄이 갔다.
春天已经走了

또한, 시간 범위의 끝임을 나타낼 때 시제가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에 따라 '가다'와 '오다' 따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가다'는 미래나 향후의 어떤 시간이나 시기에 도달할 때 사용한다. (45) 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점을 상관없이 모두 '到'(도달하다)라는 단어만 사용한다.

(45) a.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检查结果到明天才出
b. 중간 부분에 가서는 주의해야 한다.
到中间部分要注意

또한, 시간 이동 의미에서 ‘가다’는 상태나 행동의 지속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대응하는 ‘오다’가 이런 의미가 없다. 즉,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떠한 상태를 지속하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가다'를 대응하는 '走、去’는 이런 의미가 없어서 대신 '持续'(지속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46) a. 그 회담이 오래갔다.
这次会谈**持续**了很长时间
b. 이 건전지는 오래갔다.
这种电池已经**持续**了很长时间
c. 이 운동화는 두 달을 더 가겠다.
这双运动鞋还要再**穿**两个月
d. 감기가 오래간다.
感冒**持续**时间长

[추상적 사물 이동]

추상적 이동 의미에서도 한국어 '가다'가 중국어 '去'와 완전히 1대1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47ab)에서 문장 주체와 말하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 '민주화로 가다/오다'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어에서는 모두 '走向'(나아가다)로 써야 하는 2대1 현상이 있다.

(47) a.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화로 가는 데에 많은 피를 흘렸다.
其他国家在**走向**民主化方面也付出了很多心
b. ‘우동’은 일본에서 영국으로 간 말이다.
乌冬从日本**走向**韩国

[상태 변화]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가다’로 사용한다. '가다'가 대응하는 '去’가 상태 변화 의미가 전혀 없어서 다른 언어를 통해 의미를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면, (48) 에서 '입맛/김치가 가다.' 중의 '가다'는 '变'(변화하다)로 번역해야 적절하고 '정신이 가다.' 중의 '가다'는 '晕'(어찔

어찔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48) a. 입맛이 갔다.
变味儿
b. 김치 맛이 갔다.
泡菜变味了
c. 겨우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정신이 완전히 갔다니.
才喝了几杯烧酒就晕了

[신분 변화]

신분의 변화 의미에서 중국어와 대응하는 의미도 차이를 존재한다. 예를 들면, (49a) '회장으로 가다'와 같이 어떤 직무나 직위, 혹은 어떤 사회 계급으로 변화하는 의미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가다'와 대응하는 '去'와 달리 '升职'(승직하다)로 표현한다. 또한, 한국어에서 이동동사 '가다'는 '시집'와 '장가'라는 단어와 같이 결합하여 결혼하는 의미의 관용적인 사용 방법이 있다. (49bc)와 같이 미혼에서 기혼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실현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다'는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중화되어 없어진 상태이기에 중국어 '去'가 대응하여 쓸 수 없다. 결혼하는 의미에 중국어에서는 '장가를 가다'에 '娶妻，娶媳妇，娶老婆，结婚', '시집을 가다'에 '出嫁, 成家'로 대응된다.

(49) a. 이번 인사 변동으로 회장으로 가게 되었다.
这次人事变动升职成为了会长

b. 시집을 가다.
出嫁，成家
c. 장가를 가다.
娶妻，结婚

[심리 변화]

한국어 '가다'는 신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쓰여서 '관심'이라는 확장 의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문맥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로 대응하고 있다. (50) 에서 사람의 심리 변화와 감정 변화를 표현할 때 '눈길이 가다.', '시선이 오다'와 같은 이동이나 도달 은유를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심리 변화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두 '产生', '有'와 같이 '생기다'의 문맥 의미에서만 쓴다.

(50) 시선이 가다, 눈길이 가다, 관심이 가다, 정이 가다, 호감이 가다, 동정이 가다, 마음이 가다, 욕심이 가다, 믿음이 가다, 신뢰가 가다, 의심이 가다.

产生对视，产生关心，产生感情，产生好感，产生同情，产生心，产生贪欲，产生信任，产生怀疑

[소실]

(51) a. 전가가 갑자기 갔다.

停电

b.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这个肥皂很去污

c. 젊은 나이에 간 친구다.

早年去世的朋友

소실 의미란 때, 얼룩 따위의 말과 함께 쓰여서 원래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빠진다.'나 '없어지다'의 의미로 중국어 '去'에 대응할 수 있다. 그 외에도 '停', '除'도 '나가다', 제거하는 의미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나 '때'와 결합할 때 쓰일 수 있다. 그 이외 '去除', '去掉' 등 보조동사도 자주 쓰인다. 또한, 사람과 결합하여 '사람이 죽는다'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중국어는 '去世', '离世'(세상을 떠난다)를 자주 쓴다.

[생성]

(52) a. 한중 우호 관계에 금이 가기 때문이었다.
中韩友好关系出现裂缝
b. 얼굴에 주름이 갔다.
脸上长皱纹

생성 의미란 금, 줄, 주름살, 흠집 따위의 사물 생성 과정과 변화를 거치면서 원래 없고 새로운 사물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뜻이다. (52) 에서 '주름', '금'의 입장에서 '생기다'의 의미가 나타난다. 이 경우에 중국어 생기거나 나타나는 의미가 가진 ‘长’, ‘出现’, ‘产生’ 등과 대응하고 있다. 또한 (53) 와 같이 ‘선’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의 생성은 '가다'를 대신 '생기다'를 쓰고 중국어에서는 여전히 나타나는 의미인 ‘长’, '破'로 대응한다.

(53) a. 얼굴에 점이 {*갔다, 생겼다}.
脸上长了个痣
b. 바지에 구멍이 {*갔다, 생겼다}.
裤子破了洞

[도달]

일정한 곳에 이르는 의미를 지닌 '가다'는 중국어 '去'에 대응하지 않고 '到'에 대응하고 있다. '到'는 어떤 시점이나 중점에 이르다는 의미가 가져있으며 '到+어느 수치/부위/크기'의 구조로 도달의 의미를 표시한다. 이와 동시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정도에 이르는 의미를 표현할 때도 중국어에 '到(도달하다)'로 표현한다.

(54) a. 아이가 내 허리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
小孩个子已经到我腰那么高了
b. 치마가 종아리까지 간다.
裙子已经到小腿了

[소모]

(55) a. 농사일에 품이 많이 간다.
干农活很费劲
b. 그의 손이 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
事情到他手里就解决了
c. 책 등 잔손이 많이 가는 물건은 그냥 쏟아놓고 갔다.
像书这种很费事的东西干脆都倒出来

'가다'는 '손', '품' 따위와 결합하여 힘이나 수고, 노동 등 뜻이 있으면서 '손이 가다'와 같은 힘을 쓰거나 노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수고를 많이 하는 의미로서 이런 경우는 '가다'를 대응하는 '去'를 쓰지 않고 중국어 '花费'(필요하다/쓰다)와 대응한다.

3.2 '오다'와 '来'의 의미 대조 양상

[장소 이동]

장소 이동이란 원형의미에서 '오다'는 '한 곳에서 화자 중심의 곳으로 이동하다'로서 도달점이나 이동의 목표 방향을 화자가 소속한 위치로 이미 정한다. (56) 에서 '공원 왔다', '서울로 오다'는 발화하는 사람이 '공원에 있음' ,'서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화자의 위치로 이동할 때는 '오다'를 사용한다.

(56) a. 영희가 공원에 산책을 왔다.
英熙来公园
b. 오늘은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있다.
今天有来首尔的飞机

[시간 이동]

(57) a. 벌써 겨울이 오고 있다.
冬天已经来了

'오다'와 '来'는 시간이나 계절 표현과 결합하여 어떤 시기에 '도달' 했음을 나타낸다. (57) 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겨울'에서 '오다'와 '来'는 그러한 시기가 화자에 다가와 '도달'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가다, 오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지만, 중국어 '走/来'는 '사계절, 달, 날' 등 시간에 따라 용법이 국한된다. 예를 들면, (58) 에서 요일, 구체적 일자 시간과 시기를 표현할 때 '走/来' 말고 '到来'(다가온다) 와 '过去'(지나간다)를 써야 한다.

(58) a. 오는 일요일 – 지난 일요일
即将**到来**的周日 已经**过去**的周日
b. 오는 20일 – 지나간 20일
即将**到来**的20号 已经**过去**的20号
c. 오는 여름 방학 - 지난 여름 방학
即将**到来**的暑假 已经**过去**的暑假

또한, 시간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거나 일의 진행이나 발전은 과거 단계에서 현재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면 '오다'로 쓸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시제와 시점을 상관없이 모두 '到'(도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59) a. 오늘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다.
到今天才接到通知说计划取消了
b. 19세기에 와서야 과학 기술이 발전되었다.
到十九世纪科技才发展起来

[추상적 사물 이동]

(60) a. 민주화로 오는 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在**走向**民主化的路上，很多人流血了。
b. 우동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乌冬**来自**日本

추상적 이동 의미에서도 한국어 '오다'가 중국어 '来'와 완전히 1대1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60) 에서 '일본에서 오다.' 중의 '오다'가 기원과 시작점을 표현하는 뜻으로 대응하여 '来自'(나온다)를 쓸 수 있다. '민주화로 오다' 중에 '오다'가 경로의 의미로 '去'를 쓸 수 없고 '走向'로 사용해야 한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의미에서 화자의 시점에 중점을 두고 한 상태에만 집중적으로 놓인다면 '오다'가 아닌 '돌아오다'가 쓰이게 된다. '오다'가 대응하는 '来'가 상태 변화 의미가 전혀 없어서 다른 언어를 통해 의미를 표현해야 한다. (61) 에서 '입맛이 돌아오다', '맛이 돌아오다' 중의 '돌아오다'는 '상하다'의 뜻으로 '变'(변한다)로 번역해야 적절하고 (61) 에서 '정신이 돌아오다.' 중의 '돌아오다'도 '来'로 쓸 수 없고 '有'(있다)로 써야 한다.

(61) a. 입맛이 돌아왔다.
变味儿
b. 김치 맛이 돌아왔다.
泡菜变味了
c.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다.
到现在才有精神
d. 환자의 정신이 돌아왔다.
患者有精神了

[신분 변화]

신분의 변화 의미에서 중국어와 대응하는 의미도 차이를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이동동사 '오다'는 '시집'와 '장가'라는 단어와 같이 결합하여 결혼하는 의미의 관용적인 사용 방법이 있다. 미혼에서 기혼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실현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오다'는 어떤 장소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중화되어 없어진 상태이기에 중국어 '来'가 대응하여 쓸 수 없다. 결혼하는 의미에 중국어에서는 '장가를 오다'는 '娶妻, 娶媳妇, 娶老婆', '시집을 오다'는 '出嫁, 成家'로 대응된다.

(62) a. 시집을 오다.

出嫁，成家

b. 장가를 오다.

娶妻，结婚

[심리 변화]

(63) 와 같이 '감'이나 '느낌'과 같은 심리적인 신체 감각에 '오다'가 자주 쓰인다. 이런 경우에 '오다'는 감각이라는 사물이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 신체에 이동하여 왔다는 식으로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는 '발생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감각과 같은 것이 날 때 '来'로 표현하지 않는다. '来'를 사용하지 않고 존재하는 의미에서 발생하는 파생된 의미 가진 '有'(있다), '感到'(느낀다), '产生'(나타난다) 와 같은 동사를 많이 사용한다.

(63) a. 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好像有感觉了

b.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음악이다.

听着让人感到感动的音乐

c. 이 그림을 보고도 아무 느낌도 안 오니?

看着这个人不会产生任何感觉吗？

d.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事故是由于不注意产生的

[도달]

도달의 의미에서는 한국어 '가다, 오다'가 구체적인 방향성(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에 따라 사용이 다르지만, 앞에 '가다'의 대응어와 같이 '오다'도 중국어에서 방향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 '到'(도달하다)를 사용하는 어휘 규칙이 있다.

(64) a. 눈이 종아리까지 온다.

雪已经到小腿了

b. 소매가 손등까지 온다.

袖子已经到手背那么长了

[내림]

(65) a.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간다.

无论下雨还是下雪每天都按时到学校

b. 추위가 많이 와서 옷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寒气降临，衣服要穿得暖和一点

내림이란 의미에서 '가다'는 없지만 '오다'가 있다. 중국어에서 '비/눈 오다'와 대응하는 동사는 '来'가 아니고 '下'(내리다)이다. 또한 '추위가 오다'도 '来'가 아니 '下'과 비슷한 의미 가지고 있는 단어 '降临'(내리다)를 많이 사용한다.

원형의미와 대응하는 한국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去/来'의 대응 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한다. 사람과 사물의 이동 의미 제외하면 다른 의미 분류에 '去/来'와 대응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모국어와 목적어 간의 의미 차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추측과 분석을 바탕으로 Ⅲ장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가다/오다'의 이해 양상 분석을 통해 어휘 이해도와 언어 간의 의미 차이점 관계를 측정하려고 한다.

<표Ⅱ-7> 한국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去/来' 의미 대응 차이

의미 분류	가다	오다	去	来
사람과 사물 이동	가다	오다	去 가다	来 오다
시간 이동	가다	오다	过去 지나가다	到来다가오다
추상체 이동	가다	오다	走向 나아가다	来自 오다
상태 변화	가다	돌아오다	变 변화하다	有 있다
신분 변화	가다	오다	嫁 시집가다	娶 장가가다
심리 변화	가다	오다	产生,有 생기다	产生,有 생기

				다
소실	가다	x	停,去 나가다 제거하다	x
생성	가다	오다	产生, 长 생기다	产生, 长 생기다
도달	가다	오다	到 도달하다	到 도달하다
소모	가다	x	费 필요하다, 쓰다	x
내림	x	오다	x	下 내리다

4. 이동동사 '가다, 오다' 교육 실태

4.1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가다'와 '오다' 의미 기술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교재 분석을 시행했다. 검토할 교재는 국내외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 ≪한국어 1-6≫, 연세대 ≪한국어 1-6≫, 서강대 ≪서강 한국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재에서 나타난 '가다, 오다'에 대한 의미 기술이 무엇인지를 다음 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표Ⅱ-8을 보면 '가다, 오다'의 의미 기술은 대부분 이동이라는 원형의미만 제시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확장 의미에 관한 기술이 아예 없는 문제점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Ⅱ-8>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와 '오다'에 대한 의미 기술

교재	가다	오다
서울대 ≪한국어 (1)≫ 제5과	갑니다: to go, 가십니까?. Are you going? 표현: N은/는 N에 갑니다/가십니까? 가지 않습니다	오다: to come. 표현. N은/는 N에 옵니다/옵니까?
연세대 ≪한국어 (1)≫ 제1과	-	來
≪서강 한국어 1B≫ 제2과	-	to come

본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 기술에 대해 교재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먼저 본동사는 교제에서 주로 '이동' '움직인다.'라는 원형의미만 제시하고 다른 확장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볼 수 있다. 대부분 원형의미만 제시하고 확장 의미에 대한 제시와 설명이 따로 없고 의미 제시가 불완전하다. 즉,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가다, 오다'의 의미 중 일부만 제공하고 다의어의 모든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주로 초급 단계 학습자 대상이고 한국어 문장과 영어 혹은 제2 언어 번역 문장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방안이 비교적 단순하다. 교재에서 나오는 교습 방안이 부족하고 활용할 만한 어휘 연습 항목이 거의 없다는 한계점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교습 방법은 초급 단계만 제한하고 인지적 의미 분류를 통한 '가다, 오다'에 대한 교육 방안이 아직 드물다.

4.2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가다'와 '오다' 제시 상황

이어서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 오다’ 나타나는 문장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할 교재는 국내외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대 ≪한국어 1-6≫, 연세대 ≪한국어 1-6≫, 고려대≪재미있는 한국어 1-5≫, 선문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가다, 오다'의 초•중•고급 전체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 분석을 했다. 한국어 교재에서 초급일 뿐만 아니라 중•고급에서도 ‘가다, 오다’와 관련된 예문이나 어휘 표현이 보일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

<표Ⅱ-9>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의 의미 제시 상황

교재	제시권-제시과	구성편/쪽수	예문	해당 의미
서울대	1-5	본문/46	저는 학교에 갑니다.	장소 이동
	1-7	본문/59	학교에 갑니다.	장소 이동
	1-18	본문/140	그럼 오늘 야구 구경 갈까요?	장소 이동
	2-7	본문/41	조금 더 가면 신발 가게들이 있어요.	장소 이동

	3-13	연습문제/100	날이 갈수록.....	시간 이동
	3-16	본문/118	군대도 갔다 와야 하고 취직도 해야 하니까요.	장소 이동
고려대	1-6	기본문형/19	가다-갑니다	장소 이동
	1-12	본문/91	그렇지만 나는 학교에 갑니다.	장소 이동
	2-2	본문/21	길을 가다가 우연히 수미 씨를 만났습니다.	장소 이동
	3-2	본문/13	철민씨 회사에 갔더니 철민씨는 출장을 가고 없었습니다.	장소 이동
	3-6	본문/57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시간 이동
	3-17	연습/162	왜 대학에 가지 않고 취직했습니까?	장소 이동
	5-11	본문/94	언제고 장가는 가게 되겠지.	신분 변화
	5-14	본문/117	어느덧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시간 이동
	5-16	본문/134	여기 있던 생수 어디 갔어?	장소 이동
	5-16	연습/139	어머, 유리컵에 금이 갔어.	'선'모양 생성
선분대	1-3	본문/25	안녕히 가십시오.	장소 이동
	1-9	유형 익히기/116	여행을 갈 거예요.	장소 이동
	1-10	유형 익히기/126	왜 학교에 안 갔어요?	장소 이동
	2-5	유형 익히기/86	대학에 가서 한국말을 배울 거예요.	장소 이동

	5-4	속담/67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시간 이동
	6-7	문 법 /113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게 되었다.	시간 이동
	6-8	문 법 /130	한참 가다 보니 차를 잘못 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 이동
	6-10	본 문 /176	나와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라고 벌써 간단 말이요?	소실
연 세 대	1 - 1	기 본 어 휘	도서관에는 언제 갔습니까?	장소 이동
	1 - 9	기 본 어 휘	소풍을 가다	장소 이동
	1 - 9	기 본 어 휘	피서를 가다	장소 이동

<표Ⅱ-10> 한국어 교재에서 '오다'의 의미 제시 상황

교재	제시권 - 제 시 과	구성편/쪽수	예문	해당 의미
서울대	1-5	연습/49	--씨는 학교에 옵니다.	장소 이동
	1-6	연습/56	오늘은 비가 옵니다.	내림
	1-8	연습/72	친구가 집에 옵니까?	장소 이동
	1-12	본문/97	어서 오세요.	장소 이동
	2-5	어휘와 표현/30	전화가 오다.	추상적 이동
	2-14	본문/87	학교에 온 지 벌써 다섯 달이 되었습니다.	장소 이동
	2-29	어휘와 표현/193	밤이 지나가면 아침이 옵니다.	시간 이동
	3-15	어휘와 표현/113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요.	장소 이동

	3-29	어휘와 표현/217	나는 요즘 시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추상적 이동
고려대	1-6	본문/16	친구가 옵니다.	장소 이동
	1-6	연습/22	비가 옵니다.	내림
	1-9	기본문형/54	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장소 이동
	1-12	본문/86	앨버트 씨는 이 식당에 자주 옵니까?	장소 이동
	4-1	연습/7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추상적 이동
	5-14	본문/117	어느덧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시간 이동
선문대	1-3	본문/20	어디에서 왔습니까?	장소 이동
	1-5	본문/53	비가 옵니까?	내림
	1-7	본문/84	그래, 아까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어.	추상적 이동
	1-8	본문/91	어서 오세요.	장소 이동
	5-2	대화 연습/27	어떻게 오셨습니까?	장소 이동
	5-8	본문/137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오겠거니 하는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시간 이동
	6-7	문법/113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이동
연세대	1 - 1	기본어휘	누가 왔습니까?	기본어휘
	1 - 9	기본어휘	눈이 오다 , 비가 오다.	내림
	1 - 8	과제	다 왔습니다 .	장소 이동
	2-7	과제	전화가 왔다.	추상적 이동

위 표를 보면 1급에서 6급까지 '가다, 오다'의 제시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 제시가 부족하고 주로 원형의미인 이동의미기능만 제시한 것이다. '가다'와 '오다'의 확장 의미기능을 예문이나 어

휘 표현만 통해 제시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기능 기술과 설명이 따로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초•중•고급 각 단계에서 '가다, 오다'의 교습이 분산적으로 나타나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이 부족한 결론을 낼 수 있다.

Ⅲ장 중국인 학습자의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사용 및 이해 양상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의 이해와 사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분석한 '가다, 오다'의 의미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해 습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 조사에서 고빈도로 활용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의 진위 판단형 테스트를 통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 이해 양상을 측정하고자 한다. 번역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가 '가다, 오다'에 대해 사용 빈도와 산출 양상을 측정한다. 또한, 오류 원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학습자 인식 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실행하고자 한다.

1. 조사 방법

1.1 조사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다의어로서의 확장 의미에 대해 습득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 선정에 있어 다의어의 확장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문자에 활용해 본 적이 있는 고급 학습자를 설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6급 이상)을 취득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선정했다.

또한, 특정 기관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해당 기관의 교수법과 교재로 인해 너무 잘하거나 너무 잘 못 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어느 특수한 기관이나 교수법, 혹은 교재에 제한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기관에 소속하는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들은 모두 이동동사 '가다, 오다'를 이미 학습하고 많이 사용한 고급 이상의 학습자들이다. 이로써 본 연구를 위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고급 60명을 선정했다. 실험자 소속 기관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국 산동대학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국 난징대학교 등이 있다. 어울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 조사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대조 집단으로서 한국어 모어 화자 22명을 대조 실험으로 선정되었다.

<표Ⅲ-1> 실험자 기본 정보 분류

SNU	YSU	SDU	UIBE	NJU	기타	함께	평균 나이
12	10	8	5	5	20	60	22.35

1.2 조사 도구 개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 유형은 크게 인적 사항, 이해 양상, 인식 양상 세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인적 사항은 실험자 나이, 출신 및 소속 대학, 한국어 학습 시간 및 한국어 능력 시험 등급 등 기본 정보를 알아보려고 만들어 냈다.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해 이해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의 가장 전형적인 문항 유형인 진위형 문장 정오 판단형으로 이루어진다. 이해 양상을 조사하는 것은 오류 유형과 오류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사후 인터뷰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본 고에서 개발하는 연구 도구는 다섯 부분으로 나눠 총 4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 유형 및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된다.

<표Ⅲ-2> 연구 도구 개발

설문지 구성	설문지 유형	측정 목표	문항 유형	문항 수량
PART1	인적 사항	실험자 구성	주관식 응답	3
PART2	문법성 판단 테스트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 미적 특성 이해 양상	진위 판단형	33
PART3	번역 테스트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 미적 특성 사용양상	중-한 문장 번역 테스트	16
PART 4	학습자 인식 조사	난이도, 한중 이동동사 대응 관계 인식, 습득 방법 등	척도형(5단계)	4
PART 5	사후 인터뷰	학습자 내성		개별 실시

1.2.1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제2 언어 습득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학습자의 지식을 '암시적인 지식(Inplicit Knowledge)과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으로 나누고 Kweon(2017)에 따라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ity Judgemnet Test), 유도 산출 테스트(Elicited Production Test), 그림 선택 테스트(Picture Selection Test), 오류 수정 테스트(Oral Repair Test) 등 학습자 습득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 도구가 있다. 이들 테스트 중에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발화자의 실제 수행이 아닌 잠재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테스트 방법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도구는 크게 지필형과 청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필형은 다시 진위 판단형, 4지 선다형, 오류수정형, 완성형, 이자택일형 등으로 구분된

다. 본 고에서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 중의 진위 판단형을 채택하여 이해 양상의 33개 문항을 만들어 낸다.

진위 판단형 테스트는 정오를 판단하게 하는 유형으로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 중에는 문장의 정오를 판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이를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지침을 바탕으로 본 연구 설문지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다.

3.4절 귀납한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11개 의미 유형을 각 분류에 3개씩 문장을 출제하였다. 이로써 총 33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문항의 출처는 모두 선행연구와 사전, 교재, 국립국어원 문법성 판단 말뭉치를 참조하여 만드는 것이다. 김영주 외(2012)에서는 각 테스트 문장 내의 어휘 난이도, 문장 길이 등을 쉽고, 간단하고, 균형적으로 조절하여, 피험자가 해당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할 때 테스트하고자 하는 문법 사항에 의해서가 아닌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우선, 각 문항 길이는 5~8어절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어휘 난이도에서는 주로 <국제 통용 한국어 어휘목록 1~4급>에서 수록된 어휘만 채택하고 고급 이상의 어휘를 휘피하여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복합문과 긴 문장 말고 간단한 단문을 위주로 문항을 만들어 낸다. 이는 학습자가 어휘에 대해 부담감을 덜고 목표 문법을 판단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문항 출처는 21세기 세종 계획 1,200만 어절 균형 말뭉치를 대상으로 삼아 진려봉(2008), 임뭉남(2017), 임영진(2021) 등 선행연구에서 나오는 예문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표와 같다.

<표Ⅲ-3> 진위형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예시

문장 (상태 변화 의미 유형)	O	x	모르겠다
이제야 감기가 다 나아서 입맛이 왔다.			
겨우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이 완전히 갔다.			
이제야 정신이 왔다.			

또한, 진위 판단형 문법성 테스트의 정확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정확도} = \frac{\text{3개 판단 문항의 정답률 합계}}{3} \times 100\%$$

1.2.2 번역 테스트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번역 테스트(L1-L2 Translation Tasks)가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테스트로서 학습자가 목적 표현에 대해 사용 빈도, 사용 경향, 범하는 오류 유형 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인 차원에서 모국어로 작성한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는 학습자들이 대상 어휘를 번역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의 인식 차이를 어느 정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가다', '오다'의 각 의미기능이 관련된 유사어가 많아서 오류 유형이 비교적 규정하기가 어렵고 모호해서 본 고는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에 대한 학습자 사용의 빈도와 사용의 선호 경향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 빈도와 사용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 16개 중–한 번역 문제를 냈다. 번역 테스트의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테스트 어휘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에서 제시되는 어휘와 『학습용 기본 명사 연어 빈도 사전』을 참조하여 문항을 만들고 대표적인 테스트로 선정된다. 테스트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 각 문항 길이는 5~8어절로 통일한다.

<표Ⅲ-4> 문장 번역 테스트 예시

상태 변화 의미기능 번역 테스트 문제
1.感冒好了才又有精神(원문. 감기가 나아서 정신이 돌아왔다)
_____

1.2.3. 인식 조사 및 사후 인터뷰

앞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이해와 학습자의 내성과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식 조사도 시행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통해 학습자가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해 대응 관계, 반의 관계, 교체 관계, 모국어와의 대응 관계 등을 조사하고 교재와 교사 설명에 대한 만족도와 학습 경로까지 조사했다. 리커트 척도형(5단계)에는 미국인 사회 과학자 Rensis Likert의 이름을 따라 명칭 된다. 리커트 척도는 의견, 인식 및 행동 양상을 측정하는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

5가지 척도를 통해 어느 성향의 가장 끝에서부터 다른 끝까지의 범주로 구성된다. 선택형 질문이나 미리 응답자에게 채워진 보기를 제시하는 질문을 보다 리커트 척도형(5단계)은 더욱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인식 정도를 알아내도록 해주어 피드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나중에 교육 방안에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참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 간의 수치 차이를 통해 제2언어 습득 과정의 한계점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다'와 '오다'의 의미는 1대1로 대응하는지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정도와 수치 결과 비교를 통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생각 차이를 볼 수 있고 오류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오류 원인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다.

1.3 분석 방법 및 절차

예비 실험은 2022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국어 모어 화자 4명, 한국 S 대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을 끝난 후에 문항에 모르는 단어와 문법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문장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예비 실험 참여자들이 언급한 어려운 단어와 문장에 대해 다른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고 변경된다. 본 실험은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하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 60명, 한국어 모어 화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시행하기 전에 한국 S 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한국인 선생님 4명한테 문항 내용의 타당도에 대해 검증했다. 의견에 따라 3번이나 문항 내용에 대해 수정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균 응답 시간은 10분이었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의 평균 응답 시간은 약 5분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 문항이 총 43개이고 비교적 많아서 학습자가 설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 답안을 줄이고 설문 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실험 참여자에게 3,000원 사례금을 지급했다.

<표Ⅲ-5> 실험 시간 및 대상

실험 절차	예비 실험	본 실험	사후 인터뷰
실험 시간	2022년 12월 1일~5일	2023년 2월 10일~15일	2023년 2월 25일~29일
실험 대상	중국인 학습자 7명, 한국어 모어 화자 4명	중국인 학습자 60명, 한국어 모어 화자 22명	중국인 학습자 5명

2. 중국인 학습자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오류 원인 분석

2.1 의미기능별 이해 양상 분석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값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외쪽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고 오른쪽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다. 두 집단의 문항 평균 크론바흐 알파 값이 각각 0.718과 0.781로 산출되었다. Alpha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비교적 높고 실행할 수 있는 조사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스트는 그 신뢰도가 비교적 높아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판단될 수 있다.

<표Ⅲ-6> 진위 판단형 테스트의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중국인 학습자	.718	33
모어 화자	.781	33

본 실험 중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0명과 한국어 모어 화자 22명 두 집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통계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6으로 분석했다. 단일표본 T 검정을 통해 두 집단이 각 의미기능에 대해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표Ⅲ-7> 진위 판단형 테스트 집단통계량

	team	N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totel	1	60	15.87	3.577	.462
	2	22	29.09	3.939	.840

독립표본 T 검정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실험은 의미별에 따라 각 의미에 3개씩 문항을 만들어 냈다. 11개 의미 분류에 총 33개 정오 판단 문항을 설정하고 실행했다.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유의미 확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의 문법성 판단 테스트 점수에 대해 분석한다. 각 의미 문항별의 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통계학에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이 가정할 때 유의확률 p가 0.05보다 낮으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확률 p가 0.05보다 높을 때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유의확률(양측)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유의확률(양측)이 0.05보다 낮으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그것은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면 총 33개 문항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판단될 수 있다고 보일 수 있다. 다음 구체적인 의미별 분석 결과를 보고자 한다. 결과는 유의 수준이 0.05 이하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 간에 11개 의미기능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Ⅲ-8> 진위 판단형 테스트 독립표본 검정 결과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편균의 등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평균차이	표준오차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장소이동	등분산을 가정함	48.229	.000	-7.471	80	.000	-1.471	.197	-1.863	-1.07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1.666	73.341	.000	-1.471	.126	-1.723	-1.079
시간이동	등분산을 가정함	8.900	.004	-5.916	80	.000	-1.127	.191	-1.506	-.748
	등분산			-7.1	56.427	.000	-1.127	.159	-1.445	-.809

	을 가정하지 않음			03						
추상체이동	등분산을 가정함	.014	.906	-2.497	80	.015	-.539	.216	-.969	-.10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571	39.642	.014	-.539	.210	-.963	-.115
신분변화	등분산을 가정함	.516	.474	-8.481	80	.000	-1.591	.188	-1.964	-1.218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8.615	38.583	.000	-1.591	.185	-1.965	-1.217
심리변화	등분산을 가정함	1.618	.207	-2.633	80	.010	-.547	.208	-.960	-.134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429	32.539	.021	-.547	.225	-1.005	-.089
상태변화	등분산을 가정함	31.472	.000	-5.612	80	.000	-1.092	.195	-1.480	-.705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8.328	79.531	.000	-1.092	.131	-1.353	-.831
소실	등분산을 가정함	.592	.444	-10.380	80	.000	-1.694	.163	-2.019	-1.369
	등분산을 가정하지			-12.661	58.689	.000	-1.694	.134	-1.962	-1.426

	않음									
소모	등분산을 가정함	3.779	.055	-7.783	80	.000	-1.503	.193	-1.887	-1.11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879	64.748	.000	-1.503	.152	-1.807	-1.199
생성	등분산을 가정함	.771	.393	-6.892	80	.000	-1.245	.181	-1.605	-.88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7.737	47.892	.000	-1.245	.161	-1.569	-.922
도달	등분산을 가정함	.656	.420	-5.830	80	.000	-1.264	.217	-1.695	-.83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694	35.825	.000	-1.264	.222	-1.714	-.813
내림	등분산을 가정함	4.105	.046	-1.893	80	.062	-.420	.222	-.861	.02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244	54.614	.029	-.420	.187	-.795	-.045

2.1.1 상위 유형별 이해 양상

인간의 행위 중에 장소의 이동은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 개념으로 쓰인 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며, 우리 말에서는 그중에 하나로 '가다, 오다'라는 어휘를 사용해 왔다. 말은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많은 의미를 함의하게 되면서, 통시적으로 오래 쓰인 말일수록 의미의 분화가 활발해 넓은 의미 영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가 시대 변천과 함께 문화가 복잡하게 발달하고 인간의 사고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공간이

동 개념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까지 적용되어 쓰이게 되고, 자연히 그 의미 영역을 넓혀 구체적인 공간이동이 아닌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시가 이동, 상태 변화, 심리 변화, 그리고 생성, 출현 등과 같은 영역까지 그 의미망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전에 기술된 '가다, 오다'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토대로 문학작품 속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 어휘의 미를 체계화하여 의미망을 파악하는 작업은, 하나의 어휘가 어떻게 분화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어휘 사용 경향과 인간의 언어 능력까지고 엿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사전적 의미를 토대로 '가다'와 '오다'의 의미 영역을 종합해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 일정한 곳에서 이곳으로 움직인다.'라는 기본의미에서 '이동'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이동'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실제의 공간이동이 아닌 추상적 개념도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시간 이동'의 의미가 첨가되며, 여기에서 다시 '변화' 개념과 '존재' 개념 등이 분화되어 앞에 제시한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사전에 기술된 의미를 중심으로 '가다, 오다'의 의미 영역을 탐색해 본 결과, 그 의미 영역은 '이동'이라는 중심 개념 아래 공간 개념, 시간 이동 개념, 추상체 개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량이나 비중 변화를 발생하면 변화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원래 것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것이 생기면 존재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재복(1992)에서는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을 크게 이동, 변화, 존재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오리핑(2016)에서는 '가다, 오다'의 의미는 이동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이동의 의미와 비 이동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이동의 의미에서도 또 상세하게 분류해 보자면 공간[장소] 이동, 시간 이동, 추상체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비 이동의 의미에서 다시 세분하면 사태 또는 상태의 발생, 사태 또는 상태의 변화, 사태 또는 상황의 진행과 유지, 존재와 평가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변화와 존재 개념은 비 이동 의미에 속하고 있으며 세분하게 보면 변화 의미에서는 사람의 신분 변화, 심리 변화, 사물의 상태 변화로 나눌 수 있고 존재 의미에서는 사물의 소실, 생성, 도달, 내림, 소모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가다, 오다'의 상위

의미는 이동, 변화, 존재로 나누고 하위 의미는 장소 이동, 시간 이동, 추상체 이동, 사람의 신분 변화, 심리 변화, 사물의 상태 변화, 사물의 소실, 생성, 도달, 내림, 소모로 세분화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형의미에 가까울수록 학습자가 더 잘 습득하고 이해 양상의 정답률이 더욱 높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아래 <표Ⅲ-9>를 보면 원형의미 '이동'이 56.84% 정답률로 학습자가 잘 이해하는 상위의미 유형이다. 이어서 '변화' 의미기능은 비 이동 의미지만 '이동' 의미기능과 비교적 가깝고 유사점이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서 47.7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 의미기능은 원형의미와 큰 거리가 있고 아예 관련이나 없는 의미도 있고 연상하기가 어려운 의미도 있어서 정답률이 겨우 45.22%로 학습자에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위의미이다.

하위 의미	CL 집단	KN 집단	상위의미	CL 집단	KN 집단
장소 이동	59.44%	98.50%	이동	56.84%	91.42%
시간 이동	53.30%	90.90%			
추상체 이동	57.78%	84.86%			
신분 변화	48.80%	89.40%	변화	47.75%	90.92%
심리 변화	61.13%	97%			
상태 변화	33.33%	86.36%			
소실	34.44%	90.93%	존재	45.22%	86.08%
소모	36.66%	78.80%			
생성	37.78%	87.90%			
도달	43.33%	84.86%			
내림	73.89%	87.90%			

<표Ⅲ-9> 상위-하위 의미기능 이해 양상

2.1.2 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임지룡(1998)에 따라 다의 관계를 비롯하여 언어 구조의 비대칭성 개념은 인지 언어학의 출발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언급한다. 이른바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은 범주의 내부 구조가 중심적인 원소인 원형과 그로부터 확장된 주변적인 원소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범주구조에 대한 원형의 작용 영역은 색채에서 출발하여

형태-유기체-사물뿐만 아니라 언어 구조로 확장되었다. 어휘의 측면에서 범주 구성원의 비대칭성은 포섭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한 낱말의 내적인 관계, 곧 다의어에서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들에서는 다의어를 기존의 형태로서 새로운 체험을 확장해 나가는 '주요 인지 기제의 하나로 보고,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 비대칭성을 구조적, 의미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의어를 처리해 가는 인간의 인지 과정과 긴밀하게 동기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는 형태적으로나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원형의미가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반면, 확장 의미는 여러 가지 제약과 차이점을 가짐을 뜻한다. 임지룡(2001)에서는 '사다'와 '팔다'라는 '상거래' 중립적인 문맥에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양한 용법 가운데 원형의미 상거래의 상황을 벗어난 경우나 대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들 용버들이 다의 관계로 성명되 수 있는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다의어 확장 의미 간의 비대칭성 원리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가다'와 '오다'의 다의적 용법을 통하여 확장 의미를 분석하고 그 의미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장 의미기능 간의 대칭 관계와 비대칭 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대칭성 의미기능이란 '가다'와 '오다'는 의미상과 형태상으로 모두 다 1대1로 반의 관계를 유지하고 형태적으로도 반의어로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장소 이동', '추상체 이동', '도달', '신분 변화' 의미기능들과 같다.

대칭성 의미기능	CL집단 정답률	평균 정답률
장소 이동	59.44%	52.34%
추상체 이동	57.78%	
도달	43.33%	
신분 변화	48.80%	

<표Ⅲ-10> 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장소 이동>

구체적인 이동 경우인 사람과 사물 이동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56.44%로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98.5% 이상인 것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주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중국어는 주로 '去'(가다)를 사용하고 '来'(오다)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소 이동 의미에서 '가다'와 '오다'는 발화자의 입장에 따라 시점이나 방향

성이 다른 특징에 대해 학습자가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Ⅲ-11> 장소 이동 의미기능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사람과 사물 이동	1.민호가 산책하러 갔다.	O	71.67%	95.5%	59.44 %	98.5 %
	2.민호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O	46.67%	100%		
	3.민호가 공원에 산책을 왔다.	O	60%	100%		

<추상적 이동>

추상적인 사물 이동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57.7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84.86%로 나타났다. 7번 시점(출발점) 강조하는 '오다'와 9번 경로를 강조하는 '가다'는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이지만 8번과 같이 비 민주화에서 민주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경우는 '가다'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점과 방향에 따라 '민주화 가다/오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모두 '走向'로 사용해서 2대1 대응 관계를 존재한다. 모국어와 목표어 1대1 대응 불가능 차이로 인해 오류를 발생한다.

<표Ⅲ-12> 추상적인 이동 의미기능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추상적 이동	7.우동은 일본에서 왔다.	O	71.67 %	100%	57.78 %	84.86 %
	8.다른 나라에서도 민주화로 오는 데에 많은 피를 흘렸다.	X	36.67 %	86.4%		
	9.우동은 일본에서 영국으로 간 말이다.	O	65%	68.2%		

<도달>

도달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37.7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87.9%로 나타났다. 도달의 의미에서 '가다'는 위에서 아래로, '오다'는 아래에서 위로 이르거나 이동할 때 사용한다. 테스트 26번과 테스트 27번은 각 정답률이 23.33%와 33.33% 밖에 없다. 그러나 같은 도달 의미인 25번은 73.33%까지 나오는 이유는 '눈이 오다'라는 관용 표현이 나타내서 잘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관용 표현 말고 다른 문장에서 도달의 의미를 잘 판단되지 못했다. 이는 모국어와 대응하는 용법이 없거나 습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중국어에서 도달의 의미를 표현할 때 '가다'와 '오다'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到'(이르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Ⅲ-13> 도달 의미기능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도달	25. 눈이 종아리까지 온다.	O	73.33%	90.9%	43.33%	84.86%
	26. 치마가 종아리까지 온다.	X	23.33%	68.2%		
	27. 아이가 내 어깨에 갈 정도로 키가 크다.	X	33.33%	95.5%		

<신분 변화>

신분 변화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48.8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89.4%로 나타났다. 신분 변화 의미 중에 전형적인 표현은 '시집'과 '장가'와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에서 '시집을 가다.', '장가를 가다'를 관용구로 많이 나타나지만 '시집을 오다.', '장가를 오다'에 관련 문장이 없어서 대부분 중국인 학습자들이 14번, 15번 문항에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Ⅲ-14> 신분 변화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신분 변화	13. 시집을 가다.	0	78.33%	95.5%	48.88%	89.4%
	14. 시집을 오다.	0	35%	90.9%		
	15. 한국으로 장가를 오다.	0	33.33%	81.8%		

2.1.3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이란 '가다'와 '오다'가 모두 그 의미기능이 있지만, 의미상에서 반의 관계가 아닌 경우다. 구체적으로 '심리 변화'와 '시간 이동' 의미기능과 같다.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CL집단 정답률	평균 정답률
심리 변화	61.13%	57.23%
시간 이동	53.33%	

<표Ⅲ-15>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시간 이동>

시간 이동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53.33%,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90.9%로 나타났다. 그중에 4번 문항 '가다'의 현재나 미래부터 앞으로 어떤 시간에 이르는 의미기능에 대해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혔다. 중국어에서 4번 문항 중의 '내일에 가서야'를 중국어로는 '去明天'가 아니고 '到明天'(내일까지)로 표현해서 모국어 차이로 인해 오류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표Ⅲ-16> 시간 이동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시간 이동	4. 결과는 내일에 와서야 나온대.	X	46.67%	81.8%	53.33%	90.9%
	5. 오늘 와서야 계획이 취소	0	56.67%	90.9%		

	되었다고 연락받았다.					
	6. 감기가 오래 온다.	X	56.67%	100%		

<심리 변화>

심리 변화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61.13%,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97%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16번, 18번 심리 변화를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를 강조할 때 '오다'를 사용해야 하지만 학습자들이 이에 대해 습득한 적이 없어서 범하는 오류는 90% 이상의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다.

<표Ⅲ-17> 심리 변화 의미 유형 이에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심리 변화	16. 자신감이 있는 남성에게 호감이 온다.	X	50%	100%	61.13%	97%
	17. 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0	86.67%	90.9%		
	18. 사고는 부주의에서 가게 되었다.	X	46.67%	100%		

2.2.4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간에는 '구조적 비대칭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원형의미가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반면, 확장 의미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짐을 뜻한다. '가다, 오다'의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은 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가다'와 '오다' 이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그 의미기능이 있지만 다른 하나가 그 의미기능이 없는 경우다. 또 하나는 반의와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만 '가다'의 반의어가 '오다'가 아니거나 '오다'의 반의어가 '가다'가 아닌 경우다. 구체적으로 '상태 변화', '소실', '생성', '소모', '내림'이 있다.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CL집단 정답률	평균 정답률
상태 변화	33.33%	43.22%

소실	34.44%	
생성	37.78%	
소모	36.66%	
내림	73.89%	

<표Ⅲ-18>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이해 양상

<상태 변화>

상태 변화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57.7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84.86%로 나타났다. 특히 10번, 12번 상태가 비정상적에서 정상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오다'가 아니 '돌아오다'로 사용해야 한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10번과 12번에서 모두 오답을 한 학생에게 오답 원인을 물어봤다. '가다'의 반의어는 '오다'라고 생각해서 '정신이 가다'의 반의어는 무조건 '정신이 오다'라고 대답하고 한국어 교재나 실제 한국어 수업 교실에서도 이에 관련 습득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가 대다수였다.

<표Ⅲ-19> 상태 변화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상태 변화	10.이제야 감기가 다 나아서 입맛이 왔다.	X	23.33%	86.4%	33.33%	86.36%
	11.겨우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이 완전히 갔다.	O	55%	81.8%		
	12.이제야 정신이 왔다.	X	21.67%	90.9%		

<소실>

소실 의미 유형이란 원래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이때 사람으로 은유하면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다. '가다'의 소실 의미에 대응하는 반의어는 '오다'가 아니 '돌아오다'로 사용해야 한다. 테스트 19번에 대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불과 20%다. 이는 학습자가 소실 의미에 '가다'의 반의어는 '오다'가 아니 '돌아오다'라는 형태를 습득하지 못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테스트 20번에 대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정답률도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연구자가 테스트 19번과 20번 모두 다 오답하는 참여자에게 사후 인터뷰를 시행했

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잘 못 선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가다'의 소실 의미 표현을 모르거나 습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표Ⅲ-20> 소실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소실	19. 나갔던 전기가 갑자기 왔다.	X	20%	90.9%	34.44%	90.93%
	20.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O	28.33%	95.5%		
	21. 젊은 나이에 간 친구다.	O	55%	86.4%		

<인터뷰 참여자 학습자5>

연구자: 你为什么觉得第19题和第20题是正确的？(19번과 20번이 왜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5: 19题用中文翻译成停电和来电，和韩语的가다, 오다是一致的，所以觉得是对的。20题我在日常生活中看到过'떼를 없앤다'的表达但是没有学过'가다'的用法。(왜냐하면, 19번이 중국어로 말할 때 '전기 나가다' '전기 오다'로 하니까 한국어도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20번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떼를 없앤다.'라는 표현을 많이 봤는데 '떼'와 '가다' 결합하는 표현을 몰라요.)

<인터뷰 참여자 학습자7>

연구자: 你为什么觉得第19题和第20题是正确的？(19번과 20번이 왜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7: 19题我觉得没什么问题，应该是对的。20题我没有见过这种表达所以也不知道是不是对的。(19번이 따로 문제가 없어서 맞는다고 생

각하고 20번이 이런 표현을 몰라서 맞는지를 모릅니다.)

<생성>

생성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37.7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87.9%로 나타났다. '가다'는 생성 의미가 있지만 '선 모양'의 생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선 모양에 속하지 않은 것은 '가다'를 사용할 수 없고 '생기다'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오다'를 반의어로 사용할 수 없다. 학습자가 오답하는 이유는 소실 의미와 같이 학습자가 대부분 '가다'의 선 모양 생성 의미 표현을 모르거나 습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표Ⅲ-21> 생성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생성	22. 얼굴에 주름이 갔다.	O	35%	68.2%	37.78%	87.9%
	23. 얼굴에 점이 갔다.	X	46.67%	100%		
	24. 얼굴에 점이 왔다.	X	31.67%	95.5%		

<소모>

소모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36.66%,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78.8%로 나타났다. 소모 의미에서는 주로 '(잔)손이 가다'. '품이 가다'와 같은 관용구 형식으로 나타난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습자들이 '품이 가다'라는 관용어를 잘 습득한 적이 있을 것 같고 '(잔)손이 가다'라는 관용어를 아예 모르거나 교실에서 습득한 적이 없을 것 같다.

<표Ⅲ-22> 소모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소모	28. 농사일에 품이 많이 간다.	O	60%	68.2%	36.66%	78.8%

	29. 그의 손이 와야 일이 제대로 된다.	X	20%	77.3%		
	30. 책 등 잔손이 많이 오는 물건은 그냥 쏟아놓고 갔다.	X	30%	90.9%		

<내림>

내림 의미 유형에 중국인 학습자 평균 정답률은 73.8%,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이 87.9%로 나타났다. '눈이 오다', '추위가 오다', '비가 오다'와 같은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교과서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문장이라서 학습자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유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Ⅲ-23> 내림 의미 유형 이해 양상

측정 의미	문항 번호	정답	집단별 정답률(%)		평균 정답률	
			CL	KN	CL	KN
내림	31. 눈이 오니까 천천히 운전하세요.	O	76.67%	77.3%	73.89%	87.9%
	32. 추위가 많이 가서 옷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X	63.33%	95.5%		
	33. 비가 와서 조심해야 해요	X	81.67%	90.9%		

2.1.5 소결론

<표Ⅲ-24> 의미기능별 이해 양상 분석 결과

의미기능	점수화(총점 180점)	평균 정답률
내림	133	73.89%
심리 변화	110	61.13%
장소 이동	106	59.44%
추상적 이동	104	57.78%
시간 이동	96	53.33%

앞에 각 의미기능 분석 결과를 다시 요약하자면 외쪽 표와 같다. 이해 양상 고찰을 위해 개발된 33개 문항에 대해 점수화를 진행했다. 정답과 맞추면 1점을 부여하고 오답을 선택하

신분 변화	88	48.88%
도달	80	43.44%
'선' 모양 생성	68	37.78%
소모	66	36.66%
소실	62	34.44%
상태 변화	60	33.33%

거나 '모르겠다'를 선택하면 0점을 수치화했다. 따라서 한 의미기능에 만점은 3점이고 총 60명 학습자의 만점은 3x60, 총 180점이다. 즉, 한 의미기능에 대해 총점은 180점이다. 결과를 보면 학습자가 '가다'와 '오다'의 원형의미인 '이동'과 '사람의 심리와 신분 변화', '오다'의 원형의미인 '내림'에 대해 이해와 판단 능력이 비교적 충분하고 '도달', '생성', '소모', '소실', 상태 변화'에 대해 이해와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의미기능 차원으로 보자면 먼저 '이동' 의미 개념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이어서 '변화' 개념이 2위를 차지하고 마지막 '존재' 개념에 대해 파악과 학습이 아직 부족하다.

다의어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관점으로 보면 의미적 비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는 57.23% 정답률로 가장 많이 파악하고 이어서 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는 52.34%로 비교적 많이 습득한다. 그러나 구조적 비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는 43.22% 정답률로 습득 상황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2.2 의미기능별 사용양상 및 오류 분석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가다, 오다'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에서 '가다, 오다'의 사용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번역 테스트 자료(16개 문장)에 대해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사용 빈도는 37.79%밖에 없고 의미기능과 의미기능 간에 극대한 불균형 현상이 존재한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 '장소 이동' 의미

<표Ⅲ-25> 의미기능별 사용양상 결과

의미기능 유형	횟수	사용 빈도(%)
장소 이동	19	100%
내림	10	52.63%
추상적 이동	9	47.36%
신분 변화	9	47.36%
심리 변화	8	42.10%
시간 이동	8	42.10%
소모	6	26.31%
소실	4	21.05%
도달	3	15.78%
상태 변화	2	10.52%
생성	2	10.52%
평균	7	37.79%

의 사용 빈도는 100%이지만 '생성', '심리 변화', '시간 이동' 등 의미의 사용 빈도는 40% 정도만 있다. 즉,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과 의미기능 간에 극대한 불균형 현상이 검증됐다. 전체적으로 낮은 사용 빈도는 학습자가 사용 상황에 대해 지식 구축도 부족하다고 시사할 수 있다. 학습자가 보편적으로는 '장소 이동', '내림', 추상적 이동', '신분 변화'와 같은 의미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 빈도 나타나고 '소모', '소실', '도달', '상태 변화'와 같은 의미기능에 대해 사용 빈도가 존재하지만 '심리 변화', '시간 이동', '생성'과 같은 의미기능에 대해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 양상과 사용양상 간에 관련성이 있다. 즉, 학습자 이해도가 높을수록 사용 빈도가 높다. 예를 들면, '장소 이동', '내림', '추상적 이동'과 같은 이해도 높은 의미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도달', '소모', '소실, '선 모양의 생성'과 같은 이해도 낮은 확장 의미가 사용 빈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학습자가 이런 의미기능을 모르거나 스스로 회피하고 유사 표현으로 대체 사용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용양상 분석을 통해 이해 양상과 일치하는 것을 증명하여 학습자가 확장 의미의 사용 상황에 대해 지식 구축도 부족하다고 시사할 수 있다.

'가다'와 '오다'를 사용하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사용양상을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오류 양상은 오류 횟수, 오류 비율, 오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형태적으로 혼용하여 범하는 대치 오류와 첨가 오류, 누락 오류, 격조사 혼용 오류, 다른 어휘와의 혼용을 존재한다. 오류 비율에 따라 소모, 상태 변화, 심리 변화, 도달, 신분 변화 의미기능들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배열됐다.

2.2.1 상위 유형별 사용양상

전체적으로 보면 원형의미에 가까울수록 학습자가 더욱 잘 습득하고 사용 빈도도 높고 사용양상의 정답률도 더욱 높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아래 <표Ⅲ-29>를 보면 원형의미 '이동'이 100% 정답률로 학습자가 옳게 사용하는 상위의미 유형이다. 다시 말하면, '가다, 오다'를 사용하여 번역 테스트를 완성하는 학습자가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어서 '변화'와 '존재' 의미기능은 비 이동 의미로서 '가다, 오다'를

사용해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다. 이는 학습자가 그 뜻을 파악하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회피하거나 다른 단어와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2.1절 이해 양상과 비교해 보면 사용양상의 습득 상황도 부족한 것을 정답률을 통해 알 수 있다. 아래 절을 통해 각 유형 별의 의미기능 오류 유형과 양상을 알아보도록 한다.

하위 의미	CL 집단 정답률	상위 의미	CL 집단 평균 정답률
장소 이동	100%	이동	100%
시간 이동	100%		
추상체 이동	100%		
신분 변화	89.99%	변화	67.50%
심리 변화	62.50%		
상태 변화	50%		
소실	100%	존재	76.68%
소모	16.67%		
생성	100%		
도달	66.70%		
내림	100%		

<표Ⅲ-26> 상위-하위 의미기능 사용양상

2.2.2 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총체적으로 보면 대칭성 의미기능들의 평균 사용양상은 89.17%로 정답률이 가능 높다. 또한, 오류 양상을 보면 장소 이동과 시간 이동은 범하는 오류 양상이 따로 없고 도달과 신분 변화 의미기능은 대치 오류를 존재한다. '도달' 의미기능에서 '아이의 키가 내 허리까지 왔다'를 대신하여 '아이의 키가 내 허리까지 간다.'를 사용하는 '가다'와 '오다' 간의 대치 오류를 존재한다. 신분 변화에서 '장가를 가다'를 '장가를 오다'로 사용하는 '가다'와 '오다' 간의 대치 오류를 존재한다.

<표Ⅲ-27> 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대칭성 의미기능	CL집단 정답률	평균 정답률
장소 이동	100%	89.17%

추상체 이동	100%	
도달	66.70%	
신분 변화	89.99%	

'도달' 의미기능에서는 (C09, C11)과 같이 '가다'와 '오다', '오다'와 '올라오다'의 대치 오류가 존재한다. 이는 학습자가 문맥을 통해 '가다, 오다'가 '이르다'라는 의미기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본동사와 합성어, '가다'와 '오다' 어느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범하는 오류다. 또한 (C04, C05, C14, C19)와 같이 '오다'를 대신 '높다', '크다', '도착하다', '되다' 등 다른 어휘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드는 학습자도 있다. 이는 학습자가 전혀 '가다, 오다'의 의미 용법을 아예 모르거나 주동적으로 쓰지 않을 외면 경향을 존재한다.

<표Ⅲ-28> 도달 의미기능 사용양상

번역 테스트	의미기능	사용양상
7、小孩子个子已经到我腰这么高了 (아이의 키가 내 허리까지 왔다.)	도달	(C09) 아이의 키가 제 허리 정도로 올라왔다.
		(C11) 애가 내 허리까지 갔다.
		(C04) 아이 키는 내 허니만큼 높다.
		(C05) 작은 아이인데 키가 내 허리만큼 커.
		(C14) 아이의 크기가 이미 내 허리에 도착했다.
		(C19) 그 어린이 키가 벌써 내 허리까지 됐다.

'신분 변화' 의미기능에서는 (C02, C20, C04, C08)과 같이 '장가를 가다'를 '장가오다', '장가하다', '장가들다'로 잘 못 사용하는 대치 오류 현상을 존재한다. 이는 학습자가 '장가'라는 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가' 뒤에 적정한 동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잘 학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오류 양상이다. 또한 (C17) 과같이 '장가를 가다'를 '결혼하다'로 사용하는 것은 아예 이 의미기능의 용법을 아예 몰라서 나타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번역 테스트	의미기능	사용양상
3、下月娶妻 (다음 달에	신분 변화	(C02) 다음 달에 장가오다.
		(C20) 다음 달에 장가하다.

장가를 간다.)		(C04) 다음 달에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음.
		(C08) 다음 달에 아내를 얻다.
		(C17) 다음 달에 결혼해요.

<표Ⅲ-29> 신분 변화 의미기능 사용양상

2.2.3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총체적으로 보면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들의 평균 사용양상은 81.25%로 사용 빈도가 2위로 비교적 높게 차지하고 있다. 오류 유형을 분석하면 시간 이동은 오류 양상이 없고 심리 변화 의미기능에서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되었다'를 '사고는 부주의에서 가게 되었다'로 쓰는 '가다'와 '오다' 간의 대치 오류가 있다.

<표Ⅲ-30>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CL집단 정답률	평균 정답률
심리 변화	62.50%	81.25%
시간 이동	100%	

'심리 변화' 의미기능에서는 (C13, C08)과 같이 '부주의에서 오게 된다.'를 '실수로 가게 된다.', '실수로 가는 것이다'로 잘 못 사용하는 대치 오류 현상을 존재한다. 또한 '가다'와 '오다'의 심리 변화 의미를 잘 못 파악하는 학습자가 (C04, C10, C02)와 같이 '끌다', '나다', '일으키다' 등 동사를 사용하여 변화를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를 강조하는 현상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가다, 오다'의 심리 변화에 대해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다.

<표Ⅲ-31> 심리 변화 의미기능 사용양상

번역 테스트	의미기능	사용양상
4、这次事故是由于失误引起的(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되었다.)	심리 변화	(C13) 이번의 사고가 실수로 가는 것이다.
		(C08) 이번 사고는 실수로 가게 된 것이다
		(C04) 이번 사고는 실수로 끌은 것이다.
		(C10)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났어.
		(C02) 이번의 사고가 실수로 일으킨

		것이다.

2.2.4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총체적으로 보면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들의 평균 사용양상은 73.33%로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 오류 유형을 분석하면 소실, 내림, 생성 의미기능들이 오류 양상이 없다. '소모'라는 의미기능 번역 테스트에서는 '손이 가다'를 대신하여 '손이 들어가다'로 사용하는 첨가 오류가 존재한다. '상태 변화' 의미기능에서는 '정신이 돌아왔다'를 대신하여 '정신이 들어왔다.' 혹은 '정신이 왔다'를 사용하는 '돌아오다'와 '오다', '들어오다' 간의 대치 오류가 존재한다.

<표Ⅲ-32>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사용양상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	CL집단 정답률	평균 정답률
상태 변화	50%	73.33%
소실	100%	
생성	100%	
소모	16.67%	
내림	100%	

'상태 변화' 의미기능에서는 (C02, C13)과 같이 '정신이 돌아오다'를 대신하여 '정신이 들어오다.' 혹은 '정신이 오다.', '정신이 들다'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가 있다. 이는 '상태 변화' 의미를 표현할 때 '오다'를 사용하는 것을 알지만 '돌아오다'로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또한 (C04, C15, C18)과 같이 '오다'를 대신하여 '있다', '생기다' 등 어휘로 잘못 사용하여 범하는 혼용 오류가 있다.

<표Ⅲ-33> 상태 변화 의미기능 사용양상

번역 테스트	의미기능	사용양상
2、感冒好了所有才有精神(감기가 나아서	상태 변화	(C02) 감기가 나아서 기운이 다 왔어.
		(C13) 감기가 다 나아야 정신이 들었다.
		(C04) 감기를 나아서 정신이 있었다.
		(C15) 감기가 나아서 정신이 들어왔다.

정신이 돌아왔다.)		(C18) 감기가 나아서 정신이 생겼다.

'소모' 의미기능에서는 (C15, C02, C04, C08, C11, C16)과 같이 '손이 가다'를 '손에게 가다'로 잘 못 사용하는 대치 오류를 존재하고 '손에 들어가다.', '손에게 들어가다'로 잘 못 사용하는 첨가 오류가 있다. '소모' 의미기능의 경우에 주격조사 '이/가'를 사용해야 하지만 학습자가 처소격 조사'에'나 여격 조사 '에게'로 혼용하는 오류 현상을 존재한다. 또한 '손이 가다'를 '손에게'로 잘 못 사용하는 '가다'의 누락 오류가 있다.

<표Ⅲ-34> 소모 의미기능 사용양상

번역 테스트	의미기능	사용양상
8、事情到他手里就解决了 (그의 손이 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	소모	(C15) 일이 그 손에 들어가면 바로 해결됐다.
		(C02) 일은 그 사람 손에게 가서 해결됐어.
		(C04)(C11)(C08)(C16) 일은 그의 손에 들어가면 바로 해결된다.
		(C18) 일이 그에 손에서 바로 풀었다.

2.2.5 소결론

상위 의미기능 차원으로 보자면 2.1절에서 이해 양상의 결과와 같이 먼저 '이동' 의미 개념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어서 '변화'와 '존재' 개념에 대해 파악과 사용이 아직 부족하다.

다의어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관점으로 보면 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옳게 사용하고 이어서 의미적 비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를 비교적 많이 정확하게 사용한다. 구조적 비대칭성에 속하는 의미는 거의 10%의 정답률 차이로 사용 상황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해 양상과 달리는 것은 사용양상을 통해 학습자의 대치 오류, 첨가 오류, 누락 오류, 격조사 혼용 오류 등 오류 양상이 있다.

'가다'와 '오다'의 사용 빈도를 보면 원형의미에 대해 사용 빈도가 높고 확장 의미에 대해 사용 빈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 학습자가 이해도 높은

의미기능에 대해 사용 빈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반영된다. 또한, 평균 사용 빈도를 보면 대칭성 의미기능들의 사용 경향성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이고, 마지막은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에 대해 학습자가 회피 전략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양상 분석 결과를 보면 학습자의 습득 결여로 인해 '가다'와 '오다'를 사용할 때 혼용하여 사용하는 대치 오류와 기본 동사 '가다, 오다'와 다른 파생어의 첨가 오류가 존재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 사용 오류 유형은 크게 대치 오류와 첨가 오류 두 가지를 존재한다. 대치 오류 중에는 '가다'와 '오다' 간의 혼용, '오다'와 파생어 '돌아오다', '들어오다' 간의 혼용 현상이 있다. 첨가 오류는 주로 소모, 즉 '힘을 쓰는 의미에서 '손이 가다'와 '들어가다' 간에 첨가 오류 현상이 표현된다.

오류 현상을 형성되는 이유는 주로 습득의 결여와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아래로 도달하는 의미 환경에서 '오다'로 대치하여 혼용하는 것은 방향성 의미를 습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주관적인 심리 변화 원인을 강조할 때 '가다'로 대치하여 혼용하는 오류는 심리 변화 의미기능 특성에 대한 습득 결여로 간주할 수 있다.

3. 중국인 학습자 이동동사 '가다, 오다' 오류 원인 분석

앞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이해 양상과 인식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가 고급에 이르러서도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확장 의미에 대해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학습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원인을 파악해야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해서 이해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 다양성과 복잡성에 기인한 오류다. 먼저 목표 언어의 다양성과 복잡성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가다'와 '오다'가 사전에서 의미 항목은 각각 34개와 23개가 있다. 본 고에서 개념화와 범주화한 후에도 11개 의미 유형 존재한다.

둘째, 한·중 이동동사 차이에 기인한 오류, 즉 모국어 간섭이다. '가다,

오다'가 원형의미인 방향성 이동에서 중국어와 대응하는 언어 '走, 去'가 다른 확장 의미에서 서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간 이동', '도달' 등 의미에서 한국어는 '가다, 오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走, 去'를 대신 '到' (이르다)를 사용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셋째, 교재 부재에 기인한 오류다. Ⅱ장 5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다, 오다'가 가장 기초적인 동사 언어로서 초급 단계에서 많이 교습하게 된다. 교과서에서도 거의 다 원형의미만 제시하고 학습자 인식 조사 양상에서도 반 이상 학습자가 교실 환경이 아닌 일상 대화를 통해 '가다, 오다'의 확장 의미를 습득한다는 결론이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 나오는 교습 방안이 부족하고 활용할 만한 어휘 연습 항목이 거의 없다는 한계점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가다, 오다'에 대한 교습 방법은 초급 단계만 제한하고 도식화 및 의미망을 통한 '가다, 오다'에 대한 교육 방안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이다.

3.1 의미기능 복잡성에 기인한 오류

'가다'와 '오다'가 '장소 이동'이라는 원형의미에서는 발화자의 시점의 차이에 따라 서로 반대의 방향성 관계로 의미기능에 대응하고 있고 출발점과 도착점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총 11개 의미 중에 4가지는 반의 관계로 1대1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다.[13] 남은 8개 의미기능을 분류화하여 교체 사용 불가와 완벽하지 않은 반의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인식에 대해 모르는 경우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표Ⅲ-35> 의미기능 복잡한 원인

분류	설명	예시
1. 형태적으로 '가다'와 '오다' 간에 교체 사용 불가능	1.1 반의와 대응 관계가 없음. '가다'와 '오다' 이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그 의미기능이 있지만 다른 하나가 그 의미기능이 없는 경우. 1.2 반의와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만 '가다'의 반의어가 '오다'가 아니거나 '오다'	**소모**. 손이 가다{오다*} **소실**. 때가 가다{오다*} **내림**. 눈이 오다{가다*}<-> 그치다 **상태 변화**. 입맛이 갔다<->돌아왔다 **'선' 모양 생성**. 주름이 가다{오

13) 장소 이동, 추상적 이동, 도달, 신분 변화.

	의 반의어가 '가다'가 아닌 경우	다*}
2. 의미상으로 '가다'와 '오다' 간에 완벽하지 않은 반의 관계	'가다'와 '오다'가 모두 그 의미기능이 있지만, 의미상에서 반의 관계가 아닌 경우	**심리 변화**. '가다'는 심리 변화 경로, '오다'는 심리 변화 원인 강조 **시간 이동**. '가다'의 시간 지속과 사건의 끝남, '오다'는 미래 시간의 시작 강조.

<표Ⅲ-36> 의미기능 복잡성과 이해 양상 상관분석 1

		분류1	이해도 점수1
분류1	Pearson 상관	1	.290*
	유의확률 (양측)		.024
	N	60	60
이해 점수1	Pearson 상관	.290*	1
	유의확률 (양측)	.024	
	N	60	6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리커트 5점 척도 도구를 통해 학습자가 의미기능 복잡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했다. 앞에 이해 양상 문법 판단 테스트에서 나오는 점수화 결과와 복잡성 인식 조사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동시에 학습자의 이해 양상과 인식 조사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60명 중국인 학습자에게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했다. 정오형 문법 판단 테스트 점수화[14] 결과와 리커트 5점 척도 인식 조사 간의 관련성이 검증된다. 결과는 예시1 중 의미기능들의 이해 점수 결과와 원인1(교체 불가능)과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에 놓인다(r=.290*), 예시2 중 의미기능들의 이해 점수 결과와 원인2(완벽하지 않은 반의 관계) 간에도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에 놓인다(r=.274*). 즉, 교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예시1의 의미기능들에 대해 이해 양상 점수가 더욱 높고 불완전한 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예시2의 의미기능들에 대해

<표Ⅲ-37> 의미기능 복잡성과 이해 양상 상관분석 2

		분류2	이해도 점수2
분류2	Pearson 상관	1	.272*
	유의확률 (양측)		.036
	N	60	60

14) 33개 목표 문항에 대해 점수화 진행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답과 맞추면 1점을 부여하고, 오답이나 '모르겠다'를 선택하면 0점을 수치화하고 총점 33점이다.

이해 점수 2	Pearson 상관	.272*	1
	유의확률 (양측)	.036	
	N	60	60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이해 점수가 더욱 높다. 이상에서 의미기능 복잡성 원인 인식을 잘 아는 것이 의미기능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한·중 의미 차이에 기인한 오류

한국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走/去/来'의 대응 관계를 요약하면 '장소 이동'과 '추상체 이동', '신분 변화'를 제외하면 다른 확장 의미 분류에서 '走/去/来'와 대응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모국어와 목적어 간의 의미 차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다. 또한, 통계 결과를 통해 완전히 양의 상관관계에 놓이고(r=.350**,p= 0.006) 한중 의미 차이 인식과 학습자의 이해 양상 점수 결과에 대해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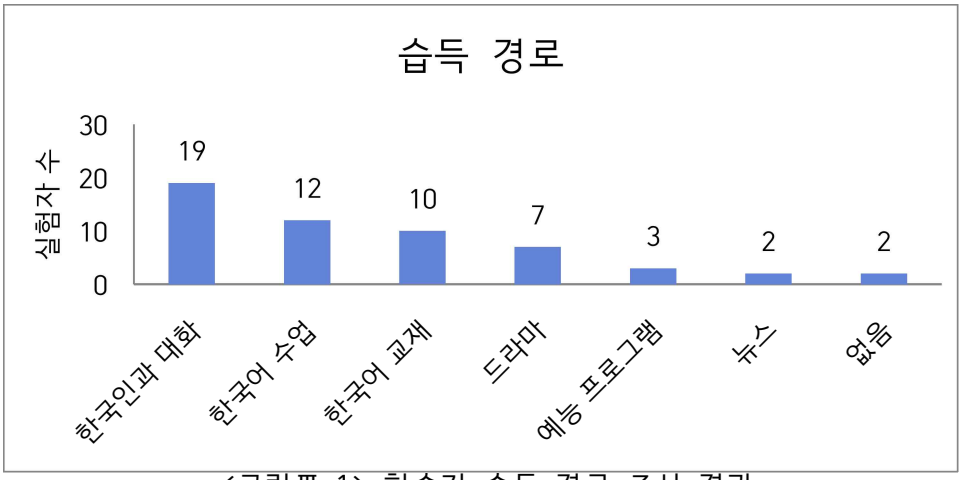
<표Ⅲ-38> 한중 의미 차이와 이해 양상 상관분석

		한중 의미 차이	이해도
한중 의미 차이	Pearson 상관	1	.350**
	유의확률 (양측)		0.006
	N	60	60
이해도	Pearson 상관	.350**	1
	유의확률 (양측)	0.006	
	N	60	60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3.3 확장 의미 교육 미흡에 기이한 오류

먼저 학습자가 '가다, 오다'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 대부분 어떻게 습득하는지에 대해 습득 방법과 경로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55명 학습자의 유효 답안 중에 19명이 '한국인과 일상 대화에서 배우게 된다.'라고 대답하며 34.5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어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응답이 12명이고 2순위로 21.81%를 차지하게 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배우게 되는 응답이 10명 밖에 없고 18.1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뉴스 등 대중 미디어 매개를 통해 습득되는 사람도 12명이고

21.81%를 차지한다. 따라서 교실 외 환경과 기회를 통해 습득하는 비율이 56.36%로 반 이상 정도로 차지하게 되고 교실과 교재를 통해 습득하는 비율인 겨우 40.61%만 있다. 이는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 습득에 대해 교육과 교습이 아직 미비하거나 효과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Ⅲ-1> 학습자 습득 경로 조사 결과

Ⅳ.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교수·학습 방안

이상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 및 이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양적과 질적 통합 방법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사용 경향과 사용 빈도, 습득 정도, 사용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기능에서 어떠한 오류 양상이 나타나는지, 각 의미기능에서 오류를 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밝혔다.

학습자가 '가다, 오다' 의미기능에 대한 오류는 주로 언어 자체 의미기능 다양성과 복잡성, 각 의미기능 간에 반의어의 불규칙성, 모국어 간섭, 교육 과정 영향 등 요인을 존재한다. 교육 과정은 한국어를 교수•학습 방법과

목표, 교육 환경,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이해도와 숙달도 평가 등등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학습자 오류 원인을 근거로 교육 자료의 부실과 교육 방법의 단일화 등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 교수·학습 목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가다'와 '오다'는 반의어로서 어휘 교육에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중국어 습관과 사고하는 간섭과 제약에서 벗어나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며 한국적인 언어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최정식, 장태원(2010)에서 반의어는 보통 1대1 관계로 되어 있지만, 다의어나 언어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반의어가 여러 개 출현하기도 한다. 언어학의 반의어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한 쌍의 낱말로 여러 가지 공통의 의미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가지 의미 성분만 대립할 때 다른 의미기능의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반의어를 이용한 어휘 학습은 단순히 낱말의 의미만 기억하고 어휘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실제 언어생활에서 뒤집어 보고, 역으로 생각하여 상대 개념을 파악하여 차이점을 찾는 등, 활용할 수 있는 어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광호(2004), 구본관 외(2015), 윤평현(2013) 등의 논의에서 반의어는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라고 정의되고 반의어의 유형을 등급 반의어, 상보 반의어, 상보 반의어, 관계 반의어로 나누고 있다. 박진현(2017)에서 '가다, 오다'가 속하는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여 의미상 대칭을 이룰 때 다시 '역의 관계, 역행 관계, 대척 관계, 대응 관계'로 나뉘어 있다. 역행 관계는 단어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단어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역행 관계는 행위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다, 오다'가 가장 대표적이다. 서술어로 쓰인 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에 따라 논항의 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교재나 예문에서 필요한 논항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이상의 어휘의미가 대조적으로 상반될 때 반의어(antonymy)를 통해 어휘지도의 의미 자질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익환(2000)에서 반의어에는 이원 관계(binaryrelation)와 비이원 관계(non-binaryrelation)로 나누었다. 이원 반의어는 의미상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이고 비이원 관계는 의미상 완전히 반대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가다'와 '오다'는 원형의미에서는 이원 관계로 볼 수 있지만, 부분 확장 의미에서는 비이원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

한재영(2010)에서는 반의어가 인간의 의식 구조를 가장 잘 방영하기 때문에 어휘 학습할 때 함께 제시하고 교습하면 학습자에게 효과가 몇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한다. 어떤 단어 X를 학습할 때 반의어 Y를 함께 학습하면 X의 의미기능 이해와 사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Y까지 함께 학습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신근(2014)에서는 반의 관계는 모든 언어에서 기본적인 의미 관계로 학습자들이 모어 체계를 이용하여 쉽게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점으로 어휘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수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뭉남(2017)에서 '가다'와 '오다'는 원형의미로 볼 때 반의 관계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확장 의미에서는 서로 반대의 의미를 많이 가지므로 두 어휘를 같이 묶어서 제시하면 교육 효과가 더 좋다고 한다. 또한 '가다, 오다'가 서로 반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의미 항목이 많지만 실제로 반의어가 되지 못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가다'의 확장 의미는 '소실', '소모', '상태 변화', '선 모양 생성' 등이 있는데, '오다'의 확장 의미는 '소실', '소모', '상태 변화', '선 모양 생성' 등이 없다. 이는 서로 교체하지 못해서 반의어가 되지 못한다. 또한, 어떤 의미기능에서 '가다'와 '오다'는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심리 변화' 의미기능에서 '가다'는 '심리 변화 경로와 과정을 강조하지만 '오다'는 심리 변화 원인을 더욱 강조한다. 이는 서로 의미 대응하지 못해서 반의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다'와 '오다'는 서로 반의적이고 대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완전한 반의어로 간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실제 교육 과정에서 '가다, 오다'는 반의어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반의어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잘 구별하고 학습자에게 명확히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가 어휘의미를 잘 인식하고 변별하는 데에 목

적을 두어야 한다.

박순옥(2000)에서는 다의성 동사의 다양한 의미들을 막연히 암기하기보다는 인지 문법의 원리들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교육 현장에서도 더욱 유효할 것으로 밝혔다.

본 고는 인지적 관점에서 이동 동사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를 분석했다. 이들은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지니는 다의어에 속는 동시에 공간이동이라는 원형의미에서 상반된 방향성 반의 관계하고 있으므로 반의어도 속하고 있다. 다의적인 현상은 공간적인 영역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영역이나 다른 영역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의미의 다의성이 생겨난다. 이런 현상은 그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 구조, 사고 방식, 생활 방식 등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 이들은 원형에 있어 이동 수단, 이동 주체와 대상, 이동 경로로 이동체의 일부, 즉 신체 일부를 사용하며 탄도체의 장소 이동 방법이나 모습이 의미 확대 현상에 다양하게 반영된다. 두 동사 모두 탄도체의 모습 변화, 이동 성분의 관계, 은유적 관계에 의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장에서 학습자의 이해 정도와 사용 빈도를 보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 뜻을 잘 알고 있지만, 확장 의미와 각 의미기능의 세부 특성을 인식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부족을 존재한다. 따라서 본 고는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각 확장 의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고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표Ⅳ-1> 교육 목적 및 목표

목적	중국인 학습자가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각 확장 의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시킨다.
목표	1.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확장 의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2. 한중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함으로 모국어 간섭 오류를 방지하기. 3.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학습함으로써 언어 내 오류를 방지하기.

2.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교육 내용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내용 선정 없이 모든 문법이나 어휘 항목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교육 환경에서도 비현실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통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정보를 가르치고 어떤 문법 정보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교사가 실제 사용 상황과 의사 고통 차원에서 잘 판단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Ⅱ장에서 이동동사 '가다, 오다'에 대해 인지 언어학적 고찰과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이동동사 '가다, 오다' 사용양상 및 오류 분석 결과를 근거하여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자 한다.

2.1 상위-하위 의미기능 교육

구체적인 의미기능을 학습하기 전에 '가다, 오다'의 상위의미 분류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Ⅱ장 분석한 결과는 이동동사 '가다, 오다'가 '이동', '변화', '존재'라는 상위의미 유형을 지니고 있다. Ⅲ장에서 제시한 이 세 가지 의미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원형의미 '이동' 정답률은 56.84%로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상위의미 유형이다. 그러나 '변화'와 '존재' 의미 정답률은 40% 정도로 학습자에게 어려운 상위의미라서 추가설명이나 필요한 해석이 필요하다.

<표Ⅳ-2> '가다'의 상위-하위 의미기능 교육 내용

이동	공간이동: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예: 호랑이가 숲으로 간다.
	시간 이동: 화자를 기준점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으로 이동하다 예: 좋은 시절이 다 갔다.
	추상체 이동: 은유로서 추상적인 사물을 행위자로 이동하는 모

	양이다. 예: 장사꾼들 사이에 시비가 오고 가는지 소란스러웠다.
변화	신분 변화: 새로운 신분 개념, 직업이나 직책, 복무, 학업, 혼인 등 원래 몸담아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다. 예: 이번 인사 발령으로 총무과로 가게 되었다.
	심리 변화: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하는 의미다. 즉, 관심이 있다나 관심이 생긴다는 뜻이다. 예: 그의 슬픈 표정을 보면 동정심이 간다.
	상태 변화: 상황이나 사물의 사태가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흘러가는 의미다. 예: 콩나물무침이 시큼하게 맛이 갔다.
존재	생성: 물의 생성 과정은 변화를 거치면서 은유적인 확장을 통해 변화에서 생성으로 파생될 수 있다. 예: 옷에 주름이 가다.
	소실: 사물의 빠지거나 사람의 소실이 있다. 즉, 원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예: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소모: '가다'는 일정한 대상에 미치어 작용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수고가 많이 드는 의미다. 예: 농사일에는 품이 많이 간다.
	도달: 어느 정도나 어느 시점, 수치, 혹은 어느 수준에 이르다'라는 의미다. 예: 이 수영장은 물이 어른의 허리쯤에 간다.

<표Ⅳ-3> '오다'의 상위-하위 의미기능 교육 내용

이동	공간이동: 화자의 시점이 이동의 목적지가 있는 방향에 이동하다. 예: 친구가 휴가를 받아 학교에 왔다.
	시간 이동: 주로는 곧 이를 때나 시기나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닥치는 시기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예: 오늘에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다.
	추상체 이동: 은유로서 추상적인 사물을 행위자로 이동하는 모양이다.

	예: 민주화로 오는 길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변화	신분 변화: 새로운 신분 개념, 직업이나 직책, 복무, 학업, 혼인 등 원래 몸담아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다. 예: 모로코 공주 한국에 시집온다.
	심리 변화: 어떤 것이 외부에서 사람의 마음이나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나 없던 것이 생기는 것으로 인식이란 경우에 쓴다. 예: 언뜻 보니 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상태 변화: 어떤 현상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하여 생겨나는 의미다. 예: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존재	생성: 원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예: 사과가 나에게 두 개나 더 왔다.
	도달: 어떤 곳이나 어떤 대상에, 혹은 어떤 정도, 어떤 상태에 이르는 뜻이다. 즉, 사물이나 시간이 어떤 기준점에 도착하거나 어느 수치나 시기에 이르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수영장 물이 목까지 온다.
	내림: '비'와 '눈' 등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내리거나 닥치는 의미다.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간다.

2.2 대칭성-비대칭성 의미기능 교육

'가다'와 '오다'가 반의어로서 모든 의미기능에서 형태적이거나 의미적이거나 상반적으로 대응하는 반의어가 아닌 것을 앞 절 논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의미기능에서는 '가다'의 반의어가 '오다'가 아닌 다른 어휘로 표현해야 하고 어떤 의미기능에서는 '가다'와 '오다'가 한 쌍의 반의어로서 의미 대립이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른바 다의어의 비대칭성이다. 즉, 한 쌍의 반의어가 원형의미에서 서로 형태와 의미에 대응하고 사용하지만, 확장 의미에서 그러지 않는 예도 있다.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형태적(구조적) 비대칭성과 의미적 비대칭성을 존재한다. Ⅲ장에서 제시한 비대칭성 의미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대칭성 의미기능은 70.75%, 의미적 비대칭성은 69.24%로, 구조적 비대칭성은 58.27%로 나타난다. 즉, 대칭성 의미기능보다 비대칭성 의미기능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아직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어울려 평균 사용 빈도를 보면 대칭성 의미기능들의 사용 경향성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의미적 비대칭성 의미기능이고, 마지막은 구조적 비대칭성 의미기능에 대해 학습자가 회피 전략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다, 오다' 반의어로서의 비대칭성의 의미기능 교육이 필요하다.

<표Ⅳ-4> '가다, 오다'의 비대칭성 의미기능 교육 내용

의미기능 분류		가다	오다
대칭성 의미기능	장소 이동	청자를 중심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인다. 예: 영희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발화자를 중심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인다. 예: 오늘은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있다.
	추상체 이동	이동의 경로와 과정에 중점을 둔다. 예: 우동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간 말이다.	어떤 시점에 놓이고 그 기초에서 출발하거나 시작하는 것을 표현한다. 예: 우동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도달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뜻이다. 예: 치마가 종아리까지 간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뜻이다. 예: 아이가 내 허리에 올 정도로 키가 크다.
	신분 변화	청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분 개념, 직업이나 직책, 복무, 학업, 혼인 등 원래 몸담아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다. 예: 미국으로 시집을 가다.	발화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분 개념, 직업이나 직책, 복무, 학업, 혼인 등 원래 몸담아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다. 예: 한국에 시집을 오다.
의미적 비대칭성	심리 변화	원래 있던 심리 변화를 다른 쪽으로 바꿈. 예: 수지가 관심이 가는 분야로 근무하게 된다.	원래 없던 주관적인 심리 변화가 생김. 예: 들으면서 감동이 오는 음악이다.

			심리 변화를 생기는 원인. 예: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시 간 이동	사람이나 주위 사물이 과거나 현재에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이르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예: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사람이나 사건이 과거로부터 기준점이 되는 시간으로 이동하는 의미가 있다. 예: 오늘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연락받았다.
		시간의 지속 의미 예: 감기가 오래간다.	X
구 조 적 비 대 칭 성	소모	사람의 정신, 힘, 사물, 물자 따위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뜻이다. 예: 농사일에 품이 많이 간다.	X
	소실	원래 존재하는 사물이나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뜻. 예: 이 비누는 때가 잘 간다.	X
	내림	X	
	상 태 변화	사람이나 사물이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변화할 때 '가다'를 쓴다. 예: 김치 맛이 갔다.	사람이나 사물이 비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변화할 때 '오다' 대신에 '돌아오다'를 쓴다. 예: 김치 맛이 돌아왔다.
	생성	사물의 생성 과정과 변화를 거치면서 원래 없고 새로운 사물이나 상	X

		태가 나타나는 뜻. 예: 벽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	

3.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 교육 방법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은 어휘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는가의 양적 어휘력과 어휘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는 질적 어휘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모국어 대응 단어를 목표어에 대응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고 단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아는 것으로 지속해서 앎의 과정을 확장되는 뜻이다. Nation(2001)에서는 단어를 아는 것에 연계된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와 표현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표Ⅳ-5> 단어를 아는 것에 연계된 지식 Nation(2001.27)

의미	형태와 의미	이해	단어의 형태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현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 형태는 무엇인가?
	개념과 지시	이해	개념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표현	개념이 지시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연상	이해	이 단어가 상기시키는 다른 단어들은 무엇인가?
		표현	이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말은 무엇인가?

한 단어를 잘 아는 것을 판단하는 표준은 언어학에서 음운, 형태, 의미, 통사, 화용과 관련된 모든 언어 지식의 운용 및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에 근거한다. 그러나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은 사람마다 달라서 어휘 능력, 즉 단어 사용 능력은 풍부함, 복잡성 및 미묘함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3.1 어휘 연상 실험

Sinclair (1991), Ellis(1996), Erman & Warren(2000), Wray(2008), Mary Shin Kim (2010) 등 연구에 따라 한 목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동시에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덩어리(lexical chunks)로 저장되고 사용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자는 구문에 의해 결합한 단일한 단어보다 어휘 덩어리(단어 조합)를 머릿속에 더 빠르게 기억하고 처리한다고 밝혔다. (Ellis 2006, Conklin and Schmitt, 2008). 어휘적 접근은 제2언어 교육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단어와 단어 간의 조합에 대한 학습자의 어휘 숙련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검증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두 집단 실험자들에게 언어 연상 실험을 시행한다. 결합할 수 있는 단어 연상 실험을 통해 두 집단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가다, 오다' 의미망 구축(semantic networks)와 마이드 맵(mind-map) 개발에 유의미하다.

김은혜(2007)에서는 단어를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로 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학습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의미는 정해진 분류기준에 의해 도출되고 단어와 단어 맺는 관계, 즉 의미 간의 관계에 따라 도출될 수도 있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먼저 의미의 분류기준부터 파악해야 한다.

<표Ⅳ-6> Leech(1974)의 의미 분류

1. 개념적 의미 (conceptual meaning)		논리적 지적·외연적 내용으로서 언어 중심된 내용
연상적 의미	2. 내포적 의미 (connotative meaning)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 지시하는 것에 의해 전달되는 내용
	3. 사회적 의미 (social meaning)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전달하는 의미
	4. 정서적 의미 (affective meaning)	화자/청자의 감정 및 태도에 대하여 전달되는 의미
	5. 번영적 의미 (reflected meaning)	같은 표현이 다른 의미를 연상하는 것에 의해 전달되는 것
	6. 연어적 의미 (collocative meaning)	배열된 환경에 의하여 획득된 연상 의미
7. 주제적 의미 (thematic meaning)		어순이나 강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

위와 같이 리치(Leech 1974)는 고정된 의미를 전체적으로 일곱 가지 의미 유형으로 설명하고 의미의 분류를 명확하게 구분된다. 유동적이고 모호한 의미의 특성을 도출되는 동시에 언어 사용자가 단어 의미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임지룡(1999)에서는 단어와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크게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s)와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s)로 구분된다. 그다음에 동의 관계, 상하 관계, 대립 관계 등을 중심으로 계열 관계를 보고 혼성어나 관용어와 같은 연어를 결합 관계의 중심으로 살펴봤다. 또한, 실제 사용에서 의미의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처럼 의미가 1.1의 대응 관계가 아닐 때도 있다. 다의어, 동의어와 관련된 중의성을 포함하여 많은 의미를 지닌 복합관계도 언급한다. 한 낱말의 관련된 의미 중에서 중심적이고 친숙한 의미와 주변적이고 낯선 의미가 구별된다. 이은경(2012)에서도 제시어와 반응되게 대해 언어 연상 실험은 제시어와 반의어 사이에 일관성이 나타나고 의미장 내에서의 단일 언어가 유기적 상호 관련되거나 계열화되어 계열 관계와 또 다른 결합 관계로 나누게 된다.

<표Ⅳ-7> 임지룡(1999) 계열관계와 결합 관계의 유형

계열관계 (paradigmatic relations)	동의관계 (synonymy)	둘 이상의 어휘소가 동일한 의미를 지닐 때 성립된다. 동의 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은 동의어라고 한다.
	반의관계 (antonymy)	둘 이상 어휘의 의미가 대조적으로 상반되는 경우에 성립된다.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소들은 반의어라고 한다.
	상하관계 (hyponymy)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계층적 구조로서, 한 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대립관계 (oppositeness)	상반되는 대상 혹은 개념. 의미의 대립관계에 대해서는 '반대말' '상대어'등 술어가 있다.
결합관계 (syntagmatic relations)	대등합성어	구성요소 A,B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소를 이루는 것이다.
	혼성어	음성적, 의미상으로 관련된 두 언어형식의 일부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새 어휘소를 말하는 것이다.

	관용어	둘 이상의 어휘소가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연어	상호의존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어휘의 결합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임지룡(2001)에서 원형이론은 범주의 내부 구조가 중심적인 원소인 원형과 그로부터 확장된 주변적인 요소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간에 나타나는 비대칭성을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형태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원형의미가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반면, 확장의미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을 뜻하는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에 대한 구조적 비대칭성이 있다. 둘째, 언어 실제 사용에서 원형의미가 확장의미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 간에 나타나는 빈도적 비대칭성이 있다. 셋째, 원형의미가 확장의미보다 먼저 습득되고 머릿속 어휘사전의 더 중심주에 저장되는 인지적 비대칭성이 있다.

Artin(1976)에서는 연어(collocation)란 제2외국어에서 새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중요하며 언어적인 면을 알아야 하나의 어휘를 알 수 있다고 정의된다. 연어는 한 단어가 문장 맥락에서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결합적 관계를 맺는 새로운 의미나 확장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연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결합한 어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단어와 같이 쓰이는 어휘가 제한적이라서 연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이다. 연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과 의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메리(2010)은 연어 연상 학습에서 원어민과 외국인 화자의 어휘를 실험적으로 테스트하고 위에서 언급한 어휘 범주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시행했다. 10개의 단어 연상 구문을 제시한 후 원어민과 외국인을 비교한 결과, 원어민이 연상 구문을 사용할 확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다른 단어와 의미상으로 공존하는 어휘를 연어라고 하고, 연어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를 연어적 의미라고 합니다. 많은 문법 구조와 언어 기능에서 연어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언어의 중요한 표현이며, 표현적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문장에서의 연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것

은 의사소통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인간의 사고, 기억, 인지와 관련하여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심리학적 의미론이 사용되고 있다. 의미의 연상은 자극 단어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반응이며, 심리학자들은 학습자 간에 상당한 일관성을 발견했다. 우리는 주어진 문맥에서 단어 간의 관계인 단어 연상을 통해 언어를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다. 학습자는 단어 연상을 통해 학습하고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가 고립된 혼돈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의미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의 의미는 다양한 인지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결되며, 내적 구조적 연결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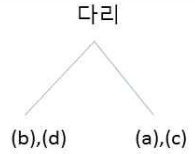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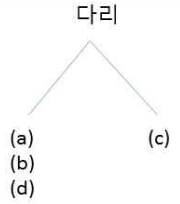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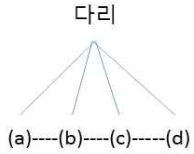
따라서 본 고는 이는 의미장 구조를 도입하여 연상을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연상을 통한 마인드맵 활동으로, 학습자는 학습 언어에 대한 어휘 연상 실험을 부여받고 주제 어휘와 관련된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전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 회상할 수 있어 어휘 기억 치료에도 유리하다. 학습 과정의 일부로서 어휘 학습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며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2 의미망 도식화 구축

언어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일부로서 인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를 인어는 인위적으로 범주화하고 개념화할 수 있으며 언어 자체가 어느 정도의 독립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습자가 개인적인 인지능력에 따라 설명과 사용 방식이 다르지만 제2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다의어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왕미지(2014)에 따라 한국어 다의어 의미망 도식화 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은 의미 정보가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의어의 확장 방식과 경로의 이해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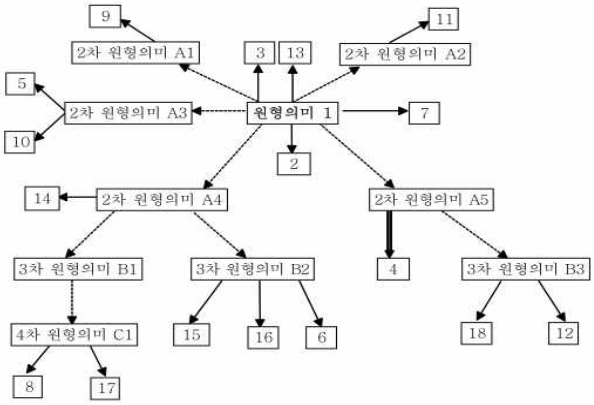
강기진(1985)에서는 다의어의 의미적 유연성은 기본의미를 추상성 정도

와 비례하며 추리 과정을 '기호->기본의미->추리 과정->파생의미'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다리'를 다의어로 본다면 '(a) 서울의 한강 다리', '(b) 철수의 아픈 다리', '(c) 우정의 다리', '(d) 참새의 다리'와 같이 '다리'의 포괄적인 의미를 상정한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의미 확장은 의미적 유연성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모두 다의 관계에 동시에 묶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리' 예시를 통해 기본의미의 추상성 정도를 형식화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의어는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추상적인 어휘목록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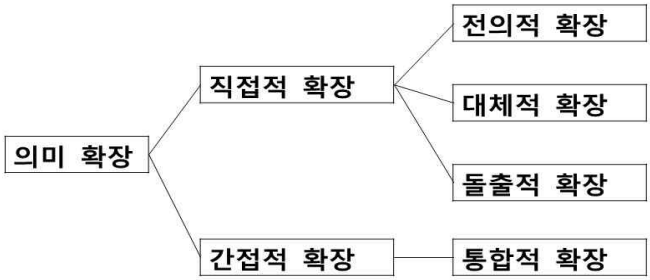
다의어 '다리'의 의미 분석 도식화		
1. 물체의 상체에 대응하는 구조이다.	2. 한 지점과 또 다른 한 지점을 연결하는 구체물이다.	3.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의 연결체이다.
		

<그림Ⅳ-1> 다의어 '다리'의 의미 확장의 인지적 분류

확장 의미는 크게 직접적 확장과 간접적 확장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확장이란 원형의미와 어떠한 친척 관계가 있는 것이면 간접적 확장은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겪은 확장 의미다. 전이, 대체, 현저성 돌출은 대부분 직접적 확장에 속하고 통합 확장은 일반적으로 간접적 확장에 속한다. 예를 들면, '가다'와 '오다'의 의미기능 중에 '이동'의 주체에 따라 '사람 이동-동물 이동--사물 이동--시간 이동--추상체 이동', '변화' 대상의 심화에 따라 '사람의 신분 변화–사람의 심리 변화--사람과 사물의 상태 변화'와 같은 확장은 원형의미와 가까운 의미 특징 가지고 있어서 직접적 확장에 속한다. 그러나 '소실', '소모', '생성'과 같이 원형의미에서 전달된 의미는 확장 의미 간의 관계가 비교적 멀고 양자의 관계 유연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의미기능은 간접적 확장에 속하고 있다.



<그림Ⅳ-2> 다의어의 의미망 가상 모형



<그림Ⅳ-3> 다의어 의미망 구축 도식

확장 방식을 직접적 확장과 간접적 확장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다의어 의미망 가상 모형 예시를 통해 원형으로부터 분열하거나 전환해 온 확장 의미가 원형의미 간의 관계를 도식화로 표현된다. 그림에서 A를 원형의미로 설정하여 원형의미에서 분열하고 전환된 하위 일차 의미기능은 '⇢' 화살표로 표현되어 하위 이차 의미기능은 '→' 화살표로 연결된다. 원형의미에서 전환해 나온 복잡한 통합적 확장 의미는 '⇒' 화살표로 표현된다.

3.2.1 의미망의 구상 규칙

본 고의 의미망 구축에 대한 구상은 인지심리학과 인지 언어학의 의미망 이론을 근거하여 개발하는 것이다. 다의어 의미망 구축의 기본적인 규

칙과 구상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원어, 뜻풀이, 용례 등 정보를 근거하여 관련 정도에 의해 다의어의 각 의미 항목을 정리한다.
2. 다의어 의미 항복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구축되는 의미망이라서 도식화 과정에서 확장 의미와 원형의미 간의 관련성과 유연성을 최대로 반영해야 한다.
3. 의미망은 다의어 학습의 도구로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의미 확장의 사고방식, 모국어와의 차이에 관해 설명해 주기 때문에 확장 관계와 상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
4. 의미망에 관한 서술은 간단명료하고 전면적이야 하는 특징을 지켜야 한다.
5. 의미망은 정태적 망 모형이라서 실제 교수 환경에서 동태적인 그림이나 동영상 활용을 통해 확장 의미를 더욱 인상 깊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다.

<표Ⅳ-8> 다의어 의미망 구축 규칙

3.2.2 의미망 구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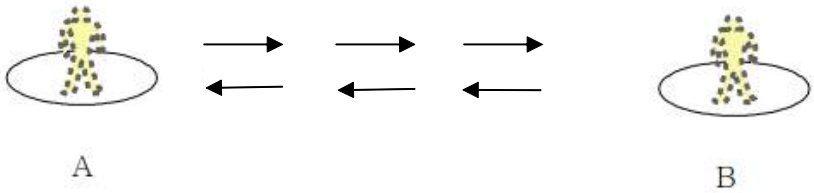
첫째, 한 언어의 의미체계 내부 각 의미 항목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장된 의미 항목의 확장 과정을 자세히 추론하고 분석하면서 다의어 체계에서 각 의미 항목의 전이 관계와 인식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인지적, 논리적 추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와 수단이다.

둘째, 한 언어의 핵의미를 기억하는 방법은 어휘 확장을 통해 기억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의미망은 한국어 원어민에게도 유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휘 확장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 표현력과 각 의미 항목을 다의어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복합 의미 항목은 의미 네트워크에서 구성되지만, 의미 네트워크에서 핵으로 구현된다. 이는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사가 의미 확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단어의 의미를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면 암기 속도와 학습 효율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셋째,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언어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미망에는 인지 세계의 심리적 흔적이 담겨 있으며, 민족 심리학은 연상을 통해 의미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배한다. 의미 네트워크는 언어 사용자의 사고방식의 차이도 반영한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의미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은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이 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할 수 있다.

3.2.3 '가다, 오다' 의미망 도식의 도출

먼저 '가다, 오다'가 장소 이동이라는 원형의미에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도식을 도출해 낸다.



주체. A사람	대상. 장소A, 장소B
도구. 사람의 다리	목적. 목적지에 도착
방향. (가다) 출발지-A에서, 목적지-B까지 (오다) 출발지-B에서, 목적지-A까지	

<그림Ⅳ-4>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 이미지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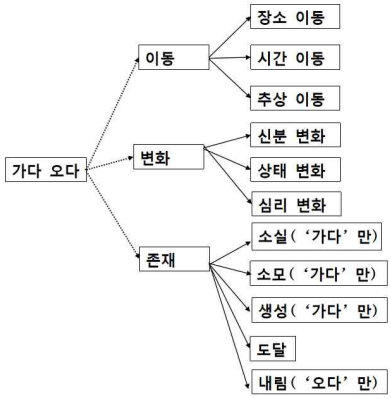
위의 도식은 '가다, 오다'의 기본의미 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초를 한다. '가다, 오다'의 각 확장 의미는 모두 이 도식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 도구, 방향, 현저성 등 인지 성분을 확장해가면 다양한 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출발점 A에서 출발하여 이동하면서 도착점 B까지 도착하는 과정은 많은 성분과 요소를 가진 동태적 이동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과정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동' 개념이 형성된다. 이 '이동' 개념이 확장 의미의 핵심으로서 확장 의미가 형성된다. 이 계열의 확장 의미는 주로

전이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이라서 전이적 확장에 속한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것은 확장 의미와 원형의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의미 '이동'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핵심의미를 강조하면서 확장 의미 간의 유연성과 관련성은 더욱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다. 이는 다의어의 이해와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미망의 제시순서는 빈도적 비대칭성, 인지적 비대칭성, 구조적 비대칭성을 근거하여 고빈도, 쉽게 이해하고 서로 호환성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의미기능을 먼저 제시한 후에 추상적이고 사용 빈도가 낮고 호환성 없고 교체 불가능한 의미기능을 뒤에 제시한다. 구체적인 의미기능 의미망 도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Ⅳ-5> '가다, 오다' 의미기능 의미망 도식



4. 인지모형을 활용한 이동동사 '가다, 오다' 교수·학습 방안 실제

이 절에서는 인지적 접근법에 따른 한국어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세부 의미기능 교육을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의미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수업은 주로 어휘 연상 실험, 의미망 구축, 도식화 제시 등 인지모형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교수•학습하지 않고 기존에 배우거나 만났던 '가다, 오다'의 다양한 의미기능 표현을 재정리하고 복습하면서 한

틀이나 프레임으로 인식하도록 교육 목표로 삼았다. 수업 모형은 교사의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본 고는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교사의 계획대로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며 통제된 연습을 할 수 있는 제시-연습-생성 교수법(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이하 PPP라 함) 모형으로 교안을 계획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PPP 모형과 함께 5단계 구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표Ⅳ-9> 상향식 교수-학습 모형(이미혜, 2007:300)

제시(presentation)	도입
	제시
연습(practice)	연습
생성(production)	활용
	마무리

첫 번째 제시(Presentation)의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을 이끌고 목표 문법에 대한 파악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도입 내용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연습(Practice) 단계는 제시 단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여 연습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단계이다. 새로운 언어를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한다. 학습자가 목표 문법 항목을 이용해 성공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연습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성(Production) 단계를 통해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을 통해 새롭게 습득한 문법 항목으로 자신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구체적인 수업의 학습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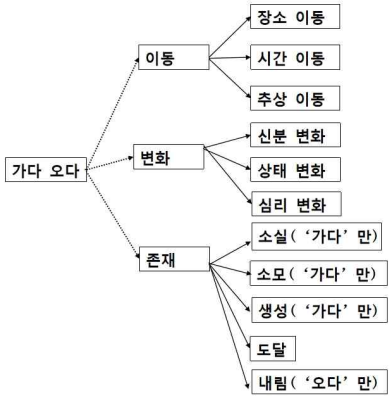
주제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용법과 표현 복습
학습 대상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학습 내용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원형의미, 확장 의미, 대응 관계, 모국어와의 차이점
학습 목표	이동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망과 연상 실험을 통해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차시	60분

<표Ⅳ-10> 수업 목표와 내용

교안의 설계 과정은 Ⅱ장의 다의어 의미기능 분류 원리와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류 양상과 오류 빈도를 바탕으로-사용 빈도가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의미기능을 제시하려고 한다. 상위-하위 의미기능 유형과 대칭성-비대칭 원리를 근거하여 의미 제시의 순서를 확정해 놓고 상응하는 예문과 도식을 만들어 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자주 나타나는 오류 유형과 양상을 바탕으로 연습 단계에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습하려고 한다.

<표Ⅳ-11> 수업 교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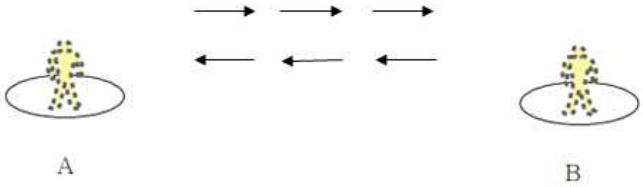
단계	내용
도입+제시 (30분)	교사: 여러분, 혹시 '가다, 오다'가 무슨 뜻이에요? 학생. 去(가다) 来(오다)의 뜻이에요? 교사: 네, 좋아요. '가다'와 '오다'는 이동동사로서 이동하거나 움직이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의미도 알고 있나요? 학생: 몰라요. 교사: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때 '가다'를 사용하여 어떻게 말해요? 학생: 시집을 가요? 교사: 네, 바로 우리 6과에서 배웠던 '시집을 가다'의 용법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다'는 신분 변화의 뜻이 맞아요? 학생: 네, 맞아요. 교사: 차, 여러분, 선생님이 활동지 하나 줄게요. 무슨 활동지냐면요. '가다'와 '오다'의 의미망이에요. 선생님이 제공한 힌트 의미를 근거하여 뒤에 여러분 머릿속에 나타나는 단문이나 결합할 수 있는 언어를 최대로 많이 써 보세요. 8분 드릴게요.



예문과 도식화를 사용하여 의미와 규칙을 설명하면서 수업 내용을 제시한다.

교사: 차,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썼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미부터 복습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학교에 가다'와 '학교에 오다'가 이동 의미 중의 장소의 이동이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면 '오다'를 사용해요.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 '가다'를 사용해요. 아래 그림을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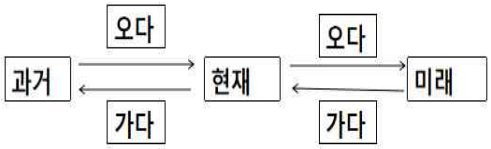
이어서 앞에 추상적 명사로 바꾸면 추상적 이동도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쓰는 '민주화로 가다'/ '민주화로 오다'는 추상적 물체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이동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간 이동 의미에서 '가다'는 부정적인 지속 의미를 특히 주의해야 해요. 이 용법은 '오다'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미선 씨가 감기가 결려서 2주 동안 계속 기침하고 아팠어요. 2주가 너무 길죠. '미선 씨가 감기가 오래 가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문: 여름이 지나간다. (O)　　여름이 다가오다 (O)

감기가 오래간다. (O)　　감기가 오래 온다. (X)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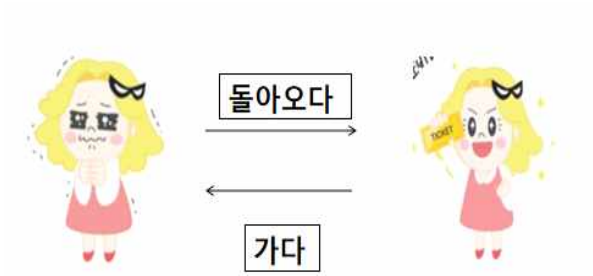


교사: 상태 변화 의미에서 정상적 상태에서 비정상적 상태로 변화할 때 '가다'를 사용해요. 그러나 반대로 정상적 상태에서 비정상적 상태로 변화할 때 '오다'가 아니라 '돌아오다'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면, 선생님 오늘 감기 걸렸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입맛이 별로 없어요(강조). 따라서 '선생님 오늘 감기기 결려서 입맛이 갔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원래 입맛이 있는데 오늘 감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입맛이 가다'로 쓸 수 있죠? 반대로 어제 선생님 감기 걸렸어요. 입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감기가 다 나아지고 몸이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입맛이 돌아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감기가 다 나아져서 입맛이 돌아왔어요'라고 말해요. '입맛이 왔어요'가 아니고 '입맛이 돌아왔어요'로 말해요. 이해했어요? 아래 예문과 도식을 한번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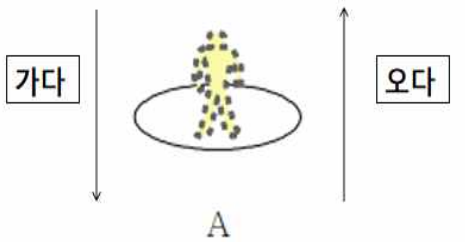
예문: 정신이 가다. (O)　　정신이 오다. (X)

정신이 돌아오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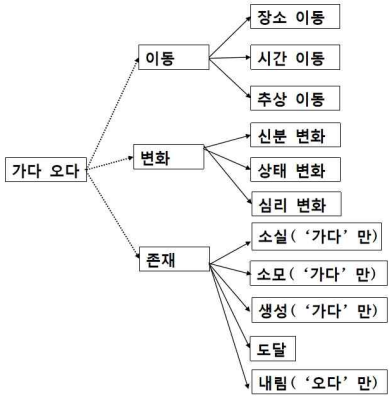
도식:



교사: 이어서 신분 변화 의미에서 역시 이동 의미처럼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시점에 따라 여러분 쓰는 것처럼 '시집을 가다.' 혹은 '

	시집을 오다'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예문: 시집을 가다. (O) 시집을 오다. (O) 장가를 가다. (O) 장가를 오다. (O) 교사: 심리 변화 의미에서 '가다'와 '오다'는 반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다'는 심리 변화의 경로와 과정을 중심으로 두지만 '오다'는 심리 변화의 원인을 중심으로 둡니다. 예문: 그 남자에게 호감이 가다. (호감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 남자로 전환한다.)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된다. (사고 발생하는 이유는 부주의다-->'오다'는 이유와 원인을 강조한다.) 교사: 도달 의미에서 '가다'와 '오다'의 이동 방향은 종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르면 '가다'를 사용해요. 아래에서 위로 이르면 '오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그 아이의 키가 내 허리까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볼 때 '오다'를 사용해요. 예문과 도식을 한 번 보세요. 예문: 치마가 종아리까지 간다. (O) 눈이 허리까지 온다. (O) 도식:  교사: 다음으로 '가다'와 '오다' 단독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황은 '가다'만 사용할 수 있고 '오다'는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미를 찾아보세요. 소실: 이 비누가 때가 잘 가다 (O) 젊은 나이에 간 친구 (O) 소모: 이 일이 손이 많이 가다 (O) 생성: 주름이 가다 (O) 금이 가다 (O)

	아래 상황은 '오다'만 사용할 수 있고 '가다'는 사용할 수 없어요. 내림: 눈이 오다(0) 비가 오다(0)
연 습 (15분)	문제1: 줄 연결하기 ▲ 다음에 '가다', '오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맞는 의미를 줄로 연결해주세요. ㉠ 전기가 가다 费力 ㉡ 호감이 가다 去污 ㉢ 감기가 오래간다 停电 ㉣ 정신이 가다 有好感 ㉤ 손이 가다 没精神 ㉥ 때가 가다 感冒一直持续 ㉦ 맛이 가다 有困意 ㉧ 정신이 돌아오다 变味(儿) ㉨ 눈이 오다 恢复精神 ㉩ 졸음이 오다 下雪 문제2: 빈칸 채우기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를 골라주세요. ㉠ 아이의 키가 내 허리까지 _____. a. 가다 b. 오다 c. 올라가다 d. 올라오다 ㉡ 다음 달에 남동생이 한국으로 _____. a. 장가를 가다 b. 장가를 오다 c. 장가를 들다 d. 장가를 하다 ㉢ 사고는 부주의에서_____. a. 가게 된다 b. 오게 된다 c. 끌게 된다 d. 나게 된다 ㉣ 감기가 나아서 입맛이 _____. a. 돌아왔다 b. 왔다 c. 들었다 d. 있다 ㉤ 그의 _____ 일이 제대로 된다. a. 손이 가야 b. 손에 가야 c. 손에 들어야 d. 손에 풀어야

	문제3: 어휘 연상 실험 (제시 단계에서 제시된 의미망을 다시 한번 학생에게 주고 관련된 연상 어휘를 작성하라고 유도한다.) ▲ 오늘 정리한 '가다, 오다'의 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아래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문장을 많이 써 보세요. 옆 친구랑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생 성 (15분)	생성1: 아래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 요구: '가다'/'오다'를 반드시 사용하기 去学校/来学校 (학교에 가다/학교에 오다) 夏天来了/夏天走了/感冒持续很久 (여름이 가다/여름이 오다 / 감기가 오래간다.) 有精神/没精神 (정신이 가다/ 정신이 돌아오다.) 结婚 (시집을 가다/오다) 事故是由于不注意引起的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된다.) 裙子到脚踝 (치마가 종아리까지 간다) 这个肥皂很去灰 (이 비누가 때가 잘 가다.) 这件事很费力气 (이 일이 손이 가다)

	墙上出现裂缝 (벽에 금이 가서 위험하다.) 생성2: 실제 상황극에 따라 문장을 완성하기 ▲ 요구: '가다'/'오다'를 반드시 사용하기 ① A: 우리 아버지가 올해 50세 넘었어요. 평생 농사일에 바쁘니까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점점 거칠게 되네요. B: 그러네요. 사람이 연세가 들면서 얼굴도 점점 _____. ② A: 혹시 아버지께서 무슨 일 하고 계세요? B: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일하고 있어요. A: 곧 겨울이니까 아버지께서 농사일에 _____? ③ A: 지수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B: 요즘 계속 야근을 하고 있으니까 _____. ④ A: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B: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니까 _____. ⑤ 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B: 검사 결과는 _____ 나온대. ⑥ A: 혹시 냉장고에서 놓은 김치 먹어도 돼요? B: 먹지 마세요. 그거 지난달에 사놓은 거라서 이미 _____ ⑦

	A: 이 치마 어때요? B: 너무 길지 않아요? 입어 보니까 _____. ⑧ A: 김 대리, 이번 사고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B: 이번 사고는 _____ 마련이다. 생성3: 쓰기 연습: '나의 주말'을 주제로 300자 이상의 일지 쓰기. ▲ 요구: 오늘 배운 '가다, 오다' 의미기능을 최대로 많이 사용하기

Ⅴ.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니는 한국어 방향성 이동동사 ‘가다’ ‘오다’가 지닌 본동사의 의미기능의 특징을 인지 언어학과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어 어휘 습득 능력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한 인정 모형에 의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에서 논의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 먼저 인지 언어학 원리를 근거하여 다의어의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개념화와 범주화 분류 방식, 동기화, 의미망 등 이론을 검토하였다.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개념적으로 하나의 범주로 보고 다의성을 범주화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인지 언어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이동 개념과 사건 틀을 참조하여 이동 개념과 의미를 인지적으로 규정하고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의미를 개념화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이동 사건의 구성요소들을 확정할 수 있다. 이동 사건의 인지 요소들을 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기존에 논항으로 설명하던 요소들의 재구성 실현 방식과 의미 유형을 살펴봤다. 언어의 의미가 원형의미에서 확장 의미로 개념적으로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의미망이 형성된다.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원형의미와 확장 의미를 결합하는 의미망 이론은 학습자들이 다의어 학습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에 대해 이해 및 인지 양상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고급에 이르더라도 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기능을 모두 잘 사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오류가 많이 존재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번역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가다, 오다'의 사용 빈도와 사용 오류 유형을 밝혔다. 또한, 사후 인터뷰와 인식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잘 못 파악하는 원인은 주로 용법의 복잡성과 다양성(구조적 비대칭성, 의미적 비대칭성), 한중 이동동사 의미기능 차이, 교재 부재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 배경과 Ⅲ장에서 살펴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휘 연상 실험과 의미망 도식화 구축 방법을 활용하여 암기와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

안을 만들어 낸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양상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 고급 수업 제시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과 제시하고 수업은 주로 어휘 연상 실험, 의미망 구축, 도식화 제시 등 인지모형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교수•학습하지 않고 기존에 배우거나 만났던 '가다, 오다'의 다양한 의미기능 표현을 재정리하고 복습하면서 한 틀이나 프레임으로 인식하도록 교육 목표로 삼았다. 수업 모형은 교사의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본 고는 대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통 수업 모형인 제시-연습-생성(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교육 모형으로 교안을 계획했다. 의미기능 제시 순서도 고빈도에서 저빈도로, 인지적으로 쉬운 의미에서 어려운 의미로, 구조적으로 대응 관계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관계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하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각 의미기능에서 예문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점이다. 둘째, 실험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인수가 비교적 적어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갈명영(2017), 한·중 합성동사에 대한 대비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석주(2007), 이동 동사 `가다`와 `오다`의 의미,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73-97.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

김미영 • 김진수(2019), 정도반의어 '있다/없다'의 의미 확장 연구, 어문학 144, 한국어문학회, 57-83.

김은혜(2012), 연상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관(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가다'와 '오다'의 화용론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 • 한상숙(2003), IN/OUT의 인지 의미론적 접근, 담화와인지 10(2), 담화·인지언어학회, 149-175.

나익주(2012), 다의어 'walk'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인지 19(1), 담화·인지언어학회, 55-79.

노금송(2009), '가다'와 '去'의 인지의미 대조연구, 한국언어문화학 6(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77-99.

로금송(2011), '가다'의 '공간이동' 의미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10-13, 국학자료원.

리위쯔(2020), 한국어 '-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去/来'의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아동(2022), 한·중 이동동사 '오르다' 및 '上(shàng)'의 다의관계 대조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74, 한중인문학회, 179-207.

문유미(2016), 인지언어학 기반 중국어 '走''去'와 한국어 '가다'의 대조분석 및 교수·학습 방안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98, 중국어문학연구회, 157-175.

박순옥(2000), 이동 동사의 의미에 관한 인지적 제약,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은성(2009), 한·일 장소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진현(2017), 한국어 교육에서 반의 관계 동사 교수 방안 연구, 우리말글 75, 우리말학회, 201-227.
송병우(2011), 이동 동사 ‘進、出、就’의 의미범주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문학회, 215-236.
신근(201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다의어의 교육 방법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찬원(2012), 의미 관계를 활용한 초등 어휘 교육 방법-이동 동사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5-2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5-16.
염철(2012), 이동 동사 ‘오르다’와 ‘上’의 의미 기능과 대응관계, 중국어교육과연구 15, 한국중국어교육학회, 71-92.
염철(2013), 이동동사 ‘내리다’와 ‘下’의 대조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18, 한국중국어교육학회, 157-177.
왕미자(2014), 한국어 다의어 교육을 위한 의미망 구축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미영(1990), 이동동사에 대하여, 목원국어국문학 1, 목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69-88.
유승림(2018), 한국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去/来’의 대조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영영(2012), 동사 오르다’, ‘올리다’, ‘내리다’의 의미와 용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복(1992), 반의어 '오다' '가다'의 의미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건환(1996), 국어 이동동사의 의미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남(2009),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남(2012), 한중 방향성 이동동사 구성의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혜(2007),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론의 재고찰, 한국어 교육 18-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10.
이민우(2002), 國語 移動動詞의 認知的 意味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이빙(2010), 상황맥락적인 분석을 통한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연(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진행상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연 • 이유경(2020),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의 의미 사용 연구 - 이동 동사 '가다'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7, 우리어문학회 399-432.
이양(2014), 한국어 보조동사 '-어 가다, -어 오다'에 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옥(2011), 이동동사 '가다/오다'의 기준점 설정에 대한 가설과 사용양상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희(2020), 한· 중 상승 이동 동사의 의미 대조 연구, 중국언어연구 86, 한국중국언어학회, 93-11.
이우자(2020), 한국어 '-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去/來'의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2012), 의미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어권 및 영어권 학습자와 한국인의 어휘 연상 반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민(1999), 日本語方向性移動動詞의 意味考察,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뭉(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이동동사 교육 방안,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영진(202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가다/오다' 동사의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룡(1996), 다이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229-261.
임지룡(1998), 다의어의 비대칭 양상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309-331.
임지룡(2001), 다의어 '사다' '팔다'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65-190.
임지룡(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193-226.
임지룡(2015), 대립어 작용 양상의 인지의미론적 특성, 우리말연구 40, 우리말학회, 65-100.
장용(2011), 한국어 '오다/가다'와 중국어 '來/去(lái/qù)'의 비교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수태(1986), 國語移動動詞의 意味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은진(2013), '가다, 오다'류 이동 동사의 어휘 습득에 관한 연구, 우리말연구 34, 우리말학회, 81-113.
조남신(1994), 다의어의 어휘의미 계층과 의미배열, 슬라브학보 9,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135-165.
조문비(2012), 中國人 韓國語 學習者 單語 聯想 意味의 樣相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문우(2003), 韓國語『가다 / 오다』와 中國語『去 / 來』의 對照研究,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호진(2004), 교환동사 어휘의 인지의미론적 분석과 교육적 적용,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영주・최영주(2011), 'hold'와 'catch'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21세기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30, 21세기영어영문학회, 41.
차오리핑(2016), 한·중 방향적 대립어의 다의구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천시권(1977), 다의어의 의미분석, 국어교육연구 9-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
최인혜(2009), 한국어 '가다/오다'와 중국어 '去/来'의 의미 비교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중식・장태원(2010), 韓中 부정식 반의어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53, 언어과학회, 239-258.
함희진(2010), 국어 합성동사의 형성과 발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달오(2010), 動詞 '들다/나다'의 意味에 대한 認知言語學的 考察, 어문연구 38-1, 한국어문연구학회, 131-153.
JIN CHUNMEI(2018), 중국어 신체어에 대한 연구 및 교육,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Lian Zhe(2015), 한국어와 중국어 이동동사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zamborska, Agnieszka Barbara(2016), 한국어와 폴란드어의 이동 동사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WEIPANPAN(2017), 한국어 'V-가다/오다' 합성동사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Yi Yujiao(2021), 한·중 방향성 가압동사의 의미 대조, 경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Zhang Xiaowen(201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아/어 가다', '-아/어 오다' 습득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해외 논저

Ambridge, B. & Bidgood, A. & Pine, J. & M., Rowland, C. F. & Freudenthal, D.(2016), Is passive syntax semantically constrained? Evidence from adult grammaticality judgment and comprehension studies. *Cognitive Science* 40-6, Wiley Subscription Services, 1435-1459.

Andrea Tyler(2016), Usage-based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Cognitive and corpus investigations of construction grammar, Usage-based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Cognitive Linguistics* 29-1, De Gruyter academic publishing, 155-161.

Evans, V.(2012), Cognitive linguistics, *Cognitive Science*, 3-2,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129-141.

Kövecses, Z.(2010), A new look at metaphorical creativity in cognitive linguistics, *Cognitive Linguistics* 21-4, De Gruyter academic publishing, 663-697.

Kim, M. S.(2010), Korean language learners' collocational word associ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classroom teaching,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1.

Sanders, J., & Spooren, W.(1997), Perspective, subjectivity, and modality from a cognitive linguistic point of view, *Amsterdam Studies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Linguistic Science Series* 4, John Benjamins Pubilishing Company, 100-112.

贾清如(2023), 认知语言学视角下的英语隐喻理论刍议, 英语广场 03, 31-34.

闫永平(2023), 认知语言学视域下"整合"教学的研究策略——以统编高中语文教材必修下册第一单元为例, 语文教学与研究 01, 38-43.

夏思聪(2022), 基于认知语言学原理的大学英语专业英语语法课堂教学创新研究, 英语广场31, 84-87.

刘生然(2022), 基于认知语言学的大学英语翻译教学研究, 现代英语 21, 55-58.

涂三堂(2012), 评徐子亮《汉语作为外语的学习研究.认知模式与策略》一书, 青年文学家 08, 152-153.

徐子亮(2010), 汉语作为外语的学习研究. 认知模式与策略.

曲蕾(2014), 元认知策略在大学英语词汇教学中的运用, 教育探索 02, 41-42.

樊娅楠(2023), 多维度视角下的英语翻译教学——评《认知语言学理论视角下英语教学新向度研究》, 中国教育学刊 02, 142-143.

孙健(2022), 认知语言视角下高校英语教学模式探析——评《认知语言学理论视角下英语教学新向度研究》, 中国高校科技 03, 109-110.

<부록1> 설문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동동사 가다 오다 의미기능 교육 연구

您好，我是首尔大学韩国语教育硕士耿欣怡，此用卷的目的是基于中国韩语高级学习者对移动动词가다和오다的语义教育研究。本用卷信息不会用于其他用途，感谢您的参与。共判断题33道，主观题3道，翻译题11道，时间10-15分钟。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경흔이입니다. 학위논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을 맞다고 생각하시면 0,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수는 총 47개고 소요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합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산책을 갔다.
   (1) O (2) X (3) 모르겠다

2. 민호가 공원에 산책을 갔다.
   (1) O (2) X (3) 모르겠다

3. 민호가 공원에 산책을 왔다.
   (1) O (2) X (3) 모르겠다

4. 결과는 내일에 와서야 나온 대.
   (1) O (2) X (3) 모르겠다

5. 오늘 와서야 계획이 취소되 었다고 연락 받았다.
   (1) O (2) X (3) 모르겠다

6. 감기가 오래 온다.
   (1) O (2) X (3) 모르겠다

7. 우동은 일본에서 왔다.
   (1) O (2) X (3) 모르겠다

8.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화로 오는 데에 많은 피를 흘렸다.

(1) O (2) X (3) 모르겠다

9. 우동은 일본에서 영국으로 간 말이다.

(1) O (2) X (3) 모르겠다

10. 이제야 감기가 다 나아서 입맛이 왔다.

(1) O (2) X (3) 모르겠다

11. 겨우 한 잔을 마시고 정신이 완전히 갔다.

(1) O (2) X (3) 모르겠다

12. 이제야 정신이 왔다.

(1) O (2) X (3) 모르겠다

13. 시집을 가다.

(1) O (2) X (3) 모르겠다

14. 시집을 오다.

(1) O (2) X (3) 모르겠다

15. 한국으로 장가를 온다.

(1) O (2) X (3) 모르겠다

16. 자신감이 있는 남성에게 호감이 온다.

(1) O (2) X (3) 모르겠다

17. 감이 오고 있는 것 같다.

(1) O (2) X (3) 모르겠다

18. 사고는 부주의에서 가게 되었다.

(1) O (2) X (3) 모르겠다

19. 나갔던 전기가 갑자기 왔다.

(1) O (2) X (3) 모르겠다

20. 이 비누는 때가 잘 온다.
(1) O (2) X (3) 모르겠다

21. 젊은 나이에 간 친구다.
(1) O (2) X (3) 모르겠다

22. 얼굴에 주름이 갔다.
(1) O (2) X (3) 모르겠다

23. 얼굴에 점이 갔다.
(1) O (2) X (3) 모르겠다

24. 얼굴에 점이 왔다.
(1) O (2) X (3) 모르겠다

25. 눈이 종아리까지 온다.
(1) O (2) X (3) 모르겠다

26. 치마가 종아리까지 온다.
(1) O (2) X (3) 모르겠다

27. 아이가 내 어깨에 갈 정도로 키가 크다.
(1) O (2) X (3) 모르겠다

28. 농사일에 품이 많이 간다.
(1) O (2) X (3) 모르겠다

29. 그의 손이 와야 일이 제대로 된다.
(1) O (2) X (3) 모르겠다

30. 책 등 잔손이 많이 오는 물건은 그냥 쏟아놓고 갔다.
(1) O (2) X (3) 모르겠다

31. 눈이 오니까 천천히 운전하세요.

(1) O (2) X (3) 모르겠다

32. 추위가 많이 가서 옷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1) O (2) X (3) 모르겠다

33. 비가 와서 조심해야 해요.

(1) O (2) X (3) 모르겠다

34. 가다, 오다에 관한 인식 조사(중국인 학습자만)

34.1 '가다'와 '오다'에 대해 이해가 어렵습니까?

34.2 '가다'와 '오다'는 반의어라고 생각합니까?

34.3 '가다'와 '오다'는 반의어로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34.4 '가다'와 '오다'는 반의어로서 의미는 1대1로 대응한다고 생각합니까?

34.5 '가다'와 '오다'는 중국어 '走 , 去'는 1대1로 대응한다고 생각합니까?

35. '가다'와 '오다'에 대해 어디서 배웠습니까? (중국인 학습자만)

36. 가다'와 '오다'와 결합할 수 있는 단어/연어 최대로 많이 작성하세요. (중국인 학습자만)

37. 번역 테스트(중국인 학습자만)

다음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37.1 到今天才收到消息(오늘 와서야 소식을 받았다.)

37.2 感冒好了所有才有精神(감기가 나아서 정신이 돌아왔다.)

37.3 下个月娶妻(다음 달에 장가를 간다.)

37.4 这次对他事故是由于失误引起的(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되었다.)

37.5 停电(전기가 나갔다.)

37.6 去公园散步(공원으로 산책을 간다.)

37.7 乌冬起源于日本(우동은 일본에서 왔다.)

37.8 脸上有皱纹(주름이 가다)

37.9 小孩子个子已经到我腰这么高了(아이의 키가 내 허리까지 왔다.)

37.10 事情到他手里就解决了

37.11 下雪(눈이 오다)
37.12 嫁人(시집을 가다)
37.13 完全没有精神(정신이 완전히 갔다.)
37.14 对他有好感(그 남자에게 호감이 간다.)
37.15 裙子到脚踝(치마가 종아리까지 간다)
37.16 结果到明天才出来(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Abstrac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o' and 'come' is a basic intransitive verb that is often presented in beginner courses. However, Chinese learners often fail to master the differences in semantic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go' and 'come' and their usage even at advanced level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Korean directional transitive verbs 'go' and 'come', which have diverse and complex meaning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inguistics and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o analyse how Chinese learners of Korean understand and use them, so as to suggest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improve their vocabulary acquisition. The research procedure and flow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n Chapter II,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gnitive linguistics, the theories of original and extended meanings of polysemy, conceptualisation and categorisation, synchrony, and semantic networks were reviewed. By referring to the transfer concepts and event frames defined by cognitive linguists, we can cognitively define transfer concepts and meanings and form meanings. Accordingly, we determined the semantic functions of 'go' and 'come' that can conceptualise and typify the dictionary meaning. Based on the semantic functions, we compared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go' and 'come' as a pair of antonyms and systematically summarised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e semantic functions of 'go' and 'come' as a pair of antonyms were then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ir Chinese counterparts, '走', '去', and '来', and the usage of 'go' and 'come' in Korean textbooks and dictionaries were identified.

In Chapter III,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cquisition patterns of advanced Chinese learners of

Korean transitive verbs 'go' and 'come'. Based on the theory in Chapter II, a questionnaire was designed in three parts and administered to 60 advanced Chinese learners and 22 Korean more speakers.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advanced learners had a universally low rate of correct answers to the extended semantic features of 'go, come'. Substitution and addition errors were found to exist in the usage patterns. Error analyses and post-interviews were conducted to find the causes of the error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discussed in Chapter II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discussed in Chapter III,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asures were proposed in Chapter IV. By utilising vocabulary association experiments and semantic network diagramming methods, we created teaching materials to help students memorise and remember. Using the 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PPP) education model, we proposed a teaching model that can be used in actual classrooms. The order of presentation of semantic features was also defined from high to low frequency, cognitively easy to difficult, semantically symmetrical to asymmetrical, and structurally corresponding to non-corresponding.

Chapter V summarises the discussion so far and discu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lack of a variety of example sentences in each semantic function and the fact that the Korean More speakers in the experiment made relatively few arguments, which reduced the reliability somewhat. It is hoped that future studies will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 Key words: Korean language teaching, Chinese learners, transitive verbs, go, come, cognitive language, contrastive

language, semantic function, semantic network, lexical association.

* Student number: 2021-23334